

廣州文化

통권 제 21 호
2010



광주문화원

廣州文化

통권 제 21 호
2010

새 희망으로 새 날을 열자

허 정 분

새해, 새아침을 다시 맞는다
온 누리에 어둠을 밀고 솟아오르는 여명
서설瑞雪처럼 차갑고 순결한 백지위에
누구에게나 공평한 삼백육십오일,

그 한해의 소망을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
설령 어긋날지라도 자식에게 바라는 어미마음 같은
작고 소중한 밑그림 새 날마다 그리리라 다짐하는
신묘년 새해의 그 환한 햇살 온 집안에 가둔다

맑고 정갈한 새 빛, 마음까지 환하다
저운 날의 행간에서 머물던 희망들이
파편처럼 튀어 시나브로 삭아 갈 때도
누적된 생의 무게에 허덕일 때도
다만 기댈 수 있는 것은 새 날이 온다는 진리,
그 불변의 약속 이었다

지금은 허황한 과장誇張이나 수사修辭가 불필요한 순간이다
가슴을 열고 뜨거운 피가 도는
온 몸의 파장波長에 손을 얹자
눈물과 고통으로 살아온 날의 흔적도
되돌아보면 그립고 아쉬운 추억이라면
살아갈 날의 여정은 얼마나 살뜰하라

내 나라 금수강산에 뼈를 묻는 내 식솔이 있는 한
누대로 이어진 이 희망의 끈은 영원할 것이다
지난날의 상처가 다 아문 것은 아니지만
도처에서 진행 중인 절망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힘도
새해, 새 희망, 새로운 각오의 출발이다

꿈꾸는 사람만이 미래의 희망이다
우리 모두 꿈꾸는 새 날이 되자



허정분

한국작가회, 한국편지문화회, 너른고을문화회 회원, 시산맥 화사동인
시집 『별열미 사람들』 『우리집 마당은 누가 주인일까』

사진으로 보는
2010
광주문화원

너른고을 대보름놀이 및
남한산성 등반대회



남한산성 등반



대보름놀이





광주문화원은
내고장 문화의 샘터

- ▲ 광주시사 발간식
- ▶ 광주문화원 정기총회
- ▶ 광주문화원 이사회



최항 선생 추모제



정충묘 제향

전통
문화의
향기



춘계 석전대제



1



2



3

1. 정뇌경 선생 추모제
2. 현절사 제향
3. 신익희 선생 추모제
4. 송열전 제향



4

문화교실





찾아가는 문화체험





원장이 취임식



신임원장단
고유제 및
임원 선진지 견학



평택 '웃다리문화촌'



남한산성문화제





취호대회



백일장



풍류음악회



예로차린 구절판





향토문화연구위원회
회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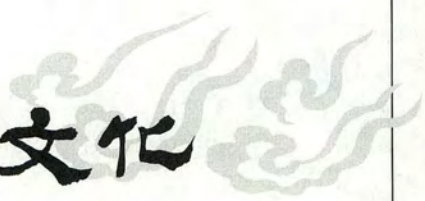


문화발전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전통혼례



廣州文化



목 차

권두시

새 희망으로 새 날을 열자 | 허정분 · 03

발간사

사람다움을 꿈꾸는 문화사회로 | 남재호 · 21

축사

광주시장 | 조억동 · 24

국회의원 | 정진섭 · 26

시의회의장 | 이성규 · 28

전통과 문화

· 王朝時代의 廟號에 관한 연구 | 구자청 · 33

· 전통과 결혼문화 | 박광운 · 65

· 조상에 대한 숭고한 예절, 제례 | 허정분 · 76

· 잊혀가는 전통예절의 전도사, 유도회 | 홍민자 · 85

· 광주시 장지동의 지명과

줄다리기 풍습에 대한 관견 | 박광민 · 91





광주를 말하다

- 星湖學派의 중심 인물 順菴 安鼎福 | 강세구 · 103
- 병자호란 시기 남한산성 항전의 국제관계사적 의미 | 한명기 · 128
- 10년의 남한산성 변화를 지켜보면서 | 전보삼 · 162
- 전통을 계승하는 광주의 도예가 | 이은실 · 169

문화 연구

- 좋은 언어로 세상을 채워야 | 구중서 · 179
- 영어를 가르치기로 한다면, 우선 | 석경정 · 184
- 우리는 東方禮儀之國의 後孫 | 박종선 · 189
- 경안천 단상 | 김환희 · 194

문화와 삶

- 역사문화탐방을 중국 서안(西安)에서 | 박기준 · 203
- 아버지, 그리움 | 심상구 · 215

문화 현장

-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풍류락' | 오경영 · 223
- 광주문화원 공연단 '존재감을 무대에 올린다' | 이종남 · 232
- 팔당 푸르내길 어디까지 왔나 | 편집부 · 249
- 광주문화의 이모저모 | 편집부 · 256



너른고을 옛이야기

· 가마소 설화 | 이종남 · 267

남한산성 백일장 수상작

- 〈초등부 대상〉 남한산성은 박물관이야 | 김세윤 · 283
- 〈중등부 대상〉 가장 찬란했던 봄, 그리고 남한산성 | 강효신 · 285
- 〈고등부 대상〉 웅고집이 남한산성을 지킨다 | 이해리 · 288

향토 문단

〈시〉

- 그시절 | 한기수 · 295
- 임이 정해준 자리 | 오정수 · 297
- 청산도 | 최영옥 · 299
- 술숯에 가면 | 임규택 · 302

〈수필〉

- 특별한 날의 사소함 | 오경영 · 304

광주문화원 조직도 · 309

편집후기 · 313



사람다움을 꿈꾸는 문화사회로~



문화원장 남재호

2011년 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광주문화원이 설립된 지 어언 24년, 창립 당시 초대 감사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새로 원장 직을 맡아 ‘광주 문화 제21호’를 발간하는 감회가 참으로 새롭습니다. 그간 광주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역대 원장님을 비롯한 임원,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지도자의 정신과 행동에 따라 그 방향을 달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리더는 늘 깨어 고민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두에 선 사람의

의식에 따라 그 지역의 문화 또한 색깔을 달리하게 됨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계획만으로는 문화를 주도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한 일이며, 또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6월 말에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의 규모를 방대하리만치 확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사회지도층이 문화발전을 위해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할 때,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때 자립도는 물론, 발전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광주문화원은 임원과 향토문화연구위원 및 문화발전특별위원, 그리고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협력에 힘입어 문화원에 거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전통을 계승 보전하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하고 받아들여 풍요로운 문화사회를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의 관심은 산업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넘어 이제 문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곧 세계를 주도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문화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믿음, 사랑, 존중을 통한 사람다움이 존재하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사람다움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이야말로 참다

운 문화세상입니다.

광주문화원은 시민의 삶을 잘 기록하고, 시민이 꿈꾸는 '문화광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기대에 몇 만 분의 일이라도 부응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광주문화 제21호'를 발간하면서 광주 문화 발전에 관심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과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辛卯年 새해, 문화가족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광주문화』 21호 발간을 축하하며



광주시장 조억동

다사다난 했던 경인년을 뒤로 하고 희망찬 신묘년 새해가 밝아오는 시기에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의 감성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을 모아 광주문화 21호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남재호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원 가족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과 부단한 노력으로 발간되는 광주문화는 그동안 우리지역의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지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팔당호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남한산성, 조선백자도요지 등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도농복합도시로서, 최근 지역개발로 인한 급속한 성장과 양적 발전을 거듭해 옴에 따라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과 지역문화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이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아무쪼록 금번 광주문화 21호 발간을 통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발전의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당부 드리며, 밝아오는 신묘년 새해 문화원 가족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광주문화』 21호 발간을 축하하며



국회의원 정진섭

「광주문화」 제21호지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향토고유문화의 보존·전승은 물론, 광주 고유문화 계발 및 교육활동 등을 통해 광주시의 아름다운 향토문화를 시민들에게 일깨우는 데 앞장서고 계신 남재호 문화원장님과 광주문화원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남한산성과 국가지정 문화재인 분원백자도요지, 수도권의 식수를 담당하는 팔당호 등 뛰어난 역사유적과

함께 많은 분들께서 향토고유문화를 보존하고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광주문화원은 풍물놀이와 영월제, 산신제 등과 같은 민속놀이를 육성해 오고 있으며, 신익희 선생 추모행사, 전통무용교실, 문화유적지답사 등을 통해 우리 향토고유문화를 보존·전승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광주문화원의 주요 사업을 알리는 역할을 바로 「광주문화」가 하고 있습니다.

「광주문화」 발간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고, 나아가 지역에 대한 애정이 더욱 커져 나갈 수 있는 참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시의 지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계속 수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21번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광주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원 가족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문화』 21호 발간을 축하하며



광 주 시
의회의장 이성규

우리고장의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향토관을 심어주는 매개체로서 거듭 발전을 하고 있는 『광주문화 21호』 발간을 25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많은 유형·무형문화재의 발굴 등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가운데 지역문화발전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계신 남재호 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를 ‘문화의 세기’,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문화적 창조력이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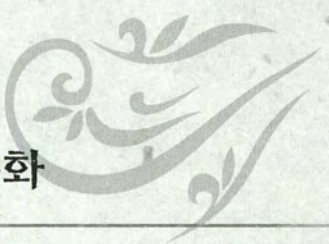
이제는 정신적인 문화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희망으로 가득한 문화의 시대에 우리 고향에 대한 주체의식과 문화적 창의성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지방 자치시대 발전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광주문화』 지가 지역문화 향상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하여 지방 자치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광주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시민이 보다 친숙하게 접하며 계승 발전시켜 문화시대에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소식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여 백



전통과 문화

- 구자청 | 王朝時代의 廟號에 관한 연구
- 박광운 | 전통과 결혼문화
- 허정분 | 조상에 대한 숭고한 예절, 제례
- 홍민자 | 잊혀가는 전통예절의 전도사, 유도회
- 박광민 | 광주시 장지동의 지명과 줄다리기 풍습에 대한 관견

여 백

王朝時代の 廟號에 관한 연구

- 祖와 宗을 중심으로 -

구 자 청

漢學者, 傳統文化研究家

1. 서 론

묘호란 임금의 사후 신주(神主)를 종묘에 봉안할 때 신실(神室)에 붙이는 명칭으로 즉, 태조, 세종, 세종 등으로 불리는 임금의 호칭을 말하는 것이다.

임금의 사후 호칭은 묘호 이외에도 시호(諡號)와 연호(年號)가 있다. 따라서 묘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종묘제도, 시호제도, 연호제도, 종법제도(宗法制度)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들은 중국을 그 기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역대 황실계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묘호와 관련된 각종제도를 살펴보고, 중국의 나라별 임금의 묘호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고려 및 조선왕조 임금들의 묘호를 고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묘호를 정함에 있어 조와 종을 구분하는 기준”

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2. 묘호 관련 제도

가. 종묘(宗廟)제도

종묘는 다른 아닌 사당(祠堂)이다. 사당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황제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태묘(太廟), 왕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을 종묘(宗廟), 일반 사대부의 조상을 모신 사당을 가묘(家廟)라 한다. 유교에 있어서 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절대적 가치로서 유교를 국시(國是)로 삼은 왕조 국가에서는 종묘와 사직을 가장 중시하여 궁궐의 동편에 종묘를, 서편에 사직단을 세우고 때에 맞춰 제사를 지냈으며, 사대부들도 집을 지을 때 정침(正寢)의 동편에 사당을 세우고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데, 황제는 7묘, 왕은 5묘, 6품 이상의 사대부는 3묘, 7품관 이하는 2묘를 둘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었다. 여기서 7묘, 5묘, 3묘, 2묘라고 하는 것은 사당에 신주를 모시는 조상



의 대수(代數)를 말하며, 신분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묘제도의 기원은 중국 고대의 3대(三代: 夏.殷.周나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특히, 유교의 사상적 젖줄 역할을 한 주나라의 종묘제도는 공자를 비롯한 선진(先秦) 유학자들의 저서와 각종 예서(禮書)등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인지 종묘제도가 정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시호(諡號)제도

시호는 임금의 사후 그 공덕을 칭송하여 붙이는 명칭으로 중국의 주나라로부터 연유한다. <예기 단궁편>에 “사후에 시호를 사용하는 것은 주나라의 제도이다.” 라고 하였으며, 주나라의 문왕, 무왕, 성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곧 시호이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임금이 아닌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시호가 주어지면서 임금에게는 별도로 묘호가 생겨나게 되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시(諡)는 행(行)의 자취이고, 호(號)는 공(功)의 표시이다. 행은 자신에게서 나오고, 명(號)은 남에게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훌륭한 자취를 남긴 사람에게는 좋은 시호가 주어지고, 악한 행실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나쁜 시호가 주어지게 된다. 이로써 보면 시호란 한 사람의 일생을 압축한 표현으로 권선징악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시법(諡法:시호를 짓는

규칙)에는 주공시법(周公諡法)과 춘추시법(春秋諡法)이 있는바,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법흥왕 1년(514)에 선왕에 대하여 지증(智證)이라는 시호를 올림으로서 시법의 시초가 되었고, 백제성왕 1년(523)에 선왕에 대하여 무령(武寧)이라는 시호를 올린 기록이 있음을 볼 때 삼국시대부터 시호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연호(年號)제도

연호는 기년법(紀年法 : 연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호(元號)라고도 하며,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기나 서기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건국기원을 사용하지 않고 임금의 즉위년을 기준으로 하는 즉위년 칭원법(卽位年稱元法: 즉위한 당해 연도를 원년으로 하는 기년법)을 사용하였으나, 재위 기간에도 연호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예가 많았다. 따라서 한사람의 황제 재위기간에도 여러 개의 연호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웠으므로 명나라를 개국한 홍무제(洪武帝: 明太祖 朱元璋)가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 황제마다 하나의 연호를 사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영원히 바꾸지 말도록 하였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호는 황제에 한해서만 제정권이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즉위년(391)에 영락(永樂)이란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문헌상 최초의 기록이고, 신라에서는 법흥왕 23년(536)에 건원(建元)이란 연호를 사용하였다. 고구려나 신라의 연호는 즉위년 칭원법을 사용하였으나, 고려와 조선에서는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 즉위한 이듬해를 원년으로 하는 기년법)으로 고쳐서 사용하였다. 그러나 고려 후기로부터 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원·명·청(元·明·淸)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라. 종법(宗法)제도

종법제도는 조상의 종묘를 중심으로 형성된 동일 혈족의 제사조직으로 대종(大宗)과 소종(小宗)이 있으며, 종통(宗統)의 계승은 적장자로 한정된다. 이러한 종법은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도(封建制度)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제도로써 지배 귀족간의 혈연에 의한 신분제도와 질서의 원칙이다. 주나라 왕실은 대종이 되고 제후국의 공실(公室)은 소종이라 하는데 소종인 제후국의 왕을 대종인 주왕실의 적장자가 아닌 아들과 개국공신들을 임명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치질서를 확립하려고 하였으며, 대종인 주왕실의 왕위를 대대로 적장자에 의해서만 상속, 계승시켜 군통(君統: 왕의 계통)과 종통의 일치를 도모 하였다. 이때 소종인 제후국은 대종인 주왕실에 대해 무조건적인 충성을 하도록 하여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종법제도가 묘호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중국의 여

러 왕조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 바로 이 종법제도의 종통승계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나라 봉건제도의 붕괴에 따라 침체를 면치 못했던 종법제도는 송나라 때 부활하게 되어 성리학(性理學)과 함께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다.

3. 조(祖)와 종(宗)의 기준

가. 창업지군칭조(創業之君稱祖) 계체지군칭종(繼體之君稱宗)

나라를 건국한 최초의 임금은 조(祖)라 부르고, 부자(父子)간에 계승한 임금은 종(宗)으로 부른다.

나. 유공왈조(有功曰祖) 유덕왈종(有德曰宗)

공(功)이 많은 임금을 조(祖)라 하고, 덕(德)이 높은 임금을 종(宗)이라 한다.

다. 입승왈조(入承曰祖) 계승왈종(繼承曰宗)

왕자(王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서 임금이 되는 경우에 조(祖)라 하고, 계승한 임금은 종(宗)이라 한다.

4. 중국 역대 임금의 묘호

중국의 역대 임금에 대한 묘호분석을 위한 나라의 선택은 왕조의 존속기간과 문물제도의 완비 등을 참작하여 묘호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했던 한(漢)나라를 비롯하여 묘호

제도를 정착시킨 당(唐)나라 그리고 송(宋), 원(元), 명(明), 청(淸)나라 등 6개 왕조를 대상으로 삼았다.

**가. 한(漢)나라 : 전한(前漢 : BC206 ~ AD5, 임금 14명)
후한(後漢 : AD 25 ~ 220, 임금 14명)**

전한의 역대 임금 중에서 묘호에 조를 받은 임금은 高帝(太祖)뿐이고, 종을 받은 임금은 문제(文帝:太宗), 무제(武帝:世宗)등 5명이며, 나머지 8명의 임금들은 묘호를 받지 못했다. 후한에서도 묘호에 조를 받은 임금은 광무제(光武帝:世祖)뿐이고, 종을 받은 임금은 명제(明帝:顯宗), 장제(章帝:肅宗)등 6명이며, 나머지 7명의 임금들은 묘호를 받지 못했으니 ▲ 후한시대 - 광무제



전.후한의 임금 28명중에 15명이나 묘호가 없는 셈이다.

묘호제도가 한나라에 들어와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고제(高帝:太祖)는 전한의 창업지군(創業之君)으로, 광무제(光武帝:世祖)는 후한의 창업지군으로서 “조”를 받았고, “종”을 받은 11명의 임금은 계승왕종(繼承王宗)의 기준에 따른 것이며, 묘호를 받지 못한 임금들은 치세(治世)의 미흡함을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본다면 한나라에서 묘호를 정할 때 “창업지군칭조, 계승지군칭종, 유덕왕종”이라는 세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겠다. “유덕왕종”은 계승한 임금

이라 하더라도 덕이 치세에 미치지 못하면 묘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기준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한무제(世宗)의 공(功)은 “유공왈조”의 기준으로 본다면 “조”를 붙여도 손색이 없을 것이며, 광무제(世祖)의 경우에는 후한의 사실상 창업지군으로서 “태조”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한황실의 후예인 점을 감안하여 “세조”라고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고제(高帝)의 묘호인 태조(太祖)를 무제(武帝)가 지어 올렸다는 기록으로 볼 때 묘호제도는 한무제 때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한나라에서는 묘호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호칭에 있어서는 시호(諡號:文帝,武帝 등)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한나라의 임금 중에 묘호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나. 당(唐)나라 (618 ~ 907, 임금 20명)

한나라에서 생겨난 묘호제도는 당나라에 들어와 정착되었는데, 당나라임금은 치세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묘호를



▲ 당나라 - 고조 이연

받았으니, 이는 한나라와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리고 묘호에 조와 종을 붙이는 기준은 “창업지군칭조 계승지군칭종”을 적용하여 고조(高祖:이연)만 “조”하고, 나머지 모든 임금은 “종”으로 하였다. 만일에 “유공왈조”

의 기준에 따랐으면 당나라 최고의 임금으로 일컫는 태종(太宗:이세민)의 경우 “조”가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당나라의 경우 또 하나의 특징은 시호(諡號)제도이다. 당나라 이전에는 임금의 시호가 보통 한두 글자였으나, 당나라에 들어와서는 시호의 글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예로 당 태종의 시호는 “문무대성대광효황제(文武大聖大廣孝皇帝)”이며, 선종(宣宗:16대임금)의 시호는 무려 20자에 이른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즉, 임금의 시호가 길어지면서 부르는 호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호를 사용하던 종래의 관행을 버리고 임금의 칭호를 묘호로 사용토록 하였으니 묘호가 임금의 칭호로 불리게 된 것은 당나라로부터 비롯되었다.

**다. 송(宋)나라 : 북송(北宋:960 ~ 1127, 임금 9명)
남송(南宋:1127 ~ 1279, 임금 9명)**

송나라의 묘호제도는 당나라와 마찬가지로 “창업지군칭조 계승지군칭종”의 기준을 따랐다. 송나라를 건국한 태조(趙匡胤)를 제외한 모든 임금의 묘호에 “종”을 붙였으며, 남송의 마지막 임금인 소황제(少皇帝)는 묘호가 없다. 송나라 임금의 묘호 중에서 주목해야할 필요가 있는 묘호는 남송의 시조인 고종(趙構)이다. 고종은 정강의 변(靖康의變:1127에 북송의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에 붙잡혀간 사건)으로 북송이 멸망하게 되자 수도를 임안(臨安)으로 옮기

고 양자강 이남의 영토를 중심으로 남송을 창건하였다. 이는 한나라의 광무제인 세조의 역할과 유사하므로 고종의 묘호에 “조”를 쓸 수도 있었으나, 고종이 북송의 휘종의 아들이고 흠종의 동생으로서 북송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계승지군칭종”의 기준을 적용하여 “종”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계승한 임금은 백세에 빛나는 공덕(功德)이 있다 할지라도 조(祖)가 될 수 없다.”는 논리라 하겠다.

라. 원(元)나라 (1271 ~1368, 임금 10명)

원나라는 중국역사에 있어서 이민족인 몽골제국의 압제를 받은 시기이다. 원의 시조인 세조(쿠빌라이)는 몽골제국의 제 5대 임금으로서 태조(징기즈 칸)의 손자인데 그가 중국전체를 점령하고 원(元)제국을 건설하였다. 원의 묘호제도 역시 전 왕조인 송(宋)의 묘호제도를 답습하였으므로 시조 “쿠빌라이”외에는 “조”를 사용한 임금은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원나라의 시조이면서 태조나 고조란 묘호를 쓰지 않은 것은 쿠빌라이의 할아버지인 징기즈 칸에게 몽골제국의 시조로서 태조라는 묘호를 올렸기 때문이라 하겠다. 이로써 본다면 원나라도 “창업지군칭조 계승지군칭종”이라는 묘호의 기준이 지켜졌다고 볼 수 있다.

마. 명(明)나라 (1368 ~ 1644, 임금 16명)

명나라는 이민족인 몽골제국의 원나라를 몰아내고 한족이 세운 나라이다. 따라서 모든 문물과 제도는 당.송(唐.

宋)을 기본으로 하였으므로 묘호에 있어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명나라의 임금 16명중에 “조”를 사용한 임금은 洪武帝(太祖)와 永樂帝(成祖)뿐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성조는 당초에 “태종”으로 묘호를 받았으나, 사후 115년이 지난 1538년(嘉靖17)에 성조로 고쳤는데 이는 영락제가 명나라 초창기에 영토를 확장하고 국가의 기본 틀을 확립한 명군(名君)이라는 명분에 기초한 것이다. 그렇더라도 태종을 성조로 고친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당태종의 경우 공(功)으로나 치세로 보더라도 결코 영락제보다 못하지 않음에도 “중”으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영락제는 조선왕조의 세조와 유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영락제도 조선의 세조처럼 조카인 건문제(建文帝)를 몰아내고 스스로 임금이 된 사람이다. 이 경우가 “유공왈조(有功曰祖) 입승왈조(入承曰祖)”라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입승이라는 것은 왕통(王統)의 계승권이 없는 자가 들어와 대통을 잇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락제를 “조”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 영락제는 홍무제의 적자이기 때문이다.

명나라 초에 임금의 칭호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는데 다름 아닌 연호(年號)에 의한 호칭법이다. 명 태조 주원장은 일세일원법(一世一元法)을 제정하고 이를 영원히 바꾸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일세일원법이란, 한사람의 임금

이 재위하는 동안에는 연호를 하나만 쓰도록 한 것으로 명나라 이전에는 한사람의 임금 재위기간에도 여러 개의 연호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혼란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특정 연호가 특정 임금을 지칭하는 용어가 됨으로써 이때부터 연호가 임금의 호칭 법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명 태조는 “홍무제” 영종은 “정통제”로, 청 성조는 “강희제” 고종은 “건륭제”로 불리었다. 여기서 홍무, 정통, 강희, 건륭은 모두 연호이다.

바. 청(淸)나라 (1636 ~ 1912, 임금 12명)

청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중국 최후의 통일 왕조국가로 태조(누루하치)에서 승덕제(太宗), 순치제(世祖), 강희제(聖祖)에 이르기 까지 4대에 걸쳐서 완성 되었다. 청나라는 중국 역대황실의 전통인 적장자 계승 원칙의 종법제도(宗法制度)를 따르지 않았으며, 묘호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12명의 임금 중에 “조”가 3명, “종”이 9명이다. 이는 앞선 왕조보다 유난히 “조”가 많은 편인데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건국과정이 길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태조를 제외하고도 세조와 성조가 더 있다.

세조인 순치제는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수도를 심양에서 북경으로 옮겨 갔으며, 성조인 강희제는 변방의 여러 민족을 복속시켜 완전한 통일제국을 건설 하였다. 그러므로 순치제와 강희제의 묘호는 “유공왈조”라고 하는 기준

을 적용하여 세조, 성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유공왈조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태종의 경우는 왜 “중”으로 하게 되었는지 여전히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강희제의 묘호를 성조(聖祖)라고 하게 된 이유를 보면 “성인의 뜻으로 국가를 다스려 진정으로 통일시킨 큰 업적이 있는 임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공왈조”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 분명하다 하겠다.

5. 우리나라 역대 임금의 묘호

가. 고려왕조 (918 ~ 1392, 임금 34명)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세운 나라가 고려다. 고려 전기의 대륙의 정세는 송(宋)이라는 통일 제국이 형성되었다. 송나라는 건국 후 문치(文治)를 표방 하였으므로 주변국의 정복이나 통제 같은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도 비교적 대륙으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송나라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 하였다. 따라서 이때가 민족의 자주성이 발휘된 시기라 하겠다. 그리고 각종 문물과 제도에 있어서도 당(唐), 송(宋)의 우



▲ 고려 왕건

수한 제도를 흡수 하였으므로 묘호도 당.송을 본받아 “창업 지군칭조 계승지군칭종”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고려의 임금 34명중 “조”는 태조 왕건뿐이고, “종”은 23명이며, 나머지 10명은 묘호가 없다. 충렬왕부터 충정왕까지 6명의 임금은 원나라로부터 받은 시호를 사용하였으며, 공민왕의 경우에는 명나라로부터 받은 시호이다. 그리고 우왕. 창왕 등은 폐위되어 묘호는 물론 시호조차도 없다. 고려왕조의 묘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으나, 원나라의 지배를 당한 100여 년 동안 임금이 묘호를 받지 못하고 시호 등을 사용하게 된 역사적 불행이 있었다는 점이 애석할 뿐이다.

나. 조선왕조 (1392 ~ 1910,임금 27명)

조선왕조는 유학을 국시(國是)로 삼았다. 특히 성리학(性理學)의 나라로 불릴 만큼 조선왕조 전 기간을 통해 성리학적 사상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묘호제도에 있어서는 어느 왕조 보다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 문제를 다루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조선의 임금 27명 중 7명의 임금이 묘호에 “조”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7명 중 태조를 제외한 6명의 임금을 대상으로 묘호에 “조”를 사용하게 된 경위를 밝혀보고자 한다.

1) 세조(世祖) : 제7대 임금, 1455 ~ 1468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로 계유정난(癸酉靖難:정난은 간



▲ 조선왕조실록

신을 몰아낸다는 뜻임)을 통해 집권하였으며, 왕위에 오른 후에도 사육신사건(단종복위 사건)을 겪는 등 집권과정이 험난했다고 할 수 있다. 세조의 묘호를 정할 때의 논의 과정을 실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조선왕조 예종실록 즉위년 9월 24일 기사〉

- * 조정에서 대행대왕의 묘호를 “신종(神宗).예종(睿宗).성종(聖宗)” 등으로 보고 하였다.
- * 대행대왕께서 재조(再造:나라를 다시 일으킴)한 공덕은 일국의 신민으로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묘호를 세조(世祖)로 일컬을 수 없는가? (예종임금)
- * 세조는 우리 조종(祖宗)에 세종(世宗)이 있기 때문에 감히 의논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인지)
- * 한나라 때에 세조가 있고 또 세종이 있었는데 이제 세조로 하는 것이 어찌 거리낌이 있겠는가? (예종임금)
- * 이는 신(臣)등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료들)

이 논의 과정을 보면 예종 임금의 “세조”로 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정인지를 비롯한 신료들은 별다른 반론이 없었음을 볼 수 있는데 예종이 왜 세조를 들고 나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종의 말대로라면 “창업지군칭조 내지는 유공왈조”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종이 말한 “재조의공”은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운 창업에 버금간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다. 첫째는 종법제도에서 소종은 영원히 대종이 될 수 없는데 세조의 경우 소종으로서 대종이 되었으므로 후세의 논란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둘째는 집권 과정에 있었던 계유정난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묘호를 “조”로 하여 왕통(王統)을 바꾸는 재 창업으로 포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아마도 묘호를 정하는 과정에 당시의 실세였던 한명회, 신숙주 등이 예종 임금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세조의 묘호와 관련된 춘관지(春官志 : 예조의 기록)의 기록에는,

* 중종(中宗)이 승하하자 묘호는 종(宗)으로 불렸다. 그뒤 인종(仁宗)이 하교하기를 “선왕 은 난을 평정하여 바른 세상으로 회복하였으니 중흥(中興)의 공이 있다. 나는 조(祖)로 부르고 싶다.”고 말하였다. 예관(禮官)이 회계(回啓)하기를, 옛날 송나라 고종의 묘호를 의논할 때 혹자는 조(祖)로 부르자고 하였습니다. 우무관 사람이 말하기를, 한나라의 광무제는 장사정왕(長沙靖王)의 후예로서 들어가 대통을 이었으므로

조로 부른 것이다. 고종은 비록 중흥의 공이 있지만 휘종(徽宗)의 아들이자 직접 흙종(欽宗)을 계승 하였으니 조로 부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조(世祖)는 중흥의 공이 있고, 또 아우로서 형을 계승 하였기에 조로 부르는 것입니다. 대행대왕(中宗)은 비록 중흥의 공이 있으나, 직접 성종(成宗)의 계통을 이었으니 조로 부르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임금께서 다시 의논토록 명령 하였지만 대신들이 불가하다고 하여 마침내 그만 두었다.

이로써 보면 세조나 중종이 모두 중흥의 공은 있으나, 세조는 아우로서 형을 계승하였고, 중종은 아들이자 아버지를 계승한 점이 다르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세조 또한 세종의 아들인 만큼 조가 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만약 공이 많고 아우로서 형을 계승한 것이 기준이라면 태종(이방원)도 “조”가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조선왕조에서 조종(祖宗)에 대한 논란은 세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2) 선조(宣祖) : 제14대 임금, 1568 ~ 1608

선조는 중종의 서자인 덕흥군(德興君)의 아들로 태어나 명종의 후사(後嗣)로 들어가 대통을 이었다. 재위기간에 문치(文治)를 표방하여 당시에 많은 학자들이 배출되었으나, 임진왜란으로 국가를 파산 직전에 이르게 함으로써 후세사가(史家)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임금이다. 선조의 묘호를 정할 때 논의 과정을 <춘관지>를 통해 살펴보겠다.

* 선묘(宣廟)가 승하하여 조정에서 묘호를 의논할 때 모두들 말하기를, “선묘께서는 종계(宗系)를 바꾸고 왜구(倭寇)를 물리친 두 가지의 큰 공을 세우셨으니 마땅히 조(祖)로 불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판서 윤근수(尹根壽)가 차자(筴子: 간단한 상소문)를 올려 그 잘못을 이렇게 논하였다. “창업하신 임금은 조로 부르고, 계승하신 임금은 종으로 부르니 이는 고금의 불변하는 법도입니다. 서한(西漢) 이백년 동안 고조(漢高祖) 외에 조로 부른 임금이 없고, 동한(東漢) 이백년 동안 세조(光武帝) 외에 조로 부른 임금이 없으며, 송(宋)나라 삼백년 동안 태조 외에 조로 부른 임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려도 태조 외에 조로 부른 임금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 큰 공(功)이나 큰 덕을 세운 임금이 정말 많았지만 조의 호칭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명(明)나라에 이르러서는 태조(洪武帝) 외에 다만 태종문황제(永樂帝)가 1538년(嘉靖 17)에 가서 성조(成祖)로 뒤늦게 고쳐진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왕조의 세조의 묘호에도 조를 올렸습니다. 영락제는 건문제(建文帝: 영락제의 조카)를 제거 하였고, 세조는 노산군(魯山君: 단종)의 선위를 받았으나, 또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 부자간에 계통을 이을 때에는 모두 종으로 부르는 법입니다. 만약 조라는 호칭을 선왕(선조)에게 올린다면 예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후세의 비웃음을 사기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선종(宣宗)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 뒤에 허균과 이이첨 등이 다시 조로 부르자는 주장을 하여 선조(宣祖)로 고치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선조는 명종의 후사(入養子)로 들어가

대통을 이었으므로 부자간의 계승이니 선종으로 묘호를 정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선조의 생부(生父)인 덕흥대원군을 왕으로 추존(追尊)하지 않은 것도 선조가 명종의 후사가 되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묘호를 의논할 때에 선조가 종계를 바꾸었다는 주장은 잘못이라 하겠다. 그러나 선조 사후 8년 뒤인 광해군 8년에 허균과 이이첨 등이 선종을 선조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을 펴서 광해군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선조로 고치게 되었다. 광해군이 이를 수용한 것은 자신이 서출(庶出)로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잠재우려는 목적으로 부왕인 선조를 높여 부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인조(仁祖) : 제 16대 임금, 1623 ~ 1649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낸 서인(西人) 정권에 의해 옹립된 임금으로 선조의 서자(庶子)인 정원군(定遠君)의 아들이므로 선조에겐 손자가 되는 것이다. 인조의 경우 왕위 계승, 묘호 등에 있어서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인조가 선조를 계승하는 것이 조손(祖孫)간의 계승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부자(父子)간의 계승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이다. 종법체계에 따르면 조손간 이라 하더라도 대통을 직접 잇게 되면 부자의 의리가 생긴다. 그러나 인조는 선조를 직접 계승한 것이 아니므로(광해군이 직접 계승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조는 자신의 생부(生

父)인 정원군을 원종(元宗)으로 추존하여, 선조. 원종. 인조로 종계(宗系)를 바꾸게 된다. 그리하여 혼조(昏朝:광해군 집권기)를 바로 잡은 중흥의 공과 종계를 바꾸었다는 명분으로 묘호에 조를 붙이게 된 것이다. 여기서 인조의 묘호를 정할 때의 의논을 보기로 하자. 효종실록과 춘관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 1649년(효종 즉위년) 5월 15일에 좌의정 이경석 등이 인조의 묘호를 의논하여 열조(烈祖)로 올렸다. 그런데 열조는 중국 남당(南唐)시대의 임금인 서지고(徐知誥)의 묘호이므로 쓸 수 없다는 이론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5월 23일에 조정에서 다시 의논하여 인조(仁祖)로 고쳤다. 이날의 실록을 보면, 윕교 심대부(沈大孚), 부수찬 유계(兪槩), 사간 조빈(趙斌) 등이 반대 상소를 올렸다. 반대 이유인 즉, 선조를 조로 부른 것도 이미 의롭지 아니한 것이니 “계승하는 임금은 백세에 빛나는 공덕이 있더라도 종이라 하지 조라 하지 아니합니다.” 중국의 한나라 문제. 당나라 태종. 진나라 원제. 송나라 고종도 모두 조로 부르지 못했지만, 그 공덕은 큰 것이었습니다. “종이 조보다 못한 것은 아니지만 조를 종 위에 두어 조종(祖宗)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왕에게 조의 호칭을 올리는 것은 근거가 없는 일이고 예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계승하는 임금은 백세에 빛나는 공덕이 있더라도 조로 할 수 없다는 것과 조가 종보다 높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면 “계승”이란

개념 속에 계체(繼體)와 입승(入承)이 모두 포함되는 것인지를 알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계체는 부자간의 계승으로 왕세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말하고, 입승은 왕위 계승권이 없는 자가 들어와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때, 인조는 후자에 속하므로 “입승왕조”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조”가 가능하단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창업지군칭조”라는 기준 하에서는 “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조의 경우에는 유공왕조(인조반정), 입승왕조(종계를 바꾼 사실)의 기준과 조가 종보다 높다는 것을 선호한 효종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묘호가 종묘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종묘에 봉안된 임금의 신주(神主)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녕전(永寧殿)으로 옮기게 되며, 이때 창업한 임금이나 공이 많고 덕이 높은 임금은 영원히 모셔지게 되는데 묘호에 조가 들어간 임금은 옮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왕(父王)의 묘호를 종보다는 조로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야겠다.

4) 영조(英祖) : 제 21대 임금, 1725 ~ 1776

영조는 숙종의 서자로 출생 하였으나, 경종이 후사가 없었으므로 경종의 세제(世弟)로 책봉 되었다가 왕위에 오른 임금으로 원래의 묘호는 영종(英宗)이었다. 그 후 113년이 지난 1889년(고종 26) 12월 5일에 영조로 고쳐 부르게 되었

다. 묘호를 고칠 당시의 논의 과정을 실록을 통해 알아보자.

〈조선왕조실록 고종 26년 11월 28일 2번째 기사〉

영종대왕의 묘호를 추후에 높이기 위하여 도감을 설치하여 행하도록 명이 있었습니다. 생각건대 영종대왕은 문장과 계책과 무공은 우뚝이 모든 임금 가운데 으뜸이고, 52년 동안 명하여 토벌하고 공로에 따라 관리들의 품질을 내려준 것은 역사책에 이루 다 쓸 수 없을 정도이므로 탄식하며 잊지 못하는 생각이 세월이 오래 될수록 더욱 간절합니다. 지금 다행히 대론(大論)이 일어나 성대한 전례를 거행하게 되었으니, 위로 성상의 효성이 빛나고 아래로 사람들의 여론에 참으로 부합합니다. (판중추부사 김홍집)

우리 영종대왕은 문덕으로 교화를 펴시고 무덕으로 난리를 평정하셨으니, 큰 공과 성대한 업적은 높고 위대하여 형용할 수 없으며 나라의 터전을 영구히 다져서 오늘날까지 아름다움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묘호를 추후에 높이는 것은 실로 모든 임금들의 변함없는 법이며 온 나라 사람들의 다 같은 바램인데, 조정의 의논이 하나로 합쳐져 성대한 예를 크게 거행하게 되니 따르고 계승하는 성상의 효성이 더욱 빛날 것이므로 찬송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판중추부사 김병시)

우리 영종대왕은 큰 공과 위대한 업적이 있는데도 공이 있는 임금은 “조”라고 칭하는 예를 아직 행하지 않았으니, 수 백 년

동안 겨를이 없어 행하지 못한 일이어서 공의(公議)가 억울해 합니다. 오늘 조정의 의논이 모두 같으니 떳떳한 의식을 거행하여 묘호를 추후에 높임으로써 성상의 효성이 더욱 빛나고 사람들의 여론이 모두 기뻐할 것이므로 기쁘고 다행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우의정 조병세)

우리 영고(英考)는 5기(50년) 동안 정치가 융성하였고 덕은 모든 임금 중에 으뜸이며 문장과 계책과 무공은 역사에 이루 다 쓸 수 없을 정도이므로 백대 후에도 탄식하며 잊지 못하는 생각이 오래 될수록 더욱 간절하다. 지금 경들의 의논을 들어보니, 묘호를 추후에 높이는 것이 여러 사람의 여론에도 참으로 부합하여 나 소자는 감동되어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다. 공이 있으면 “조”로 칭하는 것은 바로 변할 수 없는 법이니, 오늘 추후에 천양하는 것은 오히려 늦다고 하겠다. (고종 임금)

이 논의 과정을 보면, 조선왕조 후기에는 “유공왈조”라고 하는 묘호의 기준을 선호함으로써 종래의 “창업지군칭조 계승지군칭종”이라는 묘호의 기준은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고 하겠다. 앞에서도 언급 하였지만 공의 많고 적음의 판단에는 주관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기준”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功)을 감안하더라도 세종이나 성종에 비취 볼 때 영종을 굳이 영조로 고쳐야 할 명분은 없다고 할 것이다.

5) 정조(正祖) : 제 22대 임금, 1777 ~ 1800

영조의 아들은 효장세자(眞宗으로 추존)와 사도세자(莊祖로 추존)뿐인데 그나마 장자인 효장세자는 10세의 나이로 죽었고, 사도세자는 아버지인 영조의 손에 의해 죽었으므로 영조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조는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를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하고 세손(世孫)으로 삼아 대통을 승계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조는 효장세자의 입양자(入養子)자격으로 즉위한 임금이며, 묘호는 정종(正宗)이었다. 정종의 묘호가 정조로 바뀐 것은 좀 특별한 사례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훗날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고종이 황제에 오른 후 3년째인 1899년(광무3) 12월 7일에 정종을 정조로 고쳤다. 그 과정을 보면,

〈조선왕조실록 고종 36년 12월 3일 2번째 기사〉

짐은 부덕한 사람으로 천지와 조종의 도움을 받고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에 의하여 마침내 대위(大位)에 오른 지 이제 3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조상을 추존하는 의식을 이제껏 거행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더없이 중하고 공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삼가 역대의 전례(典禮)를 상고해 보건대 예조(藝祖)인 조상을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고 추존하는 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에 국한하는 것이 원래 공통된 규례이다. 인정으로는 미진한

점이 있지만 예절에는 한도가 있는 만큼 짐의 뜻이 크게 정해졌고 이미 제신(諸臣)에게 선유(宣諭)하였다. 태조대왕을 추존하고 하늘에 함께 제사지내는 의식과 장종대왕(사도세자), 정종대왕, 순조대왕, 익종왕(효명세자)을 추존하는 예식은 장례원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거행하게 하라.

고종은 철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순조의 큰아들인 효명세자(翼宗으로 추존)의 아들로 입적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익종은 아버지, 순조는 할아버지, 정종은 증조할아버지, 장종은 고조할아버지다. 고종은 최초의 황제로서 자신의 4대 조상을 황제로 추존하게 되는데 그중에 정조가 들어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나라를 창건한 임금의 4대 조상을 추존하며, 추존하는 임금의 묘호에는 모두 “조”를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정종도 당연히 정조가 된 것이며, 이때가 정조 사후 100년만의 일이다. 고종의 명령이 있는 4일 후인 12월 7일의 실록기사에, 태조는 태조 고향제, 장종은 장조 의향제, 정종은 정조 선향제, 순조는 순조 숙향제, 익종은 문조 익향제로 모두 묘호에 “조”를 붙여 추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 순조(純祖) : 제 23대 임금, 1800 ~ 1834

순조는 정조의 둘째 아들이다. 큰 아들인 문효세자가 일찍 죽었으므로 정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임금이다. 순

조의 묘호도 당초에는 순종(純宗)이었으나, 1857년(철종8) 8월 10일에 순조로 고쳤다. 당시 순조의 공렬(功烈)을 찬양하여 “조”로 일컬을 것을 청하는 지돈영(知敦寧) 이학수(李鶴秀)의 상소문(8,9)을 요약해 보면,

* 순조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재위기간 동안 백성을 사랑하였고 서학(西學)의 전래를 막았으며,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는 등의 공렬을 감안할 때 마땅히 “조”로 칭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면서 상소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논리를 폈다.

대대례(大戴禮)에 이르기를 “시호(諡號)란 것은 행동에 대한 실적(實跡)이다.”라고 하였고, 예기(禮記)에 이르기를 “그의 시호를 듣고서 그의 정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순고(純考)의 행적을 헤아려보고 순고의 정치를 상고해 보건대 “조”라 일컫는 것이 역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논하는 자들은 말하기를 “왕업을 창시한 임금을 조라 일컫고 계통을 이은 임금을 종이라 일컬었음은 고금의 떳떳한 법식이었습니다. 전한. 후한 4백여 년 동안에는 오직 고조와 세조뿐이었고, 송나라 3백여 년 동안에도 오직 태조 뿐이었으며, 송나라 고종의 묘호를 의정할 때에도 더욱 오래도록 곤란해 하였습니다. 명나라에는 오직 태조와 성조뿐이었고 우리나라에는 오직 태조. 세조. 선조. 인조대왕뿐이었으니 시호를 내리는 의전(儀典)에 대해서는 지극히 엄중하였습니다. 한나라의 문제, 당나라의 태종. 현종, 진나라 원제, 송나라 고종은 비록 백세토록 불천지묘(不遷之廟)는 되었으나 모두 조로 일컫지

는 못하였습니다.” 라고 하기에, 신도 역시 말하기를 “조는 공로(功勞)요 종은 덕화(德化)로서 두 가지가 모두 성대하고 아름다워서 조가 반드시 종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고 종이 반드시 조보다 깎이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당면한 시기에 의하여 그 칭호를 달리했을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세조 대왕과 인조대왕은 계통을 이은 임금으로 조라 일컬었으며, 선조대왕은 종계를 바르게 밝혔고 왜란을 평정하였기 때문에 조라고 일컬었으니, 이는 참으로 우리 선군(先君)들께서 이미 시행했던 전례이었고 우리나라의 예제에도 역시 마땅하였습니다.

이 상소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 임금으로서 “조”를 사용한 예를 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요지는 “조는 공로요 종은 덕화이며, 조종은 격(格)이 같은 것인데 시대에 따라 그 칭호를 달리 했다” 라고 하였다. 그가 말하는 묘호의 기준이 “유공왈조 유덕왈종”이라 한다면 달리 할 말이 없겠으나, 조와 종의 격이 같은 것이라면 왜 굳이 순종을 순조로 고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하겠다. 이 상소에 대하여 다음날(8.10)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정원용(鄭元容)이 순종의 묘호를 순조로 일컫는 절차를 청하였고, 철종이 묘호를 올리는데 대한 의식 절차는 도감을 설치하여 거행하라는 명령에 의해 순조가 된 것이다.

6. 조(祖)와 종(宗)의 기준에 대한 定義

가. 창업지군칭조(創業之君稱祖)

나라를 건국한 시조는 “조”라고 부른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다. 주로 태조(太祖) 또는 고조(高祖)라는 묘호를 사용 하였다.

나. 계체지군칭종(繼體之君稱宗)

적자(嫡子)로서 부자간의 계승한 임금은 “종”이라 부른다. 이 경우 입양자(入養子)의 부자간 계승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 유공왈조(有功曰祖)

공(功)이 많은 임금은 “조”로 부른다. 이 기준에 대해서는 이론이 많다. 창업의 공인지 수성(守成)의 공인지, 또 공의 많고 적음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따라서 조선왕조와 청나라의 임금들에게서 “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기준을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적용한 사례라 하겠다.

라. 유덕왈종(有德曰宗)

덕(德)이 높은 임금은 “종”으로 부른다. 이 기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기준이다. 임금이라 하더라도 덕이 모자라면 “종”도 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한나라 때 치세(治世)가 미흡했던 임금에게는 묘호를 올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준도 덕의 높고 낮음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입승왈조(入承曰祖)

왕위 계승권 밖에 있는 자가 들어와서 임금이면 “조”로 부른다. 이 경우 왕위 계승권 밖에 있었던 자라 하더라도 선왕의 입양자가 되어 계승한 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선왕조의 인조가 여기에 해당 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바. 계승왈종(繼承曰宗)

부자(父子:입양자포함), 형제(兄弟), 조손(祖孫), 숙질(叔姪)간 등의 계승은 “종”으로 부른다. 이 경우는 중국의 여러 왕조는 물론 우리나라의 고려와 조선왕조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왕위 계승이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는 포괄적 의미의 계승이라 하겠다.

7. 결 론

지금까지 왕조시대 임금들의 묘호에 관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기나긴 역사적 공간을 여행하였다. 그러면서 조종(祖宗)을 나누는 기준과, 종묘(宗廟)제도, 시호(諡號)제도, 연호(年號)제도, 그리고 종법(宗法)제도 등 묘호와 관련하여 많은 제도와 사례들을 보면서 역사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역사의 일부인 묘호에 관한 제도 역시 시대적 상황과 인물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묘호의 발생지

인 중국에서 보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 묘호제도는 한무제(漢武帝)때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한나라 묘호제도의 특징은, 첫째 나라를 창업한 임금인 “조”로 부르고, 계승한 임금은 “종”으로 부른다. 둘째 계승한 임금이라도 치세(治世)가 못 미치면 묘호를 올리지 않는다. 셋째 묘호제도가 있었으나 종래에 사용해오던 시호(謚號)를 사용했으므로 묘호는 임금의 호칭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묘호가 없는 임금이 많다는 것인데, 이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임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면 후세에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임금의 사후평가가 계승한 임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이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한나라에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묘호를 임금의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 된다.

○ 당나라 임금의 묘호는 건국 시조인 고조(高祖)외에 모두 “종”이라 했으므로 “창업지군칭조 계승지군칭종”의 기준이 잘 지켰다고 하겠다. 한나라의 경우 조종을 선별적으로 적용한데 반해 당나라는 모든 임금에게 조종의 묘호를 올렸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호제도가 작용을 하였다. 즉, 한나라 이전에는 임금의 시호가 한 두 글자였으나 당나라에

들어와 임금들의 시호가 급격하게 길어졌다. 따라서 시호를 부르기가 불편하였으므로 대신 묘호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모든 임금에게 묘호를 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묘호의 사용은 당나라로 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송나라와 원나라의 묘호제도는 당나라의 제도를 답습 하였으므로 변화가 없었다. 다만, 원나라 세조의 경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세조(쿠빌라이)는 몽골제국의 5대 황제이지만 원나라로서는 시조(始祖)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 명나라도 묘호에 조를 붙인 임금은 태조(홍무제)와 성조(영락제)뿐이며, 성조의 당초 묘호는 태종이었으나 사후 백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공왈조”라고 하는 예외적 기준을 적용하여 성조로 고쳤다. 그리고 명나라에서는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의 실시에 따라 묘호를 임금의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연호에 의한 호칭법이 보편화 되었는데 이러한 관행은 청나라까지 이어졌다. 청나라는 왕위계승에 있어 종래에 존중되어왔던 “종법제도”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묘호에 있어서도 “유공왈조”의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청나라가 이민족으로서 중국을 지배하게 되면서 명분보다는 실질을 숭상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는 종묘제도가 삼국시대부터 있었으나, 묘호 제도는 고려에 와서 정착되었다. 고려의 묘호제도는 당(唐),송(宋)의 영향을 받아서 태조(왕 건)이외에 “조”로 호칭된 임금이 없으며, 원나라의 지배하에 재위한 임금은 묘호가 없고 대신 시호를 사용하였다. 조선왕조에서는 “유공왈조 입승왈조”라고 하는 예외적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많았으므로 유난히 “조”를 사용한 임금이 많게 되었다. 이는 “조”가 “종”보다 격(格)이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묘호를 정할 때 조와 종을 나누는 기준에 있어서 조(祖)의 경우 “창업지군칭조”는 불변의 법도이고, “유공왈조 입승왈조”는 예외적 기준이며, 종(宗)의 경우 “계체지군칭종 계승왈종”은 일반적 기준이고, “유덕왈종”은 예외적 기준으로 정의 하면서 결론에 갈음 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주례(周禮), 예기(禮記), 사기(史記), 후한서(後漢書), 중국역대황실계보, 조선왕조실록, 경국대전, 역대왕실세계표, 춘관지, 주자가례, 의례문해, 고전용어사전, 위키백과사전, 두산동아백과사전, 시법의 시말에 대한 변증설, 조선의 왕실과 외척(박영규), 왕의 호칭(대한황실재건회), 시법(이만홍), 종묘의 신주와 산실(윤방언), 임금 이름 뒤의 조,종,군(이영춘),등

羅江 具 滋 淸

漢學者 / 傳統文化研究家

저서 『청백리 재상 · 충렬공 具致寬전기』

전통과 결혼 문화

- 전통혼례 보존에 관하여 -

박 광 운

광주향토문화연구소장

근대화와 함께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자리를 잃게 된 전통문화가 상당히 많다. 일부에서는 전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 나름 노력해왔지만 전반적으로는 편리를 추구하려는 생각 때문에, 또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선진인 것처럼 여겨져 우리 것들이 점차 도외시 당하는 가운데 설 자리를 잃어갔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전통혼례를 ‘구식결혼’이라 칭했던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우리 것을 얼마나 홀대했는지 알 수 있다. 뒤늦게 우리 전통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새롭게 인정하며 되찾으려는 노력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일반 대중의 생활양식은 이미 서구적인 패턴으로 바뀌어 전통보다 훨씬 더 실 생활화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독창적인 우리의 전통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은 꾸준히 전개되어 이제는 일반인들도 생활 속에서

전통을 살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 전통을 구경하고 색다른 느낌을 받듯이 우리가 도외시하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통은 그 민족만의 고유성을 지니기 때문에 매우 독창적이며, 때문에 그 나라의 긍지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전통을 보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따로 논할 여지가 없다.

우리 것의 아름다움을 찾아 생활화 할 때 우리의 전통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보존될 것이다.

전통 혼례, 그 현장을 찾아

지난 11월12일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 해공 신익희 선생의 생가에서 우리 전통혼례식이 있었다. 이 마을에 사는 임



종목 군과 최연희 양이 백년가약을 전통혼례로 맺기로 했는데 전통 혼례 순서에 의해 그대로 진행 되었다.

이날 행사는 광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가 주관하여 훌륭히 진행 되었는데, 온 마을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잊혔던 전통혼례식을 거행하게 되어 뜻 깊었다. 광주시장을 비롯한 관내의 기관장, 유지들이 함께하였고, 원근에서 많은 하객이 참석하여 신랑 신부의 행복한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 해 주었다. 이날 혼례식을 통해 옛 혼례 절차를 짚어본다.

혼례식의 첫 절차

신랑은 마을회관에서 사모관대(紗帽冠帶)를 한 차림으로 말을 타고 안부(雁夫)를 대동하여 풍물패의 길놀이를 앞세우며 식장인 해공 선생 생가로 향했다. 마당에 도착한 신랑은 말에서 내려 풍물패의 축하 한 마당을 구경하고 주인으로부터 영접을 받았다. 집사가 안내 하는 대로 화동을 앞세워 대문에 들어서는데, 모습이 의젓했다. 초례청(醺禮廳)은 예전의 모습을 재현하느라 신익희 선생 생가 안마당에 천막을 친 그 아래 차려졌다. 집례인 한낙교(韓洛敎) 현절사 도유사가 흥기를 창함에 따라 신랑은 대청에 차려놓은 전안상(奠雁床)을 향하여 들어 가 멧돌 앞에서 안부로부터 홍보에 싸가지고 온 기러기를 받아 머리가 왼쪽으로 가게 하여 공손히 안고 마루위로 올라섰다.



신부의 모친은 대청마루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전안상을 차려놓았는데, 홍보(紅褙)에 쓴 기러기 머리를 서쪽으로 향해놓았다. 신랑은 집례가 “치안우지(置雁于地)”라고 창홀(唱笏)하면 기러기를 소반 위 청보(靑褙)의 기러기 옆에 나란히 올려놓는다. 청보에 쓴 기러기는 신부를 상징하고 신랑이 가지고 간 기러기는 신랑을 상징한다. 신랑은 전안상(奠雁床)에 재배했다. 이때 신랑이 두 번째 절을 하고 일어나기 전에 신부의 모친은 얼른 전안상을 방 안으로 들고 들어간다.

전통혼례의 기러기의 의미

기러기를 가지고가서 상위에 올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기러기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고 기러기를 놓고 제성(帝星)·북극성(北極星)에게 혼인함을 서약하는 의례이다. 기러기는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영물로 여겨왔다. 즉 안정(雁情), 안서(雁序), 안적(雁跡)이라 하고 이를 기러기의 세 가지 덕이라하여 안삼덕(雁三德)이라 한다.

첫째, 기러기는 암수 짝을 지어 살다가 어느 한 쪽이 먼저 죽으면 다시는 새 짝을 찾지 않고 홀로 살다가 간다고 한다. 그래서 기러기는 백년해로(百年偕老)를 계시(啓示)한다.

둘째, 기러기는 질서가 있다. 늦가을에 왔다가 겨울을 지내고 이른 봄, 북녘으로 다시 날아간다. 인생도 태어났다가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가 영원한 저 세상으로 간다. 또 무리를 지어 날아갈 때 큰 기러기가 앞장서고 차례대로 작은 기러기가 따라 날아간다. 이것은 오륜(五倫)의 장유유서(長幼有序)에 비유되고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화목한가정을 이루라는 뜻으로도 비유된다.

셋째, 기러기는 흔적을 남긴다. 기러기가 앉았다가 떠날 때에는 반드시 앉은 자리에 발톱으로 땅을 파놓고 날아가며, 단단한 바위 위에 앉으면 깃털을 뽑아 바위틈에 남겨두고 날아간다. 인간도 기러기와 같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보람 된 삶을 살라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의 깊은 뜻이 담겨있다.

혼례 홀기

1. 교배례(交拜禮)

신랑은 대청에서 신부가 방에서 시모(侍母)의 부축을 받고 나오자 신부에게 허리를 굽혀 읍한다.

이어 초례청으로 내려온다. 신부도 시모의 부축을 받고 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신랑의 뒤를 따라 나와서 신랑은 동편에 신부는 서편에 서서 북쪽을 향한다. 다음은 손을 씻는 차례이다.

신랑은 남쪽에 놓여있는 대야에 손을 씻고 신부의 시모

가 건네주는 수건으로 닦는다. 신부는 북쪽에 놓여 있는 대
야에 손을 씻고 신랑 쪽 집사가 건네주는 수건으로 닦는다.
신랑과 신부는 마주보고 선다.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이
다. 집례가 “부선재배(婦先再拜)”라고 하면 신부가 시모의
부축을 받아 두 번 절한다. 다음 집례가 “서답일배(壻答一
拜)”하면 신랑이 한번 절한다. “부우재배(婦又再拜)”하면 신
부가 다시 두 번 절한다. 서우답일배(壻又答一拜)하면 신랑
이 다시 한 번 절한다.

위의 교배례는 부부가 되기 위한 정중한 예절로 서로 존
중하는 의미의 절을 한 것인데, 신부가 두 번 절하고 신랑
이 한번 절하는 것은 음양의 이치에서 비롯된다. 즉 남자는
양이니까 한번이고, 여자는 음이므로 두 번 절하는 것이다.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다. 예전에는 여자가 네 번, 남
자가 두 번 하였으나 근래에는 줄여서 하는 것이다.

2. 서천지례(誓天地禮)

신랑과 신부가 음양의 기본적 상징으로 하늘과 땅에 행
복한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하는 절차이다. 신랑과 신부는 서
로 읊한 후에 초례청으로 들어서는데,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깔아놓은 방석 위에 앉는다. 신랑과 신부의 좌 집사
는 각 각 술잔을 신랑 신부에게 주고, 각 우 집사는 술잔에
술을 따른다. 신랑과 신부는 술잔을 눈 밑에 까지 들어 올
려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겠다고 하늘에 맹서하고, 각각 술

잔을 내려 땅에 술을 부으면서 다시 한 번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맹서한다. 그리고 술잔을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잔을 받아 소반위에 놓는다. 신랑과 신부는 각기 직접 안주를 빈 그릇에 담아 놓는다.

3. 서배우지례(誓配偶之禮)

이는 서로가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하는 절차이다.

신랑의 우 집사는 소나무에 걸쳐 있는 홍실을 왼손에 검어 쥔다. 신부의 우 집사는 대나무에 걸쳐있는 청실을 오른손에 검어 쥔다. 신랑 신부의 좌 집사는 술잔을 신랑 신부에게 준다. 신랑 신부의 우 집사는 술잔에 술을 따르고 신랑 신부에게 준다. 신랑과 신부는 술잔을 가슴 위까지 들어 올리고 착한 아내와 훌륭한 남편이 되겠다고 서약 한 다음 술을 반잔만 마신다. 나머지 반잔을 좌 집사에게 주면, 신랑의 좌 집사는 신부에게 가지고 가서 준다. 신부의 좌 집



사는 신부의 남은 반잔을 신랑에게 가지고 가서 준다. 신랑과 신부는 각각 술잔을 가슴높이로 올려 서약하고 잔에 남은 술을 모두 마신다. 빈 잔을 집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소반 위에 놓는다.

4. 근배례(斟杯禮)

둘로 나눈 표주박 잔에 신랑 신부가 술을 따라 마시는 의례인데,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는 뜻이다. 표주박이 쪼개지면 이 세상에 그 짝은 하나밖에 없어 서로 온전한 짝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랑 신부의 좌 집사가 초례상 위에 놓여있는 표주박을 한쪽씩 가지고 가서 신랑 신부에게 준다. 각 우 집사는 표주박에 술을 따른다. 신랑과 신부는 표주박 잔을 들어 올렸다가 술을 전부 마신다. 신랑과 신부는 빈 표주박 잔을 집사에게 주면, 집사는 신부의 표주박 잔을 초례상 원 위치에 얹어 놓는다. 신랑의 집사는 신랑의 표주박 잔을 신부의 표주박 잔 위에 얹어 놓는다. 신랑과 신부의 우 집사는 손목에 검어 쥐었던 홍실과 청실을 각 각 원래 위치로 가지고 가서 소나무와 대나무에 걸쳐 놓는다. 신랑과 신부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 마주보고 신랑이 먼저 읊하면, 신부가 허리를 굽혀 답례한다. 이상으로 혼례식 절차는 모두 끝이 난다.

이날 혼례는 신랑 신부가 내빈에게 큰 절로 인사하는 것

으로 마무리 됐다. 이어서 “혼인은 만복의 근원이요, 인류 지 대사이니 두 사람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바라며, 특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아버지이신 해공 신익희 선생이 태어나신 생가에서 혼례를 올렸으니 영명한 자손을 많이 두라”라고 집례가 덕담을 했다. 뒤 이어 조억동 시장과 정진섭 국회의원, 그리고 남재호 문화원장의 덕담이 있었다.

광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날 전통혼례는 옛 절차를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결혼 당사자는 물론,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축하하고 수고해준 마을 주민들 모두에게 뜻 깊은 자리가 되었을 것이다. 마을 회관 마당에서 치러지는 피로연도 우리 옛사람들이 품어왔던 잔치다운 잔치를 보는 것 같아 훨씬 정겨웠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짧은 시간에 똑 같은 형식으로 치러지는 결혼식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딱히 별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결혼식이었다. 이 날 전통혼례를 올린 당사자들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뜻 깊고 색다른 의미와 추억을 간직했을 것이다. 이 날 집례 일체를 도운 유림회원들도 보람을 느낀 하루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앞으로 광주문화원에서는 이 같은 전통혼례를 권장하고 문화프로젝트로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지역 유림단체와 함께 실 생활화 하기위해 노력하다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문

화가 빛을 발휘하리라 본다.

〈초례상(醺禮床) 진설에 대한 의미〉

닭 = 장닭과 암탉을 각 각 홍보와 정보에 써서 놓는데, 닭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놓는다.

계오덕(鷄五德)이라 하여 수탉은 문(文), 무(武), 용(勇), 인(仁), 신(信)을 상징한다.

문(文) - 닭의 벼슬은 문관의 벼슬을 상징하며

무(武) - 닭발에 난 머느리발톱이 용을 상징하고

용(勇) - 싸울 때는 용감하게 싸워서

인(仁) - 먹이를 보면 서로 불러 함께 먹어서 인을 상징하고

신(信) - 밤새워 날이 밝을 때 시각을 알려 주는 믿음.

암탉을 신부 쪽에 놓는 것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

소나무와 대나무 = 절개를 의미한다.

홍실과 청실 = 남자는 청, 여자는 홍이다.

쌀 = 식복(食福)을 의미하고 장수를 의미한다.

대추 = 아침을 의미하며 아침은 만물의 소생을 재촉한다.

밤 = 효성을 상징한다. 팔 = 잡귀를 쫓는다는 뜻이 있다.

신부의 연지 곤지 = 붉은 주사로 찍는 것인데,

액을 막는다는 의미이다.

신랑의 관복 = 조선 숙종 때부터 당상관의 관복을 서민들의

자제도 혼례복으로 입도록 허락 하였다.

신부의 활옷 = 궁중 여인들의 예복이다.

조상에 대한 숭고한 예절, 제례(祭禮)

허정분

시인, 본지 편집인

인류가 삶이라는 공동체를 영위하면서부터 생활이 자연 재해에 의한 피해로 황폐화 되는 것과 죽음으로 종족이 단절되는 경우를 가장 두려워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도 인간의 소망처럼 평화로운 시절은 영원하지 않았기에 조상은 물론 모든 자연물에 신앙적 감사함을 나타내는 의식을 치르는 걸 당연시 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지닌 정령이 자신과 가정을 지켜준다고 믿었고, 그 의식은 제례(祭禮)형태로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제례의 기원

제사를 지내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먼 옛날 사람이 원시적인 생활을 할 때 천재지변이나 또는 사나운 맹수 등의 공격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늘과 땅, 바다, 강, 거목(巨木), 높은 산, 조상 등에게 절차를 갖

추어서 빌었던 것이니 이것이 즉 제사가 발생한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연변화나 또는 질병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한 행위로 전해 온 제사는 특정한 목적이외에 차츰 유교적인 조상숭배 제도로 변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자연신에 대한 제사가 자신의 조상에 대한 제사 의례로 발전하였으며 일반 민중보다 왕가에서 먼저 행해졌다.

제사의 유래는 신명을 받들어 복을 비는 의례라고 한다. ‘제祭’자는 상형문자로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犧牲)을 손으로 받드는 의미이고 금문에 의하면 땅귀신 ‘기示’자를 덧붙여서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회의문자로 풀이한다.(광주시사 3권 조상에게 복을 비는 제사의례 참조) 제사에 대해 조상은 자신의 근본이므로 선조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사는 국가에서 지내는 국가제례(종묘대제, 선농제, 국민장, 국장,)와 지역에서 지내는 선인이나 위인들에 대한 각종묘제 제사 개인이 지내는 조상신에 대한 유교식제사가 있다.

제례의 종류

제례는 상례(喪禮)와 마찬가지로 그 의식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옛날부터 유학자나 예문가 사이에서 갑론을박의 논쟁이 많았을 정도였다. 16세기 중엽부터 성리



학이 심화 되면서 양반 사대부 사회에서 "주자가례"가 정착
하게 되고 주자가례에서 명시된 4대조까지 제사를 지내는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면서 조상에 대한 존경과 추
모의 표시로 행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내는 제사의 종류에는 상(喪)중에
지내는 우제, 소상, 대상 등이 있으나 지금은 거의 49제와
대상(大喪)으로 간소화되는 경향이다. 그리고 각 계절에
(2,5,8,11월) 조상께 지내는 사시제와 기제사, 불천위제, 묘
제, 명절차례가 있다.

동방예의지국이란 선비의 나라로 알려진 우리나라는 근
대까지만 해도 단일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던 민족이었다.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구촌이라는 교류로 국제결혼이
더 이상 화제 거리가 아닌 함께 삶을 영위하는 동반자로 자
리 잡은 지 오래다.

다문화 가족이 결코 우리와 다르지 않은 한 가족이며 그
후세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우리의 후손임을 누구도 부인하

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고유한 제례 의식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지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례의식은 어떤지 경험과 의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상을 대상으로 하는 제례에는 가정의례준칙이 정해지기 이전에는 4대 봉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시행했다. 지금도 조상에 대한 보은이 명문화 되어있는 집안에서는 고조(高祖), 증조(曾祖), 조부모, 부모까지 기일에 제사를 모시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다. 그 외의 윗대조상은 특별히 날을 정해 제사를 모시기도 하고 시향 답을 장만해 후손들이 시월이나 한식날 제례를 올리기도 한다.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나라에 특별히 공을 세운 공신이나 충신에게 불천지위의 명예를 하사하고 그 후손들이 기일 날 제사를 모시도록 전답을 내렸다. 그럼 그 외의 조상들은 어떻게 제사를 모실까? 지금은 각 문중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문중에서는 음력 시월에 날을 정해 시제(時祭)로 모셨다. 그러기 위해 비용을 충당하는 위토(位土)를 선대별로 장만해서 그 후손이나 소작인들이 제사를 지냈다.

그 예를 열미리 능성구씨(綾城具氏)문중의 시제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촌읍 열미리 능성구씨 종중을 통해 본 제례

열미리는 이 마을에 입향 한 세거조인 구치관(具致寬 1406~1470)충렬공의 음덕으로 문중이 번성한 마을이다. 청

백리 재상으로 알려진 충렬공은 4대 임금을 섬긴 충신으로 벼슬이 영의정까지 올랐음에도 별세 후에는 장례를 치를 비용조차 없을 정도로 가난 했다. 사후에 청백리로 선정되고 부모님을 모신 열미리를 하사 받아 후손들이 번성한 마을이다. 매년 한식제사와 시월에 올리는 시향사와 불천위로 모시는 기제사를 받드는데 묘제로 올리는 시향 사는 음력 10월2일 날로 정해져 있다.

구씨문중의 시조인 구존유(具存裕)로부터 9대손인 충렬공은 원주민들이 대부분 구씨 문중인 이 마을에선 가장 높은 어른이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묘소는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린 배산임수형의 산세다. 일설에 따르면 세종대왕의 능으로 정해졌다가 세종임금이 승하하신 후에 여주로 가시는 바람에 공주목사(公州牧師)를 역임한 충렬공



부모님의 묘소를 썼다고 한다. 그런 연고로 아직도 주민들은 충렬공 직계일가가 모셔진 산소부근을 능안으로 부르고 주변을 신성시 한다. 또한 몇 해 전부터 문중에서 산 주변을 정리하고 성역화 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구씨문중이라도 그 부근에 묘소를 쓸 수가 없도록 정해 놓았다.

묘소 입구에는 광주관내에서도 가장 오래 되었다는 충렬공의 신도비가 서 있고 그 비문은 당대의 명문장가 서거정이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세월의 비바람에 글씨는 마모되고 바위 꽃이 번성한 비석은 고색창연한 옛 유물이 되었고 입구에 후손들이 다시 세운 신도비가 서있다. 문인석 무인석이며 장명등 동자석이 서 있는 큰 봉분 앞에 서면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되는 숭고함은 이 마을이 오랜 문중의 역사를 지켜온 후손들의 뿌리이며 조상인 것을 일깨운다.

그 산소에 수 십 명의 문중 후손들이 엮드려 절을 올리는 제사가 한식제사와 시제 제사다. 불천위 제사는 내외분의 기일 날 사당에서 지낸다. 충렬공의 직계종손인 구교운(65)씨 댁은 이 마을은 물론 도원수 구성로(고려말 무신 강원도 도원수)공파의 종손으로 매년 불천위 기제사에도 문중어른들이 수 십 명씩 참여하기에 충렬공 사당과 제사를 모시는 충렬묘 제각이 별도로 있다. 기제사와 달리 한식과 시제 때는 필히 제수를 장만해 산소에 차려놓고 제사를 모신다.

제례의 절차와 음식



충렬공의 제사를 모시는 기록을 종손의 조부가 1890년대에 『추원록(追遠錄)』으로 기록하여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내용은 서문, 선조의 묘사일, 묘소 위치도를 비롯하여 위토내역, 홀기, 각 제사에 따른 축문, 묘제진설도 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지금까지 전승해오는 한 문중의 제사방식을 고스란히 살펴 볼 수가 있다. 『추원록』의 기록과 큰 차이는 없으나 2010년 가을 시제에는 배, 사과, 감, 대추, 밤, 등의 과일과 웃기떡을 고인 편, 계적, 육적, 어적, 소적, 식혜, 수란, 밀쌈, 육회, 생, 숙 좌반, 문어포, 대구포, 육포, 등과 삼색나물, 전, 누르미, 면, 생청과 어탕, 육탕, 소탕, 계탕, 메, 제주 등의 음식을 준비했다.

제사 음식을 차리는 것을 예전에는 고임새 잘하는 사람들이 시제 차리는 집으로 불러 다니며 떡 과일 등을 고였다. 생물을 치려면 기술적인 손놀림이 필요해서 크고 좋은 밤

을 준비해서 겹겹질과 속겹질을 벗기고 고이기 좋게 깎아
내야 했다. 문어포 역시 크고 튼실한 문어발로 예쁜 꽃처럼
오려내야 했기에 특별히 샀을 주고 불러다 쓰기도 했다. 두
부는 물론 술밥을 찌서 누룩과 잘 섞어 맑은 제주를 빚어
쪄으며 큰 질 시루에 편을 얹혀 불을 때서 찌내는 등 시제
를 차리기 위해 며칠을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허다했다.

충렬공의 시제는 이 마을에서 시향 전담으로 농사를 짓
는 후손집이거나 또는 그 아래 소작인들이 주로 차리고 종
손과 그 후손들이 제례하는 제사였다. 근래까지도 묘막이
라고 불리는 소작인의 집이 있어서 충렬공 위토를 농사짓
고 시제를 차렸다. 묘막은 문중에서 지어준 집으로 소작인
이 기거하면서 봄가을 향사 때 제사를 차려야 했다. 지금처
럼 교통편이 발달하지 않은 예전에는 멀리서 제사에 참례
하러 오는 문중 사람들이 자야 했기에 넓은 사랑방과 이브
자리까지 갖춰져 있다. 그러나 그 소작인이 다른 마을로 이
사를 가면서 올해 사당 옆에 새 건물을 짓고 문중 아낙들이
모여 음식을 장만하고 제사를 차렸다.

햇곡식을 신에게 드리기 가장 좋은 달이라는 시월 상 달,
하늘은 맑고 갓 수확한 곡식으로 준비한 음식으로 큰 조상
님께 올리는 시향제례는 마을에 뿌리내린 집성촌 문중의
가장 큰 행사다. 이 마을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사는 능성
구씨 들이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찾아오는 날이기도
하다. 지금처럼 음식이 흔치않았던 예전에는 시제 날이면

어린이까지 시제를 모시는 산소로 물려가곤 했다. 제사를 지낸 후에 어린이들까지 일정한 양의 봉송을 받아 올 수 있었으므로 모두 기다리던 제사이기도 했다.

시제 날이 가까우면 미리부터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이 정해지고 몸과 마음을 정하게 한 제관들이 묘소 주변을 정갈하게 치우고 축문을 쓰고 향을 깎아 놓는 등의 모든 절차를 점검한다. 아낙들은 사당청소와 대대로 전해오는 제기 그릇인 놋그릇을 깨끗이 닦아 놓는다. 요즘은 떡은 전부 방앗간에서 맞춰오는데 김치 나물 등은 미리 준비해야 된다. 모든 제사음식에는 자극이 강한 양념류는 쓰지 않는다. 그러나 충렬공의 시제사에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문중 아낙 여럿이 함께 제사음식을 만들고 대접한다.

가을 시제는 조상뿐만 아니라 그 묘소를 수호하는 산신령에게도 제례를 올리는데 다만 메와 나물, 탕 등은 쓰지 않고 과일, 제주, 포와 떡을 진설하고 묘소보다 먼저 지낸다. 모든 음식을 진설한 상석아래 수 십 명의 후손이 모여 절을 올리고 음덕을 기리는 축문을 대축이 낭독하며 모든 참례자의 재배를 끝으로 마무리한다. 올해 충렬공의 시제 날은 일요일이어서 각지에서 60여 분의 후손이 참배했다.

조상신께 드리는 제사는 정성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가정이라는 개인의 뿌리가 건재하는 한 지켜야 할 전통이다.

조상 대대로 뿌리내린 우리 고유한 미풍양속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도 농경사회를 중심으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요즘 농촌의 현실은 새로운 문화의 시험무대 같다. 다문화 가정이 늘어날수록 옛 풍습은 퇴보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농촌마을의 집성촌 문중이 건재한 마을에서는 시제를 차리는 아름다운 전통이 재현된다는 사실이다.

열미리 마을의 구씨문중 그 뿌리의 깊음이 600여 년을 헤아려서일까 70호 정도 되는 같은 성씨 문중에서 가을시제만도 15회 정도 지낸다. 조상이 같은 친척이면 한날 제사상차림을 다시 고임새하면서 몇 번까지 지내는데 그 횟수까지 합하면 수많은 조상어른들이 제사로 추모 받는 마을이다.

개인마다 종교가 다양해지면서 조상에 대한 제사까지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배격하는 시대다. 심지어 한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종교적 충돌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제사음식은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다. 그러나 대대로 전통을 지킨 규범은 아름다운 유산이다. 지켜내야 할 도리와 예의가 인갑답게 살아가는 명분이다.

우리의 것, 우리의 유산을 전통으로 명문화하고 조상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모습은 먼 후세까지 물려주어야 할 과제다. 우리의 존재인 뿌리에 대한 제례, 조상님은 후손들의 정성을 흠향하는 정신의 지주이시다.

잊혀 가는 전통 예절의 전도사 - 광주 유도회

홍민자

광주시문화관광해설사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전통을 살리고, 무너지가는 예절을 올곧게 지키려는 단체들은 꾸준히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성균관 유도회 광주지부가 그렇다. 성균관 유도회 하면 언뜻 들으면 운동 종목을 연상하게도 하는데 조선시대 예의 근본을 새운 곳이다. 성균관은 공자의 사상을 이어 받아 사람이 지켜야 할 삼강오륜(삼강 :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으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오륜 :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봉우유신으로 삼강과 더불어 기본 윤리 강조)에 근거하여 지금의 명륜동에 건물을 짓고 고려 시대 제도대로 유학을 강의 하던 곳으로 명륜당과 공자를 모신 문묘를 두고 유생이 거주하는 재를 두었던 곳이다.

태종 때는 땅과 노비를 하사하고 어장과 많은 땅이 부속

되기도 했었다.

후에 향관청과 존경각이 증설되고 현종 때는 과거를 보던 비천당과 숙종 때 계성당을 두기도 했다.

광주 유도회 활동

정충묘 제향

성균관에 근거를 둔 광주유도회는 매월 월례회의를 하여 일 년 동안의 계획을 세운다.

먼저 정충묘(초월읍 쌍령리 국도변) 제례 봉행으로 한 해의 일을 시작한다. 정충묘 제향은 먼 옛날 아주 추운 1637년 음력1월 3일, 병자호란 당시 20,000여명의 경상도 지역 병사들이 민영, 선세강, 허완, 이의배 등 네 명의 장군과 함께 인조 임금이 계신 남한산성으로 오던 중 쌍령리에서 적을 만나 싸우다 전원이 장렬히 전사했기 때문에 그 뜻



▲정충묘 제향

을 기리기 위해 매년 그날에 제를 올려 혼을 달래는 제향이다. 실지로 날씨가 음산한 밤이면 애 끓는 울음소리가 나기도 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역대 임금 중, 많은 임금이 여주 능을 오고 가던 길에 정충묘에 들러 제를 지내오다가 고종 때에 서원철폐령이 내려지면서 못 지내게 되자 동리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제례 경비를 걷어 봉행했다. 현재는 광주 문화원과 유도회에서 주도하여 제를 지내고 있다. 그러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절이 너무 비좁아 많은 유림이 참석할 수가 없어 좀 넓은 장소를 확보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정공 정뇌경선생 추모제향

다음으로 충정제가 있는데 충정공 윤계 정뇌경선생의 사당에서 올리는 제향이다. 병자호란 당시 소현세자와 대군 등 많은 인질들이 끌려 갈 때 자청해서 세자시강원 문학으로 청나라로 들어가 끝내 순국한 충신이다. 나라를 생각하는 일편단심으로 정명수를 제거하려다 실패해서 돌아가시자 지금의 장지리 새능에 모신 뒤 충정사를 짓고 불천위(조상은 4대 봉사로 끝내지만 사당에서 영원히 위패를 내리지 않음)로 제를 봉행하게 되었다.

이 분의 말씀 중에 정언 정행(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이 있다.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충은 효에서 비롯된다고 하니 충정공 정뇌경선생의 인물됨이 짐작이 가

고도 남는다.

석전대제

또 석전대제도 주관 하는데 하남에 있는 광주향교에서 춘추로 공자의 사당에 제를 올리는 제향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효를 심어주기 위한 일환으로 효자효부를 찾아내 표창을 하며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교양강좌를 하기도 한다.

승렬전 제향

삼국시대부터 광주의 중심축(읍치1626~1917까지291년간)이었던 남한산성에는 백제의 시조 온조를 모신 승렬전 사당이 있다. 그 사당에서도 제향을 올리는데 유도회가 주관한다. 조선시대에는 조정 예조에서 춘추로 제물을 보내 왔지만 지금은(음력 9.5일) 광주시장을 초헌관으로 인근 유림들이 모여 제를 지내며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에는 잊히는 전통을 전하기 위해 입구에서 사당에 오르는 입보방법, 절(4배)하는 방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금년 제향에는 박광운(향토문화연구소) 소장님의 안내로 필자도 같이 참여했다. 해설을 곁들인 승렬전 전통예절에 한번 씩 참여해 보기를 권한다.

현절사 제향

또 닷새 뒤에는 현절사에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가 돌아가신 삼학사(홍익한, 윤집, 오달재)와 척화파의 거



▲현절사 제향

두 김상헌 정운선생에게 제를 지내는데 두 사당에서는 초하루 보름으로 분향례를 하고 있다.

최항선생 추모제향

10월9일 한글날에는 도마리에 소재한 세종 때 훈민정음을 해례하신 태허정 최항의 묘에서도 제를 봉행한다.

전통혼례 집례

올 11월에는 문화원과 함께 초월읍 서하리에 있는 해공신익희 생가에서 잊혀져가는 전통혼례를 주관했다.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 이라고 한다.

글로벌 시대에 흔히 옛 것을 꽤패한 냄새가 나고 구태의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날 훌륭한 선인들

의 발자국이 없이 과연 오늘이 있었을까?

광주유도회는 제향 뿐 아니라 옛 전통과 풍습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 모두가 속도를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소중히 알고 지키려는 유도회의 활동은 전통보존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그 몫을 감당해내리라 생각된다. 느리게 사는 아름다움을 아는 이 단체의 활동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광주유도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빈다.

廣州市광주시 장지동의 지명과 줄다리기 풍습에 대한 管見관견

朴光敏

韓國語文教育研究會 研究委員

I. 牆枝洞의 地名에 관하여

무릇 事物사물의 名稱명칭이 생겨나는 데는 모두 그만한 까닭이 있다. 地名 또한 그러하다. 대체로 지명은 그곳에서 태어난 영웅의 逸話일화나 事件사건, 地形지형과 山勢산세, 地勢지세, 水脈수맥 등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京畿道경기도 廣州市광주시 牆枝洞장지동 ‘앞가지’와 ‘뒷가지’의 지명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온다.

“突馬돌마에서 나온 龍馬용마가 목이 마른 채 갈마치를 넘어와 ‘가지울’에서 가지를 등에 얹고 달려오다가 ‘중말’에서 죽을 먹고, 앞가지에 와서 앞가지를 벗어버리고, 뒷가지에 와서는 뒷가지를 벗어버린 후 慶安川경안천에서 물을 마시고 물 건너편에 누웠다.”

그래서 ‘백마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說話설화가 아니고 각 지명을 부르는 음에 따라 附會부회한 이야기일 뿐이다. 아마도 위의 이야기는 백마산이라는 지명이 먼저 생겨난 후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한다.

우리나라에는 곳곳에 龍馬용마의 전설이 여러 형태로 전해온다. 그 중 하나인 '아기장수' 說話설화에는 반드시 아기장수를 태운 神馬신마가 함께 등장한다. 그런데 위의 말 이야기는 말의 주인인 아기장수나 英雄영웅의 탄생 설화가 빠져 있어 설화나 신화의 구성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

위 이야기에서는 '갈마치'의 '갈'을 '渴-목마를 갈'로 보아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나 18세기에 만들어진 廣州郡광주군 지도에는 '葛馬峙갈마치'라고 '葛-좁 갈'字를 썼다. 말에 빚댄 이야기는 아마도 옛 廣州郡內광주군내에 있던 突馬面돌마면·葛馬峙갈마치·가지울·중말·앞가지·뒷가지·白馬山백마산 등의 지명을 연결하여 지어낸 이야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葛-좁'은 넝쿨식물을 뜻하는 名詞명사지만 '크다'는 뜻으로 쓰이는 形容詞형용사이기도 하다. 우리 한국 소 중에 '좁소 [얼룩소]'가 있고, 호랑이도 '좁범[갈범]'이라고도 함'이 있다. '좁소'는 함경도 지방에서 나는 소인데 보통 소보다 몸집이 훨씬 크고 몸에 얼룩얼룩한 무늬가 있다. '얼룩송아지'라는 동요 속의 노래말도 바로 이 좁소 송아지를 지칭한 것이다. '좁범'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랑이'를 지칭하는 말로서 무늬가 얼룩얼룩하고 표범이나 삵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범

과 구분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범·츄범’은 고유어요, ‘호랑이’는 ‘虎狼호랑이’로서 漢字語한자어¹⁾다.

‘馬마’ 또한 ‘크다’는 뜻으로 덧붙여진 形容詞형용사다. ‘마’나 ‘말’은 ‘말거머리’ ‘말잡자리’ ‘말벌’ 등에서 ‘말[馬]’이 ‘크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廣州市광주시 退村면 퇴촌면 道馬里도마리의 道馬峙도마치, 광주시와 利川市이천시의 境界경계에 있는 ‘馬峙마치²⁾’와 慶北경북 永川영천의 ‘驛馬峙역마치’ 등 곳곳에 있는 ‘馬峙마치’라는 명칭도 갈마치의 ‘마’와 같이 ‘크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장지리의 지명 유래 중 “앞가지와 뒷가지를 넘나드는 고개에 있던 큰 나무의 가지가 앞뒤로 뻗어서 ‘앞가지·뒷가지’라고 했다.”는 說설 또한 예로부터 전해오는 ‘앞가지·뒷가지’라는 지명에 나뭇가지를 끌어붙여 지어낸 이야기로 본다. 나뭇가지는 앞·뒤·좌·우로 뻗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니 지명이 단순히 나뭇가지 뻗은 방향에 따라 정해질 수는 없는 것이다.

앞가지와 뒷가지의 地形지형을 살펴보면 마을을 감싸안은 山形산형이 활개처럼 생겨서 마소의 등에 엮는 길마의 앞가

1) 虎狼: 『吳越春秋』(趙曄 纂, 朴光敏 譯, 2004년 景仁文化) 句踐入臣外傳. ‘臣聞內懷虎狼之心, 外執美詞之說, 但爲外情, 以存其身-(오자서의 말)신은 듣기를 속으로는 (상대를 잡아먹을)호랑이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듣기 좋은 말을 꾸미니 그 겉에 나타난 모습은 단지 자기 몸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P.314

2) 『韓國의 古地圖』(李燦 엮음, 1997. .5 20. 汎友社) p.280

지·뒷가지와 비슷하다. 지금은 장지4동이 된 ‘담안’의 한자 표기가 ‘牆內장내’이니 산이 담장처럼 둘러싼 지형에서 ‘牆장’을 취하고, 마찬가지로 ‘앞가지’와 ‘뒷가지’를 표기한 ‘前枝전지’와 ‘後枝후지’에서 ‘枝지’를 취해 ‘牆枝洞장지동’으로 표기하는 것도 산이 담처럼 마을을 둘러싼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牆枝洞’에서 ‘枝’는 앞가지와 뒷가지의 ‘지’와 같은데 나뭇가지를 지칭하는 ‘가지’와 같다. ‘가지’의 ‘지’가 漢字한자에서 온 ‘枝’인가 고유어인가는 ‘가지’의 語源어원에서 따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혹 ‘장지동’을 ‘長枝洞’이라 썼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문헌에서는 ‘牆枝洞’만 확인할 수 있다.³⁾ 이와 같은 이유에서 앞가지와 뒷가지의 地名지명은 앞가지와 뒷가지를 감싸 안은 뒷산의 地形지형이 마치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처럼 생겨서 붙여진 것으로 본다.

Ⅱ. 장지동의 줄다리기에 관하여

장지동에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정월 대보름 풍속으로 줄다리기와 山神祭산신제 행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줄다리기는 ‘牽鉤견구’ 또는 ‘拔河발하’라고도 하는데 春秋時代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3) 『地方行政區域要覽』(1996. 7. 內務部) p.621

“二郡又有牽鉤之戲 云從講武所出 楚將伐吳以爲教戰 流遷不改習以相傳 鉤初發動皆有鼓節 羣譟歌謠振驚遠近 俗云以此厭勝用致豐穰

두 郡군에 牽鉤견구 놀이가 있는데 이르기를 武事무사에서 나온 바라 한다. 楚초나라 장수가 吳오나라를 정벌할 때 이로써 군사를 敎練교련했는데 시대가 흘러도 習俗습속을 고치지 않고 서로 전해왔다. 처음에 鉤구고리를 풀면 모두 함께 북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데 그 함성은 遠近원근이 놀랄 만큼 사방에 떨쳤다. 민간에 이르기를 이로써 厭勝염승(크게 呪文주문을 외워 여러 邪氣사기를 鎮壓진압)하는 것하여 풍년을 기원하는데 썼다”고 하였다.⁴⁾

우리나라에도 新羅신라나 百濟백제 시대에 줄다리기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⁵⁾ 中國중국과 日本일본을 비롯하여 버를 재배하는 東南亞동남아 여러 나라에도 줄다리기 風俗풍습이 전해 온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중국의 기록에는 “대[竹]껍질인 篾纜멸랍⁶⁾을 재료로 줄을 꼬았는데 후에 민간에서는 麻마로 꼬아서 쓴다.”고 하였다. 벗짚으로 줄을 꼬는 우리와는 사뭇 다르다.

4) 『二十四史』(1998, 1, 中國 中華書局-『隋書』「地理志下」) P.230

5) 金宅圭 『韓國農耕歲時의 研究』(1991, 8, 영남대학교 출판부) p. 236.

6) 篾纜멸랍 : 대껍질로 꼰 닻줄.

줄을 당기는 방법도 우리와 일본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는 平地평지에서 참나무로 고를 지른 암줄과 수줄을 東西동서로 마주보고 줄을 당기지만 일본의 풍속은 물속에 들어가서 줄을 당긴다.

줄다리기의 呪術의 주술적 의미는 대개 男女남녀의 性的성적 交合교합을 상징하며 多産다산을 기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983년에 慶北경북 淸道郡청도군 '華陽화양 줄당기기'의 줄 만드는 방법을 기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 마을에서 분담된 몇 개씩의 줄을 꼬아서 수합한다. 마을에서 꼬는 가장 기초가 되는 줄을 ‘줄까치’라고 하며, 줄 꼬는 일을 ‘줄 다린다.’고 한다. 수합된 ‘줄까치’를 나란히 깔아 놓고 새끼로 촘촘히 엮은 다음 줄 길이의 중심부를 말뚝으로 고정시켜 명석 말뚝이 말아 양쪽에서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틀면 줄이 꼬이게 된다. 꼬여진 줄을 절반으로 접으면 접힌 부분이 타원형의 고리가 되니 이것을 ‘줄목’이라고 한다. 줄목의 크기는 암줄이 큰 반면에 수줄은 보다 작다. 이것은 ‘줄목’을 걸 때 수줄의 ‘줄목’이 암줄의 ‘줄목’에 쉽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⁷⁾

* 띄어쓰기나 표기법은 原文원문대로 씀.

줄을 꼬는 재료, 줄의 형태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줄다리기 풍속이 반드시 중국에서 傳來전래된 것이냐 하는 문제는 速斷속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의 引用文인용문

7) 李長燮〈村落社會의 줄당기기 研究〉1983. 嶺南大大學院 碩士論文

에도 보이듯 중국은 軍士군사 훈련의 목적에서 줄다리기를 한데 비해 우리의 줄다리기는 농사의 풍년과 자식을 많이 낳게 해 달라는 呪術의 주술적 의미를 담아 줄을 당긴 것이 다르다. 중국은 대꺾질로 곧 篋纜밀람으로 원줄을 꾸미지만 우리는 벼짚을 이용하여 줄을 꼬는 것도 다르다.

경기도 고양군 가와지 유적 조사에서 土炭層토탄층으로부터 나온 왕겨 상태의 벼를 炭素탄소 測定측정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약 5천년 前전부터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의 줄다리기가 군사 훈련이 아닌 벼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벼농사의 시작과 함께 생겨난 것이라면 줄다리기의 역사는 중국의 春秋時代춘추시대 보다는 더 古代고대로 올라 갈 수도 있는 것이다.

廣州市광주시 牆枝洞장지동의 줄다리기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산이 많은 廣州광주에서 牆枝洞장지동, 특히 앞가지와 뒷가지가 隣近인근 마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天惠천혜의 背山臨水배산임수⁸⁾ 조건을 갖춘 農耕地농경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遊牧유목이 아닌 定着정착 위주의 삶을 이어온 韓民族한민족의 生活樣態생활양태로 볼 때 農耕社會농경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앞가지와 뒷가지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8) 背山臨水: 뒤쪽에 산이 둘러싸고 앞에 냇물이 흐르는 지형.
예로부터 陽宅[집]이나 陰宅[묘자리]의 가장 좋은 풍수 조건이다.

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牆枝洞장지동의 줄다리기는 山神祭산신제와 한 해씩 번갈아 가며 행해졌다는 점도 가벼이 지나칠 수 없다. 즉 한 해는 줄다리를 하고 다음 해는 산신제를 지내는 형식이었다. 祭政一致 시대에는 군주가 곧 제사장이다. 산신제가 우리 國祖국조이신 檀帝단제[檀君]나 그 이전부터 있어 온 풍습이라면 장지동의 줄다리와 산신제의 풍습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古代고대부터 이어온 풍습일 수도 있다고 본다.

장지동의 줄다리기도 淸道郡청도면 華陽面화양면의 줄다리기처럼 설이 지난 후 여러 날 동안 각각 여러 가닥의 줄까치를 꼬아서 원줄을 꾸민다. 암줄과 수줄의 줄목을 만들어서 簾木잠목을 지른 후 남녀로 편을 갈라 징 소리를 신호로 세 번을 당기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이기도록 짐짓 저주는 것이 常例상례였다.

달맞이가 끝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나와서 줄다리를 하는데 남정네와 아낙네가 편을 갈라 세 판을 겨루어 두 판을 이기는 것으로 勝敗승패를 결정하였다. 줄다리를 하기 위해서는 며칠 전부터 벗짚으로 굵은 세 가닥 새끼줄[줄까치]을 꼬는데 줄의 直徑직경이 약 10cm 정도다. 줄까치를 다 꼬면 몇 가닥을 한 데 묶어 길이 1百미터, 직경 50cm 이상의 굵은 원줄을 꾸미고 직경 5cm 정도 되는 당김 새끼줄을 여러 개 묶는다. 징소리와 함께 줄다리가 시작되면 장가들지 않은 사람은 아낙네 편에 가서 당겨야 하는 데 남자아이

들은 男丁남정네편에 가서 당기려 하므로 할머니들은 회초리를 들고 남자아이들을 쫓아다니신다. 그러다가 늦도록 장가 못간 나이든 총각을 회초리로 채근하며 “빨리 여자 편에 가서 당기라”고 얼러대시면 주위에서는 그만 깔깔대는 웃음이 터진다. 아낙네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하여 남정네들은 한 판을 이기고 나면 슬그머니 힘을 놓아서 대개는 아낙네편이 이기는 것이 常例상례였다.(朴光敏)

牆枝洞장지동의 줄다리기와 산신제도 한동안 그 脈맥이 끊겼었다. 그러다가 1989년 동네 토끼띠와 용띠, 뱀띠(1951~1953년생)들의 모임인 愛友會애우회에서 줄다리를 되살려 보자는 論議논의를 하였고 회원들이 모두 同意동의하여 당시 애우회 회장이던 故고 朴鍾南박종남 군과 里長이장인 徐根澤서근택 군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애우회 회원들은 줄 꼬기조차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장지동 15인회의 민철기 씨, 박광록 씨, 안병륜 씨, 안용환 씨, 안재영 씨, 엄익현 씨 등의 도움을 받아 세 가닥 줄을 꼬고 원줄을 꾸며서 첫 해 줄다리를 되살릴 수 있었다.

줄다리기와는 달리 산신제는 미신이라는 종교적 인식이 不知不識間부지불식간에 우리 의식에 스며들어 이를 논의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종교를 떠나 마을의 안녕을 비는 그저 그만큼한 우리네 풍속이거니 하고 생각을 열 수 있다면 종교를 믿는 이나 그렇지 않은 이나 편하게 참여하여 산신제를 동네의 놀이문화화하여 사라져가는 풍속도 되살리고 祖上조상의 전통을 이어가며 이웃 간에 和睦화목을

도모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次第차제에 장지동의 줄다리기도 줄목이 있는 암줄과 수줄로 줄을 당기는 전통을 되살려 무형문화재로 보존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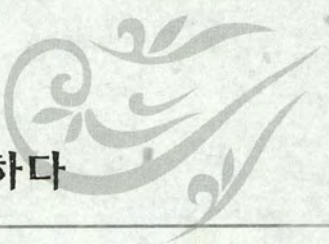
追記추기

1989년 당시, 사라져가던 줄다리를 되살리는데 마음을 모은 청년 회원과 애우회 회원들, 도움을 주신 동네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고마움을 표하는 것도 廣州市광주시 牆枝洞장지동 마을의 역사 기록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쓰며 어린 시절 넷물에 함께 풍덩거리며 자라서 고향을 지키다가 한참 일할 아까운 나이에 夭折요절한 당시의 愛友會애우회 회장이자 용띠 친구인 朴鍾南박종남 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다. 君군이여! 하늘에서나마 편안하시라.

당시 里長이장 : 徐根澤 씨

15인회 : 민철기 씨, 박광록 씨, 안병룡 씨, 안병륜 씨, 안용환 씨, 안재영 씨, 임익현 씨, 임영호 씨, 최길수 씨 外

당시 愛友會 및 前枝青年會 : 孔英燮, 金秉惠, 김주성, 金周熙, 김진수, 朴光敏, 朴光五, 朴鍾南, 박종목, 朴泰善, 徐承澤, 宋永培, 宋永賢, 安秉文, 安秉書, 柳東烈, 柳信烈, 李祐範.



광주를 말하다

- 강세구 | 星湖學派의 중심 인물 順菴 安鼎福
- 한명기 | 병자호란 시기 남한산성 항전의 국제관계사적 의미
- 전보삼 | 10년의 남한산성 변화를 지켜보면서
- 이은실 | 전통을 계승하는 광주의 도예가

여 백

星湖學派의 중심 인물 順菴 安鼎福

강 세 구

역사학자, 본원향토문화연구위원

1. 머리말

성호학과를 창도한 성호(星湖) 이익(李瀾, 1681-1763)은 조선 후기 대실학자로서 그의 문하에는 많은 문인들이 있었다. 광주 경안에 거주하던 실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순암(順菴) 안정복(安鼎福)도 성호문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안정복은 35세의 늦은 나이에 안산의 성호를 방문하여 문학생이 되었지만, 그가 성호학파의 일원으로써 펼친 활동과 남긴 업적은 한국사 내지 한국실학사에서 적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사강목(東史綱目)』은 그의 역사 저술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성호문인 안정복은 성호학과 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고, 또한 어떤 역할로써 활동하였던가? 여러 분야에 걸쳐 활동하였지만 여기에서는 성호학과 후계자 양성 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 성호학파의 역사학 대변자로서의 역할,

성호문인 사이의 갈등에 대한 조정자 역할, 성호학파의 보전과 성호학통의 전승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성호문인 안정복의 위상에 대한 재조명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성호학파 후계자 양성

1763년 성호가 타계한 뒤 성호학파의 중심지는 성호가 거주하였던 안산에서 성호의 조카이자 문인인 이병휴의 거주지 충청도 예산으로 사실상 옮겨졌고, 그동안 성호와 함께 성호학파를 이끌어 온 성호문인들은 각각 연고지에서 학문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하거나 혹은 관직에 종사하면서 성호학파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특히 성호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

윤동규(尹東奎, 1695-1773) · 이병휴(李秉休, 1710-1776) · 안정복(安鼎福, 1712-1791) 등이 성호 없는 성호학파의 진로에 대하여 남달리 관심과 염려를 나타냈다. 이들도 점차 노년기에 접어들자 1770년을 전후하여 성호학파



순암 안정복

후계 문제를 자주 거론하게 되었다. 즉 성호학과 제1세대인 자신들을 대신하여 앞으로 성호학파를 이끌어갈 후계자 양성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이다.

성호학과 제1세대로서 원로 성호문인 삼인방이라 할 수 있는 윤동규·이병휴·안정복은 성호가 타계한 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서로 상의하여 성호학파를 이끌어 가고 있었다. 윤동규는 성호의 수제자로서 성호학파의 상징적 역할을 하며 인천과 서울 용산을 오가며 후학을 양성하였고, 이병휴는 충청도 예산에 거주하며 성호 유고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성호학파의 젊은 학자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었다. 성호학파의 제반 일은 주로 그가 주관하였다. 안정복은 광주 경안 이택재(麗澤齋)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저술활동을 하다가 조정의 부름이 있을 때에는 관직에 나아가기도 하였다. 사실 이들의 거주지가 서로 원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주로 편지를 통하여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안정복은 1754년 사헌부 감찰을 끝으로 광주에 내려와 『동사강목』을 집필하면서 한편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안정복과 연척 혹은 지연·학연을 따라 문하생이 된 경우가 다수였는데, 이인섭(李寅燮, 1734?)·권철신(權哲身, 1736-1801)·권일신(權日身, 1742-1791)·이기양(李基讓, 1744-1802), 심유(沈澣) 등이 안정복 문하에서 수업한 대표적 인물이다. 이인섭은 조부 이선양(李善養)이 안정복의 조부 안서우(安瑞羽) 문인이고, 권철

신은 부친 권암(權巖)이 안정복과 친밀한 관계인데다 뒤에 권철신의 동생 권일신이 안정복의 사위가 되었으며, 이기양 역시 안정복과 가까운 집안으로 뒤에 이기양의 동생 이기성(李基誠)은 안정복의 손자사위가 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안정복의 거주지와 그리 멀지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다. 뒷날 한정운(韓鼎運, 1741-1819)도 안정복을 찾아와 배움을 청하였다.

1770년대 들어 예산의 이병휴는 성호학과 후계 논의를 정식으로 거론하며 윤동규와 안정복에게 책임자로 권철신과 이기양을 내세웠다. 윤동규와 안정복 역시 이들이 재능 있는 인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성호학과를 이끌어갈 책임자라는 사실에 동감하였다. 생전의 성호도 권철신의 재능을 인정하던 터였다. 권철신과 이기양은 일찍이 안정복으로부터 수업하였지만 윤동규와 이병휴의 문을 드나들며 학문적 지도를 받기도 하였는데, 1763년 성호가 타계한 이후에는 예산의 이병휴와 더욱 가까이 하였다. 그것은 비교적 개방적인 이병휴의 학문성격과 새로운 학문과 신사조에 민감한 이들의 학문 성향이 잘 통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병휴는 성호유고를 정리하는 동안 권철신의 도움을 청하며 자기 집에 불러들여 앞으로 성호학과를 이끌어갈 책임감을 심어주는 한편 과거공부보다는 학문연마에 열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기양에게도 같은 취지로 권유하며 장래 성호학과를 이끌어 갈 인재로 인정하고 기대에 차

있었다. 윤동규도 말년에 권철신에게 자신은 이미 늙었으니 성호학과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 이기양에게도 능력을 칭찬하며 과거를 위한 공부보다는 경전공부에 매진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윤동규와 이병휴는 이들을 성호학파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하여 공히 이들에 대한 지도를 안정복이 맡아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윤동규는 안정복에게 권철신의 탁월한 학문 능력을 평가하며 안정복이 지도해 줄 것을 직접 간곡하게 부탁하였고, 이병휴 역시 누차 안정복에게 이들의 교육을 부탁하고 소홀하지 말 것을 간절히 당부하였다. 물론 권철신과 이기양이 청소년기에 안정복 문하에서 교육을 받아 안정복이 이들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정복은 굳이 사양하면서도 한편 도외시 할 수가 없었다.

권철신과 이기양은 광주 안정복의 서재를 방문하거나 편지를 통하여 안정복과 학문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권철신과 이기양에 대한 지도가 쉽지 않았다. 권철신과 이기양은 정통 유학에 매진하기를 강조하는 안정복의 권고를 순순히 따르지 않았다. 이들은 주자학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양명학에 심취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은 당시 양명학(陽明學)이나 서학(西學)과 같이 이단시되던 학문과 사상이라 하더라도 학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이병휴의 학문 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었다. 나아가 1770년대에는 서학,

즉 신앙으로써의 서학, 즉 천주교에 관심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안정복의 설득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점차 접촉을 멀리하게 되었다. 안정복은 이들의 이러한 성향이 이병휴로부터 영향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들의 양명학과 서학에 대한 심취를 이병휴가 방관하자 불만을 나타내고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병휴도 크게 우려를 나타냈으나 여전히 안정복이 이들을 설득하고 교도해 주기만을 부탁하다가 1773년 윤동규에 이어 1776년 이병휴마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안정복의 입장으로서는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병휴가 세상을 하직한 이후 안정복은 원로 성호문인으로서 외롭게 성호학과를 이끌어가야만 했다. 더욱이 안정복을 고민스럽게 만든 것은 1780년대에 들어서 권철신을 중심으로 한 성호학과 젊은이들의 천주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가는 것이었다. 이인섭과 한정운은 과거를 통하여 이미 관직에 나아가 크게 걱정할 여지가 없었고, 이기양은 1774년 진사시험에 장원을 한 뒤 관직에 나아가 있었으나 그 역시 천주교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문제는 권철신이었다. 1780년대 중반까지도 안정복은 권철신에게 성호학과를 이끌어 가는 종주(宗主)의 입장에서 천주교에 앞장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지만, 권철신은 안정복의 설득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안정복은 권철신의 그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애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미 권철신을 성호학과를 이끌어가는 종주로 인정하여 계속 설득하였다. 이때 사위 권일신을 비롯하여 이벽(李穡) 등 초창기 한국천주교 전파를 주도했던 젊은이들은 안정복의 집안을 드나들며 오히려 안정복을 설득 하는 등 이미 그의 주변에는 천주교가 아주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1780년대 성호학과 내부의 이러한 상황아래 안정복은 당파싸움의 소용돌이에서 천주교에 발을 들여놓은 문인들이 장차 화(禍)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나아가 정부의 천주교 박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이들을 구하는 한편, 혹 박해대상이 되지 않은 성호학파의 유지가 해결되어야 할 급선무였던 것이다. 몹시 시급한 상황에 처한 안정복은 권철신에게 당파싸움의 와중에서 만약 어떤 이가 일망타진할 계획을 시행하여 화를 당한다면 천주가 와서 구해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까지 설득하였으나 권철신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소장 학자들의 앞에서 사실상 성호학과를 이끌어 가고 있던 권철신이었기에 안정복은 만년으로 접어들면서 더욱 무력감에 빠져들게 되었고, 1780년대 후반에는 결국 권철신이나 이기양에 대한 기대와 설득을 사실상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자신의 뜻에 따르던 문하생 황덕일(黃德壹)·황덕길(黃德吉) 형제 등 후학을 양성하면서 벽위노선을 강화해 나가게 되었다.

이처럼 안정복은 윤동규와 이병휴 등 성호학파의 원로들

과 손잡고 성호학과 후계자 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렇지만 학문적 성향과 학문방법 등의 차이 때문에 갈등을 초래하고 분열되어 결국 안정복과 그 후학을 중심으로 한 안정복계열은 벽위를 강화해 나아갔고 권철신계열은 박해의 대상이 되는 불행을 맞았다. 그러나 18세기 후엽 권철신이 이끈 개방적이고 신사조에 민감한 젊은 성호학파의 활동이 전통사회를 근대화하는데 일대 전환점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달리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권철신을 설득할 무렵 집안에까지 아주 가까이 밀어 닦친 천주교 때문에 안정복이 고민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에서 그동안 서학에 대하여 심하게 배척하지 않던 그가 강한 벽위노선을 견지 않을 수 없었던 당시의 환경 또한 상상이 간다.

3. 성호학파의 역사학 대변

『동사강목』은 안정복이 편찬한 역사서로써 조선후기 대표적인 강목체(綱目體) 통사(通史)이다. 『동사강목』은 안정복이 저술한 역사서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안정복이 성호문인이 된 뒤 성호와 여러 성호문인들의 협조를 얻어 저술되었다. 처음 안정복은 성호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정리할 필요성을 말하고 자신이 집필하겠다는 의향을 비치자, 성호는 안정복의 학문적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있

던 터에 집필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렇게 안정복이 성호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의향을 비치기까지는 안정복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다. 즉 1746년 안정복은 성호 문인이 되자 곧 선배 성호문인 윤동규와 학문적 교류를 하면서 역사서술에 관한 많은 지식을 배웠다. 강목필법(綱目筆法)이라던가 역사지리(歷史地理) 등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윤동규에게 편지로 자문을 구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이 갖추어지고, 역사에 관한 국내 및 국외 문헌을 읽은 다음 성호에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말하였던 것이다. 사실 성호도 일찍이 역사서를 저술할 계획이 있었으나 역사 고증에 심혈을 기울이다가 시기를 놓쳐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아쉬워하고 있던 차에 안정복의 뜻을 접하자 협조할 것을 쾌히 약속하였던 것이다.

우선 안정복은 성호로부터 『동사강목』의 전체적인 체제와 의례, 기본방향을 자문 받았는데 범례(凡例)에 잘 나타나 있다. 그 후 집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의문점에 대하여는 편지를 통하여 주로 안정복이 질문하고 성호가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특히 상고사(上古史)의 편제, 사료가 적은 고조선(古朝鮮)과 삼한(三韓)의 강역 문제 등은 성호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었고, 마한정통(馬韓正統)은 성호의 삼한정통론(三韓正統論)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성호의 저서 『성호사설(星湖僊說)』은 집필과정에서 고증자료로 크게 활용되었고, 그 밖에도 성호는 집필과정에서 필요한 자

료를 스스로 챙겨 주었다. 안정복은 집필이 부분적으로 끝나는 대로 성호에게 보내 읽어 보도록 하였고 성호의 의견을 청취하여 다음 집필에 반영하였다. 성호는 안정복이 병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윤동규와 이병휴에게 안정복의 집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권고하였다. 1759년 초고가 나오자 성호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냈는데 그 뒤에도 성호는 타계할 때까지 계속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윤동규와 이병휴는 스승 성호의 권고대로 『동사강목』이 저술되어 나오기까지 안정복의 집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윤동규는 성호문인 가운데 가장 연장자인 수제자로 경사(經史)에 능하고 지리 및 역법에 밝았다. 강목체 역사 서술에 대한 안정복의 자문에 소상하게 응해 주었고 특히 역사지리 고증에 관한 질의응답이 많았다. 안정복은 강목체 서술방법에 관하여서는 스승 성호보다도 윤동규의 자문을 더 많이 받았다. 안정복의 입장에서 윤동규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윤동규의 학식이 높았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호의 나이가 이미 노령인데다 병약하였던 원인도 있었다. 윤동규도 안정복의 집필에 협조하라는 성호의 권고가 있는데다 윤동규가 노령인 성호를 대신하여 성호학과를 이끌어야 할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동사강목』 초고가 나와 성호에게 보내졌을 때에도 성호는 윤동규에게 먼저 보이고 토의하였을 정도로 성호는 윤동규를 존

중해 주었고 학문적으로 신뢰가 깊었다. 따라서 윤동규는 『동사강목』 집필 과정에서 협조를 소홀히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성호가 1763년 타계하자 윤동규는 성호를 대신하여 안정복에게 『동사강목』의 수정 보완을 소홀하게 다루지 않도록 당부하고 보완과 교정을 위해 안정복과 많은 논의를 하였다.

한편 이병휴는 안정복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절의문제와 정통론 등으로 안정복과 많은 의견교환을 하였다. 안정복은 집필과정에서 역대 인물의 절의평가를 하며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로 이병휴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그리고 1773년 여러 문인들의 도움으로 『동사강목』 재고가 거의 끝날 무렵, 안정복이 『동사강목』 표제문(表題文)을 부탁하자 기꺼이 써 주었다. 『동사강목』 전면에 있는 ‘제동사 편면(題東史篇面)’이 바로 그 표제문이다.

그 밖에 권철신의 아버지 권암(權巖)은 자료 제공과 자문에 응하였으며, 지리학자 신경준(申景濬)도 지리고증에 관한 도움을 주었다. 이인섭에게는 초고에 대한 검토를 부탁하여 범례를 비롯하여 지리고증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견을 청취하였고, 성호의 손자 이구환은 초고 집필부터 재고에 이르기까지 앞장서 협조하였으며, 권철신 또한 교정에 참여하였다. 정지검(鄭志儉)은 관직에 종사하면서도 『동사강목』 교정과 함께 간행에 힘쓴 인물이다. 그 밖에도 많은 성호문인과 그 후학들의 도움을 받았다. 한 때는 초고 집필과

정에서 안정복의 지병이 재발하자 동생 안정록(安鼎祿)과 아들 안경증(安景曾)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집필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윤동규의 뜻을 따라 권철신과 이구환에게 맡겨 마치도록 하였으나 다행히 병이 호전되어 자신이 마쳤다. 그만큼 안정복의 『동사강목』 초고의 집필이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고 성호문인들의 협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하겠다.

1759년 『동사강목』 초고가 나와 검토한 뒤, 곧 재고에 들어가 수정과 보완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 성호문인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성호는 이미 노령으로 시력과 청력이 떨어져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여러 소장 학자들이 협조에 임하였으나 수정 보완 작업이 쉽지 않아 탈고가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동사강목』은 수정과 보완을 거듭하면서 수십 년이 걸렸다. 재고과정은 수정과 보완이 거듭되면서 역시 성호문인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동사강목』은 비록 안정복이 집필하였지만 성호와 성호문인들의 협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비추어 성호학파의 역사인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하겠다. 따라서 『동사강목』은 성호학파의 역사인식을 대변하는 역사서라 보아 좋을 것이다.

4. 성호문인 결속에 앞장선 안정복

앞에서 성호가 타계한 이후, 안정복이 윤동규와 이병휴의 권고에 따라 성호학과 후계자 양성의 실제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윤동규와 이병휴는 같은 성호문인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뜻이 맞지 않아 갈등을 겪었다. 이들이 성호학파의 핵심 인물이라는 점에서 안정복은 더욱 우려하였다. 윤동규가 이병휴보다 15살 위이고 일찍이 17세에 성호의 문하에서 공부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병휴가 성호의 조카라 할지라도 성호문인이라는 점에서 보면 윤동규는 이병휴의 대선배이고 성호 또한 수제자인 윤동규를 크게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동규와 이병휴는 학문적 성향이 달라 충돌하는 일이 잦았다. 본시 비교적 개방적이고 이단학도 학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닌 이병휴의 학문 성향과 주자학을 숭상하고 공맹(孔孟)의 가르침에 철저한 윤동규의 학문 성향이 마찰을 빚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성호학과 내에서 수십 년 동안 계속된 두 사람 사이의 공희노(公喜怒) 논쟁은 일생을 두고 앙금이 풀리지 않았다. 공희노 논쟁이란 바로 성호가 저술한 성리학 서적 『사칠신편(四七新編)』 중발(重跋)에 게재된 내용에서 불거진 공희노, 즉 성현(聖賢)의 칠정(七情)이 이발(理發)이나 기발(氣發)이냐의 여부를 놓고 벌인 논쟁이다. 성호는 처음

『사칠신편』의 본문에 성현의 칠정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발, 즉 기가 발동한 것이라고 썼다. 그런데 1734년 문인 신후담(愼後聃)이 이의를 제기하여 성현의 칠정은 기발이 아니고 이발 즉 이가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성호가 신후담의 의견을 따라 다시 발문(跋文)을 붙이고 본문의 내용을 번복하여 이발이라 표기하였다. 이것이 『사칠신편』 중발이다. 이를 본 윤동규가 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처음 본문에 서술한 기발이 맞다고 주장하자 성호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 결국 성호는 다시 윤동규의 뜻을 따라 신후담의 의견을 철회하여 중발에 썼던 이 발론을 붓으로 지웠다. 그런데 신후담의 주장을 이병휴가 추종하여 윤동규의 주장에 맞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으나 성호가 살아 있을 때에는 이견을 보이면서도 서로 참아 소란스럽지 않았다. 그런데 성호가 타계하고 이병휴가 성호유고를 정리하면서 신후담의 의견대로 이발이라고 쓴 발문, 즉 중발을 『사칠신편』에 붙이자 윤동규가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즉 성호가 이미 묵삭(墨削) 하였던 발문을 다시 붙이는 것은 성호의 뜻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이리하여 윤동규와 이병휴의 논쟁이 다시 일어 양측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감정의 골만 깊어 갔다. 이 때 안정복이 중재에 나서 두 사람의 화해에 노력하였다. 사실 안정복은 윤동규의 기발론에 서있었지만 이병휴의 의견에 경청하는 입장을 취하였기 때문에 이병휴와 의견충돌은 없었다. 그러나 윤동

규는 이병휴가 붙인 중발을 없애라고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첨예한 충돌을 빚게 되었던 것이다. 안정복의 생각으로 학문적 이견이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이 격화되어 성호학파의 운영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였던 것이다.

성호 유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윤동규와 이병휴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 윤동규는 이병휴가 성호 유고를 정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고친다 한다 하여 불신하였고, 이병휴는 윤동규가 너무 자기 고집을 앞세운다고 불평을 토로하였다. 이병휴는 선배 성호문인이자 성호학파의 상징적 존재인 윤동규에게 예의상 중요한 사안이나 유고의 진행상황을 통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동규는 이병휴에 대한 불만을 안산의 이구환에게 나타내면서 자신의 의견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더불어 안정복에게 유고 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이병휴는 유고 정리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윤동규보다는 안정복과 자주 상의하여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 요컨대 성호 사후 성호유고를 비롯하여 성호학파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병휴가 주로 예산에서 주관하였지만 중요한 일은 안정복이 윤동규와 이병휴의 중간에서 조정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밖에 윤동규와 이병휴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의례적으로 상의하였으나, 각각 달리 안정복과 상의하는

일이 많았고, 이런 경우 안정복은 두 사람 사이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여 자신의 의견을 두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성호학과 후계 문제에서도 윤동규와 이병휴가 공히 권철신과 이기양에 대한 지도를 안정복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것도 두 사람의 갈등과 무관치 않다.

이상과 같이 안정복은 성호학과 내부에서 빚어지는 문인간의 갈등을 해소 무마하는 조정자 역할을 해오며 성호학과와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5. 성호학통의 전승

성호의 문하생 가운데에는 성호의 제자로써 가르침을 받는 직제자도 있고 성호의 문을 드나들며 학문을 교류하는 자도 있었다. 관직에 종사하는 자도 있고 과거에는 관심이 없고 학문에만 몰두하는 자도 있었다. 직제자 윤동규·신후담·이병휴·안정복의 경우가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 이들이 성호를 도와 성호학과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왔다.

성호문인들은 많은 경우 연고지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학문연구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학통을 계승하려 하였다. 이를테면 윤동규는 인천에서, 이병휴는 예산에서, 안정복은 광주에서, 관직에 종사하였던 자는 부임지에서, 그 밖에 권철신처럼 천진암(天真庵) 강학과 같은 방법을 쓰기도 하는 등 성호학과의 일원으로써의 학문 활동을 통하여 학통계승이 이루어져 갔다. 따라서 성호학통 제2세대, 제3세대 인물

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모두 성공적으로 계승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전승되었다 하더라도 미미하여 대부분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동규계열 성호학통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19세기 전반 이후 확인하기 어렵고, 잘 알려진 이병휴→권철신→정약용의 계열은 천주교 박해로 19세기 전반 단절되다시피 하였다. 19세기 말까지 이어진 성호학통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의 이병휴→이삼환으로 이어진 성호학통과 광주의 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이어진 성호학통 정도가 20세기까지 뚜렷하게 전승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정도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의 전승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이 어떻게 전승되었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허전(許傳, 1797-1886)의 문인 노상직(盧相稷, 1855-1931)은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회연(檜淵)의 물이 연천(漣川)으로 흘러 침성포(瞻星浦)로 들어와 광릉(廣陵)을 돌아 두호(斗湖)에 이르러 냉천(冷泉)에 모였다. 냉천은 돌아가신 스승 허문헌공(許文憲公)이 도학을 강의한 곳이다.

경상도 성주에 있는 회연은 퇴계 이황의 문인 정구(鄭逵, 1543-1620)가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고, 경기도 연천은 정구의 문인 허목(許穆, 1595-1682)이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며,

첨성포는 안산의 성호 이익이 거주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다. 광릉은 바로 안정복이 후학을 양성하던 뒷골을 말하고, 두호는 안정복 문인 황덕길(黃德吉, 1750-1827)이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며, 냉천은 지금 서울 서대문구 냉천동으로 황덕길의 문인 허전이 후학을 기르던 곳이다. 여기에서 노상직이 말하는 이황→정구→허목→이익→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바로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이다. 허목과 이익의 관계는 스승 제자의 관계가 아니고 사숙(私淑) 관계이다. 사숙이란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고 저서 등을 통하여 가르침을 본받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데, 성호는 이미 타계한 청남계(淸南系) 남인 윤휴(尹鑰)의 학문을 전수하는 한편, 허목의 학문과 사상을 혼자 공부하였다. 이익→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이어지는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은 성호로부터 허전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사승 경로를 통하여 전승되었다.

황덕길은 경기도 양천 사람으로 성호문인 황이곤(黃以坤)의 아들이다. 형 황덕일(黃德壹)과 함께 1773년 광주 뒷골을 방문하여 안정복의 문인이 되었다. 형제가 멀리 찾아와 문하생이 된 것은 성호와 황덕길 선대의 학맥관계, 안정복과 황덕길 두 집안의 가문 적 교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형제는 문하생이 된 뒤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을 철저히 전수하였다. 스승의 가르침대로 양명학이나 서학을 멀리하였고 1780년대 안정복이 천주교 문제로 권철신과 갈

등을 겪을 때 스승 안정복의 뜻에 적극 동조하였다. 황덕길은 안정복이 권한 『이자수어(李子粹語)』와 안정복의 저서 『하학지남(下學指南)』을 철저히 익혔다. 고향에 두호정사(斗湖精舍)를 지어 후학 양성에 힘썼는데 문인으로 한익상(韓益相)·이정환(李正煥)·안경의(安景禕)·이상규(李祥奎)·한재권(韓載權)·허전(許傳) 등이 있다. 그는 문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할 때면 “후학이 된 자는 마땅히 성호가 쓴 책을 읽고 성호의 학문을 배워야 한다” 하면서 직접 성호의 저서를 보이며 강론하였는데, 문학생들은 소장된 성호의 저서를 직접 접하여 익힐 수 있었다. 그는 성호의 저술과 안정복의 저술을 수집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노년에 들어서 먼저 스승 안정복의 유고를 정리하였고, 성호의 증손자 이재남(李載南)의 협조를 받아 성호의 유고도 다시 정리하려 하였으나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스승 안정복의 학문이 퇴계학에 근원한 성호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킨 정통으로 믿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각별하였으며 더불어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이라는 자부심 또한 대단하였다.

허전은 경기도 포천 출신으로 아버지 허형(許珩)의 인도로 황덕길의 문인이 되었다. 허전은 스승 황덕길로부터 철저하게 성호 학을 배웠고, 그 또한 많은 성호의 저서를 소장하고 탐독하였다. 허전은 스스로 가장 존경한 사람이 성호임을 말하면서 “비록 선생의 문도가 되지 못하였다 하더

라도 진심으로 따르기를 70 자(子)가 공자를 섬긴 것과 다름없이 하였다” 하고,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성호의 저서를 읽고 음미해 보면 매우 기쁘고 즐겁다고 하였다. 성호의 저서 『성호사설(星湖僊說)』에 대해서도 “이 책이 세상에 나온 것은 후생(後生)의 행복”이라고까지 높이 평가하였다. 그가 얼마나 성호의 학문을 좋아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성호의 예론(禮論)은 허전이 예론의 대가로 성장하는데 큰 바탕이 되었다. 임종에 가까워서는 “나의 상제(喪祭)는 성호의 예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유언할 정도로 성호의 예론을 추종하였다. 허전은 관직에 나아가서도 서대문 밖 냉천동에서 가난한 살림을 꾸리며 내핍생활을 하였다. 그런 가운데 근기지방은 물론 영남지방의 많은 젊은이들도 문하생이 되어 출입하였다.

1864년 허전의 김해도호부사 부임은 성호학과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부사로 부임하자 관아를 개방하여 학자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하며 교학 진흥에 힘써 영남지방의 많은 학자들과 교류하는 한편, 영남 출신의 많은 유생을 문하생으로 받아들여 직접 강론하며 교육하였다. 그 중에는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과 같은 기존 영남학자들의 문하생들도 자진하여 그의 문하생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리하여 영남지방에 성호학과를 크게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으니 2년여 재임하는 동안 수백 명의 문인들이 탄생되었고, 그들은 영남남인 성호학통으로 활동하였다. 1866년 다시

조정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허전의 거처인 한양 냉천동의 서재 불권당(不倦堂)에는 영남 성호학통 학자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었다.

영남출신 허전의 대표적 문인으로 박치복(朴致馥)·김인섭(金麟燮)·허훈(許薰)·이종기(李種杞)·노필연(盧泌淵)·노상익(盧相益)·노상직(盧相稷)·조병규(趙昞奎)·조성렴(趙性濂)·이상규(李祥奎)·안희원(安禧遠)·안종덕(安鐘惠)·박시묵(朴時默)·박재형(朴在馨)·김진호(金鎭祐) 등을 들 수 있다. 1886년 허전이 타계하자 이들 다수는 스승 허전의 유고를 비롯하여 선대 성호학통 학자들의 유고 편찬에 착수하였다. 먼저 허전 유고를 정리하여 1891년 경상도 산청 법물리 이택당(麗澤堂)에서 『성재집(性齋集)』을 간행하였고, 이어 성호문집, 안정복문집, 황덕길문집 등을 간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두 성호학통이라는 긍지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안정복 계열 성호학통이 영남지방에서 확산되고, 이어 성호학통 문집간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예산을 중심으로 한 충청지방 성호학통 또한 이에 협조하고 나섰다. 충청지방 성호학통은 원래 이병휴 → 이삼환(李森煥)으로 이어지는 계통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이병휴의 양아들 이삼환은 안정복이 생존하고 있을 때 권철신과 동조하지 않고 안정복의 학문과 사상을 따랐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후 학들도 안정복계열 성호학통과 학문이나 사상의 성향이 크

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19세기 충청지방 성호학통에는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인 허전문인 또한 적지 않았다. 따라서 19세기 후반 충청지방 성호학통도 사실상 안정복계열 성호학통이라 보아 무리 없다 하겠다.

안정복 계열 성호학통은 성호로부터 안정복→황덕길→허전→허전문인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사승의 경로를 통하여 20세기 초까지 이어져 왔다. 이들은 학문적으로는 하학(下學)에 철저하고, 사상적으로는 천주교 배척을 중심으로 벽위론을 펴왔다. 이들 성호학통은 구한말 즉 대한제국(大韓帝國) 시기에는 자강(自強)을 부르짖기도 하고, 여러 형태의 구국운동에 참여하거나 은둔하기도 하였으며, 망명객이 되기도 하고 자결(自決)하는 자도 있었다. 어쩌면 이 학통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벽위사상이 민족수난기를 맞아 구국을 위한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8세기 성호학파의 학통을 온전하게 전승한 성호학파의 계파는 안정복→황덕길→허전으로 이어지는 계열, 즉 안정복계열이라 하겠다. 그렇다고 볼 때, 성호학통 전승의 관점에서도 성호학파에서 차지하는 안정복의 위상은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6. 실학자 안정복과 광주

지금까지 안정복이 성호학파의 중심인물로써 펼친 역할



순암 안정복 묘

에 대하여 성호학과 후계자 양성과 관련된 내용, 성호학파의 역사학을 대변하는 안정복의 『동사강목』 집필, 성호문인 사이의 결속과 조정자 역할, 성호학통의 전승 등을 살펴 보았다. 안정복은 성호학파의 일원으로써 성호학파를 유지보전하고 후대로 성호학통을 전승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가 조선후기 실학자이자 대표적 역사학자로 광주인 이었다는 점에서 성호학파와 안정복, 그리고 광주의 관계를 되새겨 보는 일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성호학파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실학파이다. 실학은 일정한 시대의 문명을 선도하는 학풍이다. 따라서 당대의 실학자들은 당연히 현실 비판적이고 개혁 지향적이며 안민(安民)에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성호학파의 중심인물 가운데

에 섰던 안정복도 예외가 아니다. 그는 『임관정요(任官政要)』나 『동사강목』 사론(史論)을 통하여 많은 현실개혁을 주장하였다.

이를테면, 글짓기 중심의 과거시험을 폐지하고 천거 제를 도입할 것, 고문을 근절하고 연좌제를 폐지할 것, 뇌물 수수 범죄를 엄벌할 것, 교화위주의 형벌정책을 별것, 농민을 수탈하는 환곡(還穀)제도를 폐지하고 사창(社倉)제도를 확대 실시할 것, 해방(海防)정책을 강화하고 변방의 경비를 철저히 할 것, 대중국(對中國) 국방을 강화하고 문약(文弱)에 빠진 숭문(崇文)정책을 지양할 것, 군사적 요지에 병거(兵車)를 보급하여 전시를 대비할 것, 군사적 요새지를 확보할 것, 주변국 동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할 것, 노비천적(奴婢賤籍)을 혁파하고 문벌을 타파할 것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궁극적 목표는 부국안민(富國安民)이라 하겠다. 그는 반드시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폈고, 성호의 실학서 『성호사설』의 내용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의 주장은 곧 성호학파를 대변하는 것이었다.



광주안씨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숙당



안정복 강화소 터 표석

성호학파의 활동 무대 중심지가 광주일원이었고, 성호학파의 구성원 다수가 광주인 이었으며, 그 가운데에 안정복이 중심인물이 되어 성호학파의 유지와 보전, 학통의 전승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실학자이며 역사학자로서 다수의 서민을 위한 많은 개혁의지를 나타냈던 것이다.

이따금 광주시 텃골을 찾아 이택재(麗澤齋)를 보노라면 안정복이 가난에 찌든 농민들을 생각하며 고민에 젖어 있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참고문헌]

- 姜世求, 『東史綱目研究』, 民族文化社, 1994
 姜世求, 『성호학통 연구』, 해안, 1999
 차기진, 『조선 후기의 西學과 斥邪論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姜世求, 『廣州와 實學』, 廣州文化院, 2005
 姜世求, 『東史綱目の 著述背景』, 『東亞研究』 17호,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9
 姜世求, 『安鼎福의 歷史考證方法』, 『實學思想研究』 創刊號, 母岳實學會, 1990
 姜世求, 『安鼎福의 國防論』, 『實學思想研究』 2호, 母岳實學會, 1991
 姜世求, 『柳馨遠·李瀾과 安鼎福의 學問的 傳承關係』, 『實學思想研究』 5·6합집, 1995
 徐鍾泰, 『星湖學派의 陽明學과 西學』,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姜世求, 『星湖學派의 理氣論爭과 그 影響 -公喜怒論爭을 중심으로-』, 『龜泉元裕漢教授定年紀念論叢(下)』, 해안, 2000
 姜世求, 『湖西地方 星湖學統의 展開』, 『京畿史學』 제5호, 京畿史學會, 2001

남한산성병자호란 시기 남한산성 항전의 국제관계사적 의미

한명기
명지대 사학과 교수

머리말

한반도의 중심부에 자리 잡은 南漢山城은 예로부터 군사적 요충이자 전략 거점이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수도 漢陽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背後의 要塞였다. 南으로는 영남으로, 北으로는 관동과 관북으로, 西로는 호서와 호남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한 데다 험준한 山勢와 풍부한 水資源을 지닌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날 史蹟으로서 남한산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아마도 丙子胡亂일 것이다. “1636년 滿洲族의 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국왕 仁祖와 조선 朝廷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고,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도 결사적으로 항전했다. 산성에서도 조선 신료들은 明에 대한 의리와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랑캐’ 청에 맞서 끝까지 항전할 것을 주장했던 斥和派와 청에게 군사력

이 달리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後日을 도모해야 한다는 主和派로 나뉘어 격렬한 論爭을 벌였다. 하지만 포위된 상황에서 날이 갈수록 식량은 고갈되고 추위는 심해지는 데다 외부의 구원병마저 차단되면서 조선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인조는 결국 臣服하라는 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산성의 西門을 나와 三田渡로 가서 청 태종에게 세 번 큰절을 올리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아마 이 정도가 오늘날 평균적인 수준의 역사 지식을 가진 한국인들이 남한산성과 병자호란에서 떠올리는 敍事의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그 서사의 핵심 키워드는 ‘斥和’와 ‘主和’, ‘결사항전’, ‘항복’, 그리고 ‘치욕’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산성을 主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던 병자호란은 위의 서사 내용이나 핵심 키워드가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국제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 우선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17세기 초반 무렵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던 격동기였기 때문이다. 격동의 핵심은 明清交替였다. 14세기 후반 이래 200년 이상 동아시아의 霸權國家로 군림했던 明이 신흥 강국 淸의 도전에 밀려 무너져 가고 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 그런데 패권국가 淸이 쇠퇴하고 몰락하는 과정에는 청뿐만 아니라 조선, 일본, 몽골 등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직접, 간접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애초 淸의 지배 아래 있던

만주족의 누르하치(奴兒哈赤)가 崛起를 시작했던 것이 1583년이다. 일본이 ‘明을 정복하겠다’며 그 길목인 조선을 침략한 것이 1592년, 淸의 전신인 後金이 宣戰布告를 통해 공식적으로 명에 도전을 선언한 것이 1618년이고, 이후 명과의 대결에서 연전연승했던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帝國 성립을 선포하고 곧바로 조선 침략에 나선 것이 1636년이었다. 그리고 명이 결국 멸망하고 청이 山海關으로 들어가 北京을 점수한 것이 1644년이었다.

1583년부터 1644년까지의 激動에 휘말렸던 관련 국가들 가운데 조선은 시종일관 명을 ‘上國’으로 섬기고 충순하게 事大했던 藩國이었다. 일본은 15세기 초 명의 冊封을 받았지만 이후 ‘변심하여’ 급기야 명을 정복하겠다고 도전했던 국가였고, 청 역시 애초 명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17세기 초 세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역시 명에 도전했던 국가였다. 몽골은 부족별로 명에 대해 우호와 적대가 無常한 태도를 보였던 국가였다.

명과 관계된 諸國의 이 같은 다양한 면모들을 고려할 때 1636년 ‘청군에 의해 남한산성이 포위된 상황’이나 또 ‘조선이 청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는 상황’, 혹은 ‘조선이 청에게 굴복하여 항복하는 상황’은 결코 조선과 청만의 문제일 수 없었다. 명과 일본, 심지어는 몽골까지도 ‘남한산성’을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리고 ‘남한산성’의 결과는 서울, 靑島, 瀋陽, 山海關, 北京을

거처 對馬島와 江戶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1636년의 남한산성은 동아시아 諸國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국제적 戰場’이자 ‘문제적 장소’였다. 이제 병자호란과 남한산성이 지니고 있는 國際性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병자호란 발생의 前史

1) 누르하치의 거병과 壬辰倭亂

淸을 건국한 滿洲族(-女眞族)이 중국사에서 존재감을 알리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2세기 초였다. 1115년 完顔部 여진의 아구다(阿骨打: 1069~1123)가 金을 건국하여 遼와 宋을 압박했다. 金은 1215년 요를 멸망시켰으며, 송을 공략하여 그들을 양자강 이남까지 밀어붙이고 북경을 장악했다. 南宋은 이후 金에 稱臣하면서 막대한 歲幣를 바치는 등 굴욕을 겪었다. 여진족의 급격한 崛起를 목도하면서 주변 민족들은 “여진족이 1만이 되면 천하가 그를 감당할 수 없다〔女眞一萬則天下不敢當〕”는 俗言을 실감하게 된다. 1368년 元을 고비사막 쪽으로 쫓아내고 중원을 차지한 明은 과거 송이 겪었던 ‘쓰라린 경험’을 염두에 두고 요동의 여진족에 대한 招撫와 지배에 부신했다. 여진족은 크게 建州女眞, 海西女眞, 野人女眞 등 크게 세 개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明은 여진족 내부에서 과거 아구다와

같은 覇者가 再臨하는 것을 막는 한편, 그들을 이용하여 몽골 세력의 남하를 견제하려는 양면적인 정책을 썼다. 명은 遼東都司와 奴兒干都司를 통해 만주 일대의 여진족들을 衛所에 편입하여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그들과 漢族 상인들 간의 교역을 통제하여 경제적으로 그들의 목줄을 장악하려 시도했다. 당시 여진족은 人蔘, 毛皮, 진주 등의 특산물로써 곡물, 소금, 면제품, 농기구 등 생필품을 교역했는데, 명은 명 황제 명의의 勅書(-일종의 교역 허가증)를 소지한 여진족 유력자들에게만 교역을 허용했다.

명의 여진에 대한 통제 정책은 1580년대까지는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寧遠伯 李成梁의 활약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建州左衛 首長의 아들이었던 누르하치(奴兒哈赤: 1559~1626)는 이성량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파란은 1583년에 일어났다. 이성량은, 명의 지배에 반기를 들었던 또 다른 여진족 수장 王杲의 아들 아타이(阿台)를 정벌했는데 이 정벌전에는 누르하치를 비롯하여 그의 父(-타쿠시 塔克世)와 祖父(-교창가 覺昌安)도 함께 명군의 일원으로 출전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르하치의 부친과 조부는 명군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명군에 의해 父祖가 살해되자 누르하치는 원한을 품은 수밖에 없었고, 이성량은 배상 차원에서 칙서 30통과 말 30필을 제공했다. 누르하치는 부조의 '피값'으로 얻은 칙서를 바탕으로 여진 지역에서 점차 교역권을 장악했다. 그리

고 그 과정에서 획득된 財富은 군사적 실력 양성의 바탕이 되었다.

1583년 거병한 누르하치는 먼저 주변의 건주여진 세력을 공략해 나가더니 1587년 휘알라(佛阿拉)에 舊老城이라는 근거지를 마련했다. 명은 누르하치의 성장에 놀라 그를 견제하기 위해 1589년 都督僉使 직위를 내렸다. 이후 명은 ‘아구다의 再臨’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누르하치를 견제하려고 시도했다.

1592년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것은 누르하치에게는 千載一遇의 기회였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조선을 침략하면서 “조선에서 길을 빌려 명으로 들어간다〔假道入明〕”며 사실상 ‘명 정복’을 공언했다. 그 동안 명의 눈에는 일개 ‘섬나라 오랑캐〔島夷〕’에 불과했던 일본이 명에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명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동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조선이 일본군 수중에 떨어질 경우 자국의 안전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명은 결국 조선에 구원군을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부대의 사령관이 李如松이었다. 그런데 이여송은 바로 이성량의 아들이었다. 요동에서 누르하치를 견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의 아들이 요동 지역의 명군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갔던 사실이 상징하듯이 명은 임진왜란 때문에 ‘한눈을 팔수밖에’ 없었다. 누르하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주변 여진 부족에 대한 공략의 고삐

를 바짝 당겼다.

누르하치의 공세에 위협을 느낀 해서여진과 내몽골의 코르친 부족 등 9개 部는 1593년 연합하여 누르하치를 공격했지만 실패했다. 누르하치는 1599년 해서여진의 哈達部를, 1607년 輝發部, 1613년 烏拉部를 잇따라 멸망시켰다. 누르하치의 공격에 휘말려 곤경에 처한 해서의 葉赫部는 명에 구원을 요청했고, 명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누르하치를 견제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부심하게 되었다. 요컨대 임진왜란의 발생은 누르하치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던 것이다.¹⁾

2) 17세기 초 後金の 성장과 조선의 대응

주변 여진족에 대한 정복 전쟁이 잇따라 성공하면서 영토가 늘어나고 자신감이 커지자 누르하치는 내부 정비에도 눈을 돌렸다. 1599년 滿洲 文字를 창제하고, 1603년 허투알라(赫圖阿喇: 오늘날 遼寧省 新賓縣)에 興京老城이라는 새로운 근거지를 마련했다. 이어 1615년 그 동안 장악한 다수의 부족들을 통합하기 위해 八旗制를 정비했다. 만주어로 '구사'라 불리는 軍團 8개로 조직된 八旗는 군사조직이자

1) 이 부분의 서술은 張晉藩·郭成康 1988 『清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金斗鉉, 1989 「清朝政權의 成立과 發展」 『講座 中國史 IV』, 서울 지식산업사; 小峰和夫, 1991 『滿洲-起源·植民·霸權』, 東京 御茶の水書房; 內藤湖南, 1993 『清朝史通論』, 東京 平凡社; 石橋崇雄, 2000 『大清帝國』, 東京 講談社; 閻崇年, 2002 『清朝通史-太祖朝』, 北京 紫禁城出版社 등 참조.

동시에 정치, 사회조직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누르하치는 이어 1616년 국호를 大金으로, 연호를 天命이라 칭하여 독립적인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

대금(=後金)의 건국은 명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명의 입장에서 누르하치의 행보는 이제 그토록 우려했던 ‘아구다의 재림’에 다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명은 해서여진의 葉赫部를 지원하여 누르하치에 맞서게 하는 한편, 명 상인들이 누르하치와 교역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명은 또한 누르하치가 柴河, 三岔河 등지에서 개간을 시도하는 것도 방해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했다. 누르하치는 명의 경제봉쇄 정책에 맞서 1618년 ‘일곱 가지 원한〔七大恨〕’을 내걸고 선전포고했다. 명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다. 그리고 병력을 이끌고 명의 전략 요충인 撫順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무순성 성주 李永芳은 변변히 싸우지도 않은 채 누르하치에게 투항했다. 누르하치는 무순 공략을 통해 明清交替로 가는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누르하치는 이후 인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정복 지역 주변의 漢人들을 납치하여 노동력으로 활용하려 시도했다.

무순성 함락에 경악한 명은 누르하치에 대한 총공격을 결심했다. 명은 누르하치의 본거지인 허투알라성에 대한 원정을 위해 병력을 동원하는 한편, 해서여진의 葉赫과 조선에 대해서도 원정에 동참할 것을 강요했다. ‘오랑캐를 이용하여 오랑캐를 친다’는 전형적인 以夷制夷策을 시도했던

것이다. 명은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명분으로 임진왜란을 거론했다. “임진왜란으로 조선이 망할 뻔했을 때 명군이 참전하여 조선을 구원했다. 그것은 ‘망해 가던 조선을 다시 세워준 은혜〔再造之恩〕’다. 이제 조선은 그 은혜를 갚아야만 한다.” 임진왜란 당시의 ‘은혜’를 빌미로 조선을 끌어들이어 누르하치와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 명의 의도였다.²⁾ 바야흐로 명과 후금의 대결 여파가 이제 조선으로까지 미치게 되었다.

일찍이 1592년 조선이 임진왜란을 맞아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누르하치는 조선에 원병을 파견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다. 당시 조선은 후환을 우려하여 그의 제의를 거부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강성해진 누르하치의 실체를 인식하고 향후 動向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다. 조선은 일찍부터 명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 순응해 왔다. 명은 ‘上國’이자 ‘父母國’이며 나아가 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恩人’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명에게 ‘오랑캐’에 지지 않는 누르하치가 정면으로 도전하다니? 조선은 몹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조선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격동하는 국제질서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2) 『明神宗實錄』 권569 萬曆 46년 윤 4월 乙亥, “戶科給事中官應震奏御奴三策……一在張威勢 奴北隣北關 南隣朝鮮 北關向與奴角 我每季拔火器兵五百佐之 朝鮮當倭變時 亦受我救援厚恩 宜借北關兵馬向道 搗奴右掖 調朝鮮鳥銃手二三千 同我兵由鴨綠山後搗奴左掖 此以順夷攻奴之大略也”

1608년 선조(宣祖: 1552~1608, 在位 1567~1608)를 이어 즉위한 광해군(光海君: 1575~1641, 在位 1608~1623)은 누르하치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세심한 대책을 마련했다. 누르하치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保安을 강화하는 한편, 羈縻策을 통해 그들을 다독이면서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누르하치가 조선을 침략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火炮 등 火器類를 생산, 정비하고, 유사시의 피난처로서 강화도와 남한산성의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였다.³⁾

가능하면 누르하치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상황에서 명이 ‘임진왜란 때 再造之恩을 베풀었다’며 조선에 원병 파견을 요구하자 사태는 심각해졌다. 본의 아니게 누르하치와의 싸움에 휘말릴 곤경에 처한 것이다. 광해군은, 조선이 임진왜란이 남긴 후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명의 요구를 거부하려 했다. 하지만 朝野의 신료들과 사대부들은 명의 파병 요구를 받아들여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맞서 심각한 논란이 빚어졌다. 그것은 ‘후금에 의해 촉발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 양상을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 의연히 명 중심의 질서를 고수할 것인가?’를 놓고 벌인 世界觀을 둘러싼 갈등이기도 했다.⁴⁾

3) 이 부분은 주로 한명기, 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를 참조.

4) 世界觀의 차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에서 농성하고 있던 상황에서도 그치지 않았다.

광해군은 명의 강요와 신료들의 채근에 밀려 결국 1만 5천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 하지만 1619년 杜松, 馬林 등이 이끌던 명군의 본진이 사르후〔薩爾滸〕전역에서 후금군에게 궤멸된 가운데 劉綎 휘하의 朝明聯合軍 또한 深河 전투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조선군 사령관 姜弘立은 남은 병력을 이끌고 후금에 투항했다.⁵⁾ 사르후 전역을 계기로 明清交替의 대세는 보다 뚜렷해졌거니와 이후 후금은 더욱 공세적으로 나아가 1621년 요동 전체를 장악하여 명과 조선을 압박하게 되었다.⁶⁾

‘심하 전투’ 패전 이후 광해군은 ‘조선군의 참전이 명의 은혜를 갚기 위해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환기시키며 후금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조선에서 또 다시 병력을 징발하려 했던 명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양단을 걸치는 대외정책을 구사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정책은 조선 내부의 반대론자들에 의해 ‘명을 배신한 패륜행위’로 매도되었고, 급기야 광해군은 1623년 仁祖反正에 의해 폐위되고 말았다.

1625년 누르하치는 수도를 盛京(-瀋陽)으로 옮기고 본격적인 요동 시대를 열었다. 승승장구해 온 누르하치는 그 여세를 몰아 1627년 山海關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寧遠城을

5) 陸戰史研究普及會 編, 1972 『明と清の決戦』, 東京 原書房; 黃仁宇, 1991 「1619年的遼東戰役」, 『明史研究論叢』 5輯, 江西古籍出版社 등 참조.

6) 閻崇年, 앞의 책(2002).

공격했다. 하지만 寧遠巡撫 袁崇煥은 마카오를 통해 서양에서 도입한 紅夷砲를 이용하여 후금군의 공격을 차단했고, 누르하치는 패전의 후유증을 안고 사망하고 말았다.

누르하치 사후 그의 여덟 번 째 아들인 홍타이지(皇太極: 1592~1643)가 칸(汗)으로 추대되었다. 홍타이지는 원숭환과 和議를 통해 시간을 벌며 내부 상황을 추스르는 한편, 1627년 조선을 침략했다(丁卯胡亂). 홍타이지가 정묘호란을 일으킨 목적은 복합적인 것이었다. 그는 비록 칸으로 즉위했지만 자신과 함께 四大王으로 불리던 다이산(代善), 아민(阿敏), 망굴타이(莽古爾泰) 등의 견제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홍타이지의 친형이거나 사촌형으로서 연장자들이었다. 특히 아민은 그의 즉위에 불만이 많았다. 홍타이지는 정묘호란 당시 아민을 조선 원정군의 사령관으로 삼아 그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견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홍타이지가 정묘호란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당시 조선의 椴島와 鐵山 등 평안도 연해를 거점으로 후금의 배후를 위협하던 명나라 장수 毛文龍을 제거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지척에 있으면서 遼民들을 받아들여 배후를 위협하는 상황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사실상 당시 가도와 청천강 이북은 명목은 조선 영토였지만, 수많은 漢人들이 몰려있던 지역이라 조선, 명, 후금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영역이었다.

후금의 입장에서 정묘호란 당시 조선을 정복하는 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다. 조선을 위협하여 자신들과 교역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 생필품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 정묘호란 당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했다. 하지만 인조반정 이후 내정을 추스르기에도 겨를이 없었던 조선은 후금과 전쟁을 벌일 처지가 아니었다. 후금 또한 원정이 장기화 될 경우, 배후에 있는 원숭환의 위협을 의식해야 했기 때문에 양자의 이해관계는 일정한 선에서 일치했다. 조선과 후금은 결국 兄弟關係에 입각하여 和親을 맹세하고, 조선은 이후 면포 1만 5천 필 등을 歲幣로 제공하며 開市貿易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⁷⁾

조선은 어렵사리 화친에 성공했지만 그것은 朝野로부터 광범한 비판에 직면했다. ‘광해군이 후금과 화친한 것’을 인조반정을 일으켜 그를 쫓아내는 명분으로 삼았던 것을 고려하면 인조정권이 후금과 화친한 것은 당연히 면목이 서지 않는 일이었다. 정묘호란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후금과의 화친했다는 것 때문에 후폭풍이 불 수밖에 없었다.

2. 병자호란의 발생과 南漢山城 항전의 國際性

1) 병자호란의 발생 배경

(1) 後金 勢力의 지속적 성장과 對明 攻勢

정묘호란을 통해 조선을 어느 정도 묶어 두었다고 판단

7) 한명기, 2009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서울, 푸른역사).

한 홍타이지는 이후 명과 몽골에 대한 공략에 몰두했다. 후 금군은 1629년 코르친(科爾親) 몽골 부족의 안내를 받아 만리장성 외곽의 喜峰口를 통해 명의 내지로 침입했다. 長城과 山海關을 철석 같이 믿고 있던 명은 허를 찔렸다. 이 원정에서 홍타이지는 북경의 皇城까지 위협하고, 북경 주변의 遵化, 永平, 灤州 등지를 剽掠하여 막대한 수량의 人畜을 획득했다. 동시에 貳臣 范文程이 제시한 절묘한 反間計를 사용하여 명의 崇禎帝(1611~1644, 在位 1627~1644)로 하여금 명장 원숭환을 스스로 처형토록 하는 성과까지 거두었다.⁸⁾

원숭환을 스스로 제거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명은 당시 사실상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원숭환의 죽음에는 ‘모문룡 주살’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東林黨과 奄黨, 浙黨 사이의 黨爭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양자는 내정의 현안은 물론 요동 방어를 둘러싼 방책을 놓고도 격렬하게 대립했다. 원숭환이 모문룡을 주살한 것은 동림당이 추구하는 요동 수복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모문룡과 ‘리베이트’를 통해 연결되어 있던 엄당과 그들을 추종했던 溫體仁 등은 결국 ‘1629년 皇城 기습전’을 계기로 원숭환과 錢龍錫 등을 숭정제에게 참소하여 그들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大局을 볼

8) 王思治 編, 1984 『清代人物傳稿』 上編 제1권, (北京, 中華書局) 95~97쪽.

줄 몰랐던 송정제의 무능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었다.⁹⁾

반면 후금의 홍타이지는 명에서 귀순한 貳臣들을 우대하고, 그들을 적절히 임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후금의 역량을 증강하는데 활용했다. 일찍이 范文程의 반간계를 통해 원숭환을 제거할 수 있었고, 1631년에는 명 출신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홍이포를 자체 제작하는데도 성공했다. 향상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홍타이지는 1631년 大凌河城을 공략하여 함락시키고 명나라 장수 祖大壽의 항복을 받아냈다.

한편 정묘호란을 통해 조선과의 화친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양국 관계는 쉽게 안정되지 않았다. 우선 모문룡이 설치했던 가도의 東江鎮이 계속 조선과 후금의 갈등을 유발하는 불씨가 되었다. 당시 청천강 일대에는 가도의 명군이 설치한 屯田들이 널려 있던 데다, 漢人들이 끊임없이 출몰하여 후금을 자극했다. 후금 지역의 한인들이 탈출하여 가도로 들어가고, 가도의 명군 지휘관들은 조선과 후금을 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을 습격하여 후금을 격앙시키고 있었다.

명과 君臣關係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은 樞島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군량 등 물자를 공급했다. 반면 조선은 후금을 ‘오랑캐’로 여기고 그들과

9) 福本雅一, 「陳眉公 明を亡ぼす」 『明末清初』 所收 (1984, 京都, 同朋舎出版)

의 화친을 '내키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후금의 역량이 날로 커지고 명을 계속 수세의 상황으로 몰아넣자 양국 관계는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었다.¹⁰⁾

(2) 借船을 둘러싼 朝金 갈등과 후금의 水軍 확보

1633년은 조선, 명, 후금의 관계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해였다. 조선이 정묘호란 이후에도 계속 靉島의 명군을 원조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후금은 조선을 협박했다. 가도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든지, 아니면 자신들이 직접 가도를 공략할 수 있도록 수군과 전함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미 막강한 陸軍 戰力을 보유하고 있는 후금이었지만 당시까지 수군과 전함을 갖추지 못하여 海戰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後金은 조선에 借船을 요구하면서 조선이 명보다 수군이 강한 나라라고 평가했다.¹¹⁾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조선 육군은 열세를 면치 못했지만, 수군은 이순신의 활약을 계기로 주변 국가들에게 상당히 강하다는 인상을 남겼던 것이다.¹²⁾

조선은 수군과 전함을 빌려달라는 후금의 요구를 당연히

10) 한명기, 2009 「정묘화약의 균열과 병자호란의 발생 과정」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所收, (서울, 푸른역사).

11) 『清太宗實錄』 권8 天聰 5年 5월 辛丑, “我軍尙未暗舟楫 爾國人操舟之善更勝於明 如念兄弟之好 宜與堅大戰船 每船各撥給善操舟之人 如此則前鋒可釋 儻以敗舟拙工 苟且充數 我兵萬一有失 則結怨豈淺鮮哉”

12) 한명기, 1999 「정유재란 시기 명 수군의 참전과 조명연합작전」 『軍史』 38, (서울, 國防軍史研究所).

거부했다. 명 또한 조선이 후금의 협박에 굴복하여 전함과 수군을 빌려 줄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들은 사신을 조선에 보내 빌려주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遼東, 遼西 지역을 장악했지만 山海關이라는 철옹성에 막힌 후금의 입장에서 수군과 전함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수군을 활용할 경우, 산해관을 우회하여 渤海灣 통해 天津과 山東 등지를 공격할 수 있었다. 그것은 명에게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마야흐로 후금이 수군을 갖게 될 경우 동아시아의 정세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선이 강력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후금의 차선 열망은 무산되었지만 1633년 후금은 마침내 수군과 전함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 해 明의 叛將 孔有德과 耿仲明 등이 함선과 수군, 그리고 紅夷砲까지 갖고 후금으로 귀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과거 모문룡의 부하들이었다. 모문룡 사후 명 각지를 떠돌다가 결국 반장으로 변신했고, 끝내는 후금 측에 어마어마한 선물을 넘겨주었던 것이다. 모문룡의 죽음이 몰고 온 후폭풍은 이래저래 거센 것이었다.¹³⁾

수군과 함선을 보유하게 된 후금의 군사적 역량은 한층 강화되었다. 후금은 이제 수군을 이용하여 '철옹성' 산해관

13) (清) 昭槤, 『嘯亭雜錄』 권1, 「收孔耿二王」. “皮島自誅毛文龍後 衆皆解體 孔有德等據登萊叛 爲明將擊敗 逃入海嶠 遊離無所歸 文皇帝聞之 乃命達文成公等往相撫綏 招孔耿二王至盛京 上親迎之都門 上賚甚厚 卽日授都招討印 命其兵爲天祐 故其將卒皆用命 尙平南沈續順等相繼歸降 明皮島遂墟”

을 돌파하지 않고도 天津, 山東, 旅順 등지를 직접 공략할 수 있게 되었다. 홍타이지가 꾸준히 추진해 온 貳臣들에 대한 포용 정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¹⁴⁾ 이제 조선 또한 후금 수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었다. 유사시 江華島 등 섬으로 피난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실제 1631년 홍타이지는 조선에 보낸 국서에서 ‘우리가 공격하면 조선은 오로지 섬으로 도망치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조롱했던 적이 있다.¹⁵⁾ 조선이 유사시 육지를 버리고 강화도로 播遷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수군과 전함을 확보했으니 조선은 海島로 파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후금은 실제로 이후 명과 몽골을 자유자재로 공략했다. 홍타이지는 1634년 차하르(察哈爾) 몽골 공략에 나서 내몽골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1635년 8월 차하르의 립단한(林丹汗)이 갖고 있던 大元帝國 전래의 옥새를 얻었다. ‘징기스칸의 嫡統’이라는 의미를 지닌 옥새를 획득했던 것이 갖는 정치적 의미는 컸다. 옥새 획득을 계기로 홍타이지는 天命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

14) 한명기, 2005 「17세기 초·중반 朝淸關係와 貳臣」 『북방사논총』 8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15) 『淸太宗實錄』 권8 天聰 5년 1월 壬寅, “爾若欲助明而輕我 我不必遣發精兵 止遣蒙古無賴者十萬人 往襲爾地 爾惟有遁逃海島而已 平原沃土能餘幾何 昔爾朝鮮在金時 降而復叛者再 元時 降而復叛者五六 叛則征 征則降 爾之長技……”

다. 실제 1635년 12월 滿·蒙·漢 출신의 諸臣들은 홍타이지에게 帝位에 오르라고 주청했다. 특히 명에서 귀순한 孔有德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홍타이지에게 황제 즉위를 勸進했다.¹⁶⁾

(3) 청의 稱帝 통고와 조선의 반발

그런데 제위에 오르라는 다국적 諸臣들의 주청을 접했던 홍타이지에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었다. 滿蒙漢을 아우르는 帝國을 만들려고 했던 홍타이지와 淸의 지향에 ‘아우 나라’ 조선이 끝까지 맞서고 있는 사실이었다. 홍타이지는 조선에 사람을 보내 조선도 자신을 勸進하는데 동참하도록 종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받은 龍骨大 일행은 몽골 출신 왕자들을 대동하고 1636년 2월 조선에 입국했다. 몽골 출신 왕자들을 대동한 것은 ‘몽골까지도 황제 즉위를 勸進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조선도 동참케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용골대 일행의 입국 목적 가운데 稱帝建元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조선의 斥和派들은 “하늘에 두 태양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천하에 두 황제가 있을 수는 없다”며 홍타이지를 비판했다. 심지어 홍타이지의 稱帝 사실을 알리려 온 청 使臣의 목을 베자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과거 후금

16) 石橋崇雄, 1994 「淸初皇帝權의形成過程」, 『東洋史研究』 53-1 참조.

과 맺은 형제관계를 파기하고 청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⁷⁾ 척화파들은 대의명분을 어지럽힌 청과 맞서 개인의 生死는 물론 국가의 存亡까지 걸고 결사 항전할 것을 주장했다. ‘오랑캐’의 僭濫한 주장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척화파들의 생각이었다. 전반적인 조정의 분위기는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를 권진하기는커녕 청과 맺은 기존의 丁卯和約마저 파기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척화파의 이 같은 근본주의적 주장에 맞서 崔鳴吉 등은 ‘그들의 稱帝 여부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며 그들을 당해낼 수 없는 현실에서 그들을 자극하여 宗社를 위기로 몰아갈 수는 없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나아가 그들에게 정묘년 당시 맺었던 ‘형제관계’를 계속 지키도록 할 것을 강조하자고 촉구했다.¹⁸⁾ 하지만 조정의 대세가 청과의 절교는 물론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主和派의 유화적인 주장은 상대적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홍타이지의 稱帝에 대한 조선의 반발과 저항은 1636년 3월, 홍타이지의 황제 즉위식이 열리던 瀋陽에서도 재현되었다. 당시 즉위식장에는 조선에서 春信使로 온 僉知 羅德憲과 同知 李廓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홍타이지에 대한 拜禮를 거부했다. 청군 장졸들로부터 무수한 구

17) 『仁祖實錄』 권32 인조 14년 2월 丙申.

18) 『仁祖實錄』 권33 인조 14년 9월 乙巳.

타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다.¹⁹⁾ 당시 滿洲 출신 관원들은 물론 몽골과 한족 출신 신료들까지 홍타이지에게 三拜九叩 頭禮를 행했던 상황에서 조선 사신들이 끝까지 拜禮를 거부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몹시 큰 것이었다. 그것은 滿蒙漢은 물론 조선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帝國을 지향하던 홍타이지의 열망에 재를 뿌리는 행동이었다. 나아가 청을 중심으로 움트고 있던 ‘새로운 질서’를 거부하고 조선은 의연히 명 중심의 ‘기존 질서’를 고수하겠다는 지향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정묘호란 이후 어렵사리 유지되어 왔던 조선과 청의 和親이 사실상 파탄을 맞이하는 순간이었다.

2) 南漢山城 항전의 국제적 의미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의 ‘본심’을 확인한 청은 조선에 대한 공격을 결심한다. 1636년 11월, 홍타이지는 조선 정벌을 하늘에 고하는 의식을 벌인 뒤 병력을 일으켰다. 조선이 끝까지 자신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것이 부담스러웠던 데다 명과의 決戰을 앞두고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 염려〔後顧之慮〕’를 없애기 위한 포석이었다. 12월 9일 선발대가 압록강을 건넌 후 청군의 鐵騎는 질풍같이 남하했다. 12월 13일 청군은 이미 조선군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던 安州를 지났다. 조선은 개전 초기 적의 동향을 정확히 탐지하는데 실패하여 청군이 渡江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조정에 급보가

19) 羅萬甲, 『丙子錄』 「記初頭委折」



남한산성 서문전투도

날아들었다. 나아가 都元帥 金自點 등이 결전을 회피했던 것 등이 맞물려 청군은 거의 무인지경을 달리듯이 남하했다.²⁰⁾

이렇다 할 준비 없이 침략을 맞은 조선 조정은 애초 피난의 대상지였던 江華島로 들어가는 길이 막히자 南漢山城으로 밀려들어갔다. 남한산성은 천하의 요새였지만 문제는 군량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던 점이었다. 조선 조정은 ‘출고 배고픈’ 남한산성에서 45일을 버티며 청에 맞섰다. 청군이 압록강을 건넌 이후 인조가 三田渡에 나아가 항복할 때까지의 戰況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의 日誌와 같다.

- ◆ 1636년 12월 9일 : 청군 압록강을 건너 침략 개시
- ◆ 13일 : 청군 安州로 도달
- ◆ 14일 : 청군 개성 도착. 서울은 공황 상태. 崔鳴吉이 적진에 가서

20) 병자호란의 戰況에 대해서는 柳在城, 1986 『丙子胡亂史』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참조.

講和를 청하는 사이 인조는 수구문을 나가 南漢山城 도착.

영의정 金瑬는 다시 강화행 주장, 눈보라 때문에 포기.

- ◆15일 : 청군 王弟 등을 인질로 보내라고 요구.
- ◆16일 : 인조, 밀서를 보내 勤王兵 호소.
- ◆17일 : 인조, 올면서 斥和派 원망. 청군, 삼남으로 이어지는 길 판 교에서 차단.
- ◆19일 : 적이 산성으로 접근하자 아군이 화포 발사하여 격퇴.
- ◆20일 : 청 태종이 개성 도착.
- ◆26일 : 강원도 근왕병이 검단산에서 패배.
- ◆27일 : 적진에 술과 고기를 가져감. 적장은 “끓주린 너희나 먹어라” 운운.
- ◆28일 : 최명길이가 다시 화의를 시도하자고 청.
- ◆1637년 1월 1일 : 청 태종이 炭川에 設陣. 적병이 30만이라는 소식.
- ◆3일 : 斥和, 主和를 놓고 다시 격렬한 논쟁 발생
- ◆6일 : 金尙憲이 청군 진영에 사신 보내는 것 반대.
- ◆14일 : 날씨가 추워 얼어 죽은 군사 출현.
- ◆15일 : 적 사신이 항복을 재촉하는 가운데 성안에 포탄이 날아옴.
- ◆16일 : 적이 척화신 2~3인을 묶어 보내라고 요구.
- ◆17일 : 조정이 斥和臣들에게 자수 권유, 鄭蘊이 적진으로 가겠다고 자원.
- ◆18일 : 최명길이가 항복하는 내용의 국서를 쓰고 김상헌은 그를 찢다.
- ◆19일 : 김상헌이 적진으로 가서 죽겠다고 자원.
- ◆21일 : 적 포탄이 하루 종일 날아와 성첩이 모두 파괴됨.
- ◆22일 : 군사들 斥和派를 묶어 보내라고 시위 벌임. 강화도 함락 소식이 들어옴. 인조는 세자를 보내 항복하러 시도, 적은 인조의 출성 재촉.
- ◆28일 : 청이 항복조건 제시: 명과의 관계 포기·왕자 인질·명을 치는데 필요한 원군 파견·군비강화 불허·세폐 증액 등등 김상헌과 정온이 자결을 시도.

◆29일 : 斥和臣 尹集과 吳達濟를 적진에 박송

◆30일 : 인조. 三田渡로 나아가 三拜九叩頭를 행하고 항복

위의 日誌를 통해 엿볼 수 있듯이 조선은 고립된 南漢山城에서 악전고투를 벌이다가 결국 청에 항복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남한산성에서의 농성과 저항, 그리고 항복은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는 것일까?

(1) 新·舊 世界秩序와 認識이 충돌했던 거점으로서의 南漢山城

병자호란이 발생하고, 조선이 청에게 맞섰던 것은 기존의 ‘明 중심의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淸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던 추세의 일환이자 그 추세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었다. 조선 사대부들은 유년 시절부터 華夷論에 입각한 이원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漢族의 王朝만이 中華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오랑캐 [夷狄]’라는 인식이었다. 더욱이 夷狄이 성하여 中華를 능멸하는 것은 세계질서가 顛倒되는 것이므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고 인식했다. 斥和를 주장했던 趙綱이 병자호란이 일어난 직후 경기도의 士民들에게 義兵을 일으켜 봉기하라고 촉구하면서 내걸었던 檄文의 내용은 그것을 응변한다. 그는 청은 만세불변의 질서를 어그러뜨린 ‘不共戴天의 怨讐’이므로 조선의 사민들은 生死·存亡·強弱을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절규했다.²¹⁾ 그것은 청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는 여기는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이자 궁극에는 명 중심의 기존 질서를 의연히 고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같은 조선의 지향에 대해 청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들은 명을 세계의 중심이자 天下 그 자체로 여기는 조선의 인식에 격렬히 반발했다. 그들은 조선이 “임진왜란 때 명이 天下의 병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명을 배신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자 당장 그것을 반박한다. 즉 “천하는 커서 그 속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명은 그 가운데 一國일 뿐인데 조선은 어찌 천하를 들먹이냐”며 힐난했다.²²⁾ 명을 둘러싼 조선과 청의 世界觀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대목이었다.

조선 신료들 가운데서도 명 중심의 기존 질서는 인정하되 ‘조선이 명을 위해 스스로 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崔鳴吉이다. 그는 조선의 신하된 자가 조선의 임금에

21) 趙綱, 『龍洲遺稿』 권12 「告京畿列邑守宰及卿大夫避亂人等同興義旅以討虜賊檄」, “嗚呼 皇天不弔我國家 逆胡猖獗 無故冢突 曾不數日 奄迫京城 廟社顛倒 乘輿播越 三里孤城 守衛單弱 會稽之棲 無加恥矣…… 奴之悖亂 至於僭號 聖上斷以大義 輒絕信使 辭旨凜凜 聳人耳目…… 然則我國今日之被寇 實天下萬世君臣父子者定 凡我東方食土血氣之民 宜各自感激我上之義 懸膽而嘗 枕戈而宿 誓不與此賊共戴皇天 死固不足爲患 亡固不足爲憂 滅固不足爲恥 強弱非所論也”

22) 『清太宗實錄』 권33 崇德 2년 1월 丁巳, “勅諭朝鮮國王李倬曰… 又云 壬辰之難 旦夕且亡 明國神宗皇帝動天下之兵 拯救生民于水火之中 夫天下太矣 天下之國多矣 救爾難者 止明朝一國耳 天下諸國言兵 奇盡至耶 明與李國誕妄過大爲言 何以終不已耶”

게 명을 위해 亡國의 길로 들어서라고 강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막기 위해 秦檜 같은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써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²³⁾

요컨대 청은 ‘명=천하’로 여기는 조선의 인식을 망령되다고 비판하면서 조선을 굴복시켜 자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수립하려고 기도했던 것이다. 남한산성은 바로 그러한 충돌의 현장이었던 셈이다.

(2) 漢陽(-남한산성)→ 椴島→ 瀋陽→ 山海關→ 北京→ 江戸의 연쇄 여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산성의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다. 추위는 기승을 부리는데 식량은 줄어들고, 고대하던 외부 구원군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청군이 직접 攻城戰을 벌이지 않더라도 조선이 스스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럴수록 청의 항복 조건은 더욱 가혹해져 가고 있었다. 앞친데 덮친 격으로 추위와 기아를 참으며 수성에 참여했던 병사들 가운데서 ‘척화신들을 묶어 보내라’는 시위가 발생하자 산성의 분위기는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다. 급기야 인조와 조선 조정이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강화도마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산성의 저항 분위기는 결정적으로 꺾이고 말았다. 인조는 出城하여 투

23) 崔鳴吉『遲川先生遺集』 권23 「答仲弟參判惠吉書 “且海東之人 既是東國之臣 則爲吾君不亡吾國之道 其可乎 爲明朝勸吾君以亡其國 可乎…… 故如我不肖之臣 不計身名之陷於大罪 誤蒙秦檜之惡名 而敢進行權之下策…”

항하는 수밖에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선의 항복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조선 자체로 보아도 엄청난 患亂이자 치욕이었지만 당시의 국제관계에서도 연쇄적으로 중요한 파장들을 몰고 왔다.

조선은 사실상 당시 무너져 가고 있던 명의 마지막 후원자였다. 그런 조선이 청에 항복하여 굴복한 것은 명이 이제 四面楚歌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의미했다. 일찍이 병자호란 발생 직전 조선에 왔던 명의 監軍 黃孫茂는 조선이 가진 이 같은 위상을 고려하여 최명길 등에게 ‘조선이 무리수를 두다가 청에 유린되면 곤란하다’는 생각을 전달한 바 있었다.²⁴⁾ 청이 조선을 완전히 굴복시킬 경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명을 향해 공격해 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명의 마지막 후원자’가 숨을 거두자 그 여파는 명으로 미쳤다. 청은 우선 명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뒤를 돌아보아야 하는 염려〔後顧之慮〕’를 없앨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을 복속시켰다는 것, 특히 수군을 활용하여 강화도를 함락시킨 것은 커다란 자신감으로 다가왔다. 청은 이제 과거 ‘명의 가장 충순한 藩國’이었던 조선을 복속시키고 그 군사력을 동원하여 명을 공격하는데 활용할 수 있

24) 崔鳴吉, 『遲川先生集遺集』 권2 「回咨黃監軍孫茂」 “今承大人之來論 許多忠告 且伏聞太祖高皇帝遺教 則小邦之存不存 姑舍勿論 中朝之聲援 不無失勢之慮云 天下大勢若然 則小邦徒守區區之義理 不思天下之大計者 非但小邦失其謀國之道 抑亦爲天朝失計也 初以一片忠悃 欲爲天朝 而返以一時義聲 貽害天朝 則當職處事之不善 是誠噬臍而莫及也”

게 되었다. 실제 그 여파는 당장 평안도 앞바다에 있던 명군의 거점인 椴島를 향해 미쳤다. 孔有德 등이 지휘하는 청수군은 조선에서 징발한 수군과 화기수와 함께 가도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가도가 함락되자 그 여파는 山海關까지 미치게 된다. 청은 1642년 명의 松山, 錦州, 塔山, 杏山 등지를 함락시켜 산해관의 바깥을 완전히 평정했다. 산해관 바로 너머의 北京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조선 측 기록에서는 조선군 화기수가 1639년부터 1642년까지 이어진 청군의 錦州, 松山, 杏山, 塔山 공략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서술했다. 훗날 인평대군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조선군의 사격 솜씨가 매우 뛰어났다는 것, 그 때문에 명군이 논공행상을 할 때, 만주군의 목에 걸었던 상금보다 조선군에게 걸었던 상금이 배나 많았다고 기록한 바 있다.²⁵⁾

‘瀋陽’에는 어떤 여파를 미쳤을까? 청은 조선을 제압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성과를 얻었다. 자신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려 했던 자존심 강한 조선을 굴복시킨 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가 몹시 컸다. 이제 무엇보다 滿蒙漢뿐 아니라 조선까지 청의 軌道 안으로 끌어들여 제국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명에 대한 전면적인 포위망을 설정할 수 있었다. 병자호란 직후인 1637년 7월, 홍타이지는 명나라

25) 한명기, 앞의 책(2009), 214쪽~227쪽 참조.

장수 祖大壽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같은 자신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바 있다. 그는 편지에서 조선이 자신의 ‘股肱之臣’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그러면서 명과의 전쟁에서 조선군의 전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병자호란은 필연적으로 朝日關係에도 변화를 몰고 올 수밖에 없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에게 일본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원수〔萬世不共之讐〕’였다. 그런데 정묘호란을 계기로 조선이 위기에 처하자 임진왜란의 ‘原罪’ 때문에 한 때 ‘수세’에 처했던 일본의 對朝鮮 태도가 달라진다. 대륙으로부터의 外壓을 막아내기에 겨를이 없었던 조선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현상을 유지, 관리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쓰시마의 소오씨(宗氏) 등을 포용할 수밖에 없었다. 병자호란의 발생은 대일관계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조선이 처한 ‘심각한 곤경’을 인지한 쓰시마는 사절을 파견하여 무기와 화약 등의 원조론을 흘리면서 조선과 청의 동향을 탐색하고자 했다. 조선은 병자호란의 발생과 항복 사실을 일본 측에 필사적으로 숨기려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병자호란 발생 직후 쓰시마는 조선에 와서 한편으로 上京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7개조의 사항을 요구했다. 그것은 조선의 守勢를 이용하여 조일 교섭에서 쓰시마의 격을 높이고,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였다. 실제 조선은 그 요구의 대부분을 수용했다.

한편 병자호란을 계기로 조선에서는 청의 압박을 회피하

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趙綱 같은 신료는 “일본과 誠信으로 교린하여 힘을 빌려 청을 견제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을 폈다. 일종의 以倭制清論이었다.²⁶⁾ 요컨대 병자호란을 계기로 일본은 임진왜란을 도발한 원죄를 어느 정도 벗어던지고 조선의 ‘友邦’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3) 대규모 디아스포라와 새로운 世界認識 胚胎의 출발점

병자호란은 또한 숏한 비극을 낳았다. 무엇보다 처참한 것은 바로 ‘포로 문제’였다. 인조와 조선 신료들이 南漢山城에서 농성하는 동안 서울과 경기도 일대, 그리고 그 이북 지역에서는 청군의 ‘포로 사냥’이 자행되었다. 당시 청으로 끌려갔던 被擄人의 숫자는 최대 50만 정도까지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수의 인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무엇보다 끌려갔던 포로 당사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남아 있는 혈육들은 그들대로 혈육과 離散하는 아픔을 겪었다. 여기에 청에서 탈출해온 도망자들의 처리를 둘러싸고 朝淸 사이에 갈등이 빚어졌고, 贖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속환되어 돌아온 이른바 還鄉女들과 본래 남편들의 이혼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는 등 포로 문

26) 한명기, 「병자호란 무렵 조선의 대일정책과 인식」, 앞의 책(2009) 所收.

제는 조선에 복합적인 정치·사회경제적 과제들을 남겼다.²⁷⁾

병자호란 당시 청군이 수십만에 이르는 조선 포로들을 끌고 간 것은 일찍이 없던 인구 유출이자 디아스포라였다. 위로는 소현세자로부터 밑으로는 이름 없는 하층의 노비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유출되면서, 또 그들이 속환이나 도망 등을 통해 조선에 다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났다.

우선 조선인과 청인들 사이의 유례없는 대규모 접촉을 낳았다. 비록 전쟁과 被擄라는 비정상적인 계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만 대규모의 다양한 접촉은 상대에 대한 認識을 바꾸기 마련이다. 특히 지식인들의 경우 애초 청에 대한 원한과 적개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지만, 瀋陽 등지에서 일정 기간 이상 恒居하면서 그들과 접촉한 결과 인식의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昭顯世子를 陪行하여 瀋館에 머물렀던 金宗一 같은 인물은 심관에서 직접 목도했던 청의 건전하고 질박한 궁정 생활, 기강이 잡힌 정치 풍토, 관대한 對民政策 등을 근거로 청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했다. 심지어 그들을 ‘천하무적’이라 평가하면서 자연

27) 森岡康, 「贖還被擄婦人の離異問題について」, 『朝鮮學報』 26, 1963; 朴容玉, 「丙子亂被擄人贖還考」, 『史叢』 9, 1964; 森岡康, 「丁卯亂後における贖還問題」, 『朝鮮學報』 32, 1964; 森岡康, 「許博の疏文と贖還批判 上・下」, 『朝鮮學報』 37·38, 39·40, 1966; 金鍾圓, 「初期 朝清關係에 대한 一考察—丙子胡亂時の 被擄人 問題を 중심으로」, 『歷史學報』 71, 1976; 森岡康, 「朝鮮捕虜の清國の價格について」, 『東洋學報』 66, 1985 등 참조.

스럽게 조선과 명의 현실을 돌아보기도 했다.²⁸⁾ 또 소현세자의 경우 1644년 北京에 들어가 예수회 선교사 아담 샬(湯若望)과의 만남을 통해 천주교와 서양문물에 접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대단히 비극적이고 역설적인 계기였지만 남한산성의 항복은, 미약하나마 조선 지식인들의 對外認識에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다. 비록 김종일이나 소현세자 등이 심양이나 북경에서의 체험을 통해 얻었던 객관적인 對淸認識이 쉽게 계승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후 조선 사회에 미약하게나마 잠복해 있다가 이른바 北學派들이 등장하는 18세기 후반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병자호란 당시 항전의 중심지였던 남한산성은 ‘민족 항전의 성지’의 의미를 넘어 당시의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였다. 이제 그 의미를 부연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5세기 이후 명 중심의 중화적 세계질서에 순응해 왔던 조선에게 ‘오랑캐’ 출신 누르하치가 후금국을, 홍타이지가 청 제국을 건국한 것은 충격을 넘어 ‘天地가 뒤바뀌는 破天荒의 현실’이었다. 따라서 조선은 1627년 정묘호란 당시 후금과 ‘형제관계’를 맺었지만 그것은 ‘오랑캐와 마지못해 맺

28) 한명기, 「병자호란 직후 대청인식의 변화 조짐」, 앞의 책(2009) 所收.

은 내키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했다. '내키지 않으니' 이후 후금과의 관계는 뼈적거릴 수밖에 없었다. 병자호란의 발생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조선이 청이 稱帝하는 것을 거부하고 의연히 명 중심의 질서를 고수하려 시도하면서 병자호란이 발생했거니와 조선 조정이 농성하고, 청군이 포위했던 남한산성은 '기존의 세계질서'와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질서'가 날카롭게 맞부딪히는 현장이었다. 또 내부의 조선 신료들 사이에서도 斥和-主和 논쟁이 지속되면서 남한산성은 안팎으로 世界觀을 둘러싼 대립의 장소가 되었다.

조선이 결국 청에 항복하게 되면서 남한산성은 국제질서와 역학 관계 변화의 餘波가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震源이 되었다. 명에게 조선의 항복은 '마지막 후원자'의 소멸을 의미했다. 그 여파는 곧바로 椴島를 거쳐 遼東을 지나 山海關을 통과하여 北京으로 미쳤다. 청이 조선을 항복시킨 것은 滿蒙漢을 넘어 조선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했다. '자존심 강하고 충성스러운 명의 藩國'을 제압한 것은 瀋陽이 이제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장애물을 제거한 의미를 갖는다. 조선의 被侵과 항복 사실은 對馬島를 통해 江戸의 德川幕府에도 여파를 미친다. 자신들을 '오랑캐'로 여기던 조선이 또 다른 '오랑캐'에게 굴욕을 당하는 곤경을 목도하면서 일본은 느긋해진다. 이제 '임진왜란을 도발한 怨讐'

라는 오명을 어느 정도 벗어던지고 조선에 대해 적어도 ‘友邦’으로 행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나아가 조선의 곤경을 기회로 조선으로부터 더 많은 사회경제적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다.

남한산성은 또한 조선사에서 일찍이 없던 디아스포라의 출발점이었다. 南漢山城의 下城과 함께 수십만의 생령이 심양으로 끌려간다. 이산의 고통과 슬픔 속에 속환과 도망을 둘러싸고 수많은 갈등과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나아가 다양한 접촉이 조선인과 청인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강제적인 대규모의 디아스포라를 통해 역설적이지만 조선인의 사고 공간이 瀋陽을 거쳐 北京은 물론 西洋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목도한 청의 실상과 현실은 조선 지식인들이 지녔던 기존의 華夷觀에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청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조선에서 받아들여지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요컨대 17세기 초반의 南漢山城은 동아시아의 세계질서와 조선 사람들의 세계인식이—격렬한 논쟁과 첨예한 갈등을 거치면서—轉變하게 되는 ‘역사적 거점’이자 ‘문제적 장소’였던 것이다.

10년의 남한산성 변화를 지켜보면서

전 보 삼

철학박사, 신구대학 교수

남한산성은 호국의 승군으로서 조선 팔도 도총섭인 벽암 각성 대사를 비롯한 호국의지가 서린 산성이요, 삼학사를 중심으로 조선 선비의 정신이 있는 곳으로서 만해의 애국 정신과 지조의 정신을 널리 퍼는데 이보다 더 좋은 장소가 없겠다고 생각하여 만해기념관을 서울 성북동 심우장에서 남한산성으로 옮기게 되었다.

1990년 남한산성내에 만해기념관을 이전 재개관하면서 필자는 남한산성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의 남한산성은 민족자존의 성지로 표현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까지 남한산성은 치욕적인 장소요 패전지로서 굴욕적인 장소라는 자괴감에 쌓여있었고 남한산성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계의 문화 중심은 성(城)에 있고, 그러므로 유

립은 궁정문화라 할 수 있다. 귀족문화의 뿌리가 성(城 :
 Castle)에 있음은 역사의 가르침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산성은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처다. 더욱이 남한산성
 내에는 조선의 행궁 즉 남한행궁이 있어 궁궐 문화의 또 다
 른 측면을 설명하는 귀하고 고급스러운 문화의 전당이였다.
 그러나 이 전통문화의 단절과 비애가 짙터 산성의 올바른
 인식과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다. 문화 중심 시각으로 보았
 을 때 남한산성은 우리역사의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음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 각종 언론에 칼럼을 쓰기 시작하였다.
 1995년 3월 4일 경인일보 토요 에세이 란에 “남한산성은 치
 욕의 땅인가” 라는 글을 실었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
 적이고, 강한 의문을 던지는 글이였다. 그리고 각종 언론에
 “현절사 가는 길 서글프다.” “삼학사는 누구인가” “이 가을



남한산성에 오르자“ 라는 칼럼을 통하여 남한산성에 대한 재인식의 발판을 삼았다. 그리고는 본격적인 학술논문으로 남한산성 축성의 1등 공신인 조선팔도 도총섭 “벽암 각성 대사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본격적인 논문(성남문화연구 제1호 1993년)발표를 시작으로 “남한산성의 민족정신 연구 ((성남문화연구 제2호 1994년). 인조대왕 실록에 나타난 남한산성 위상 연구(성남문화연구 제3호 1995년), “남한산성 문화재 현황과 보존 책에 관한 연구(성남문화연구 제4호 1996년)를 차례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96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병자년이었다. 병자호란의 역사가 360년 만에 되돌아 온 해였다. 60갑자가 6회째 돌아 온 해였다. 그것을 회고하고 자리 매김하기 위하여 “남한산성의 현대적 재조명“이라는 국제학술회의가 한·중·일 3국의 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띤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남한산성에 대한 기존의 식민지 사관에 의한 자괴감을 단번에 쓸어내는 쾌거를 맞보면서 남한산성에 대한 재조명의 발판을 새롭게 놓게 되었다. 그리고 국제학술회의가 일회성의 행사를 지향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남한산성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남·사·모)을 창립하여 시민운동 차원으로 남한산성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하였다. 특히 지역 교육계의 호응에 힘입어 교장, 교감선생님과 교사를 위한 남한산성 학교를 열어 열띤 토론을 벌리기도 하였다.

이즈음 경기도 임창열 지사님께서 남한산성에 대한 지대

한 관심의 표명으로 1998년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문화유적 종합지표조사가 시행 되었다. 그리고 1998년 10월에는 남한산성 복원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1999년 6월에는 남한산성 종합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계획이 수립되었다. 2000년에는 남한산성 복원 추진 정비 사업 연도 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1999년 본격적인 남한산성 복원 정비 기획단이 꾸려졌다. 드디어 2001년 남한 행궁의 상량식과 고천무가 올려 퍼졌다. 10여 년 동안 지속적인 발굴 작업이 진행되어 조선시대는 물론 백제,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다양한 문화유산이 쏟아져 나오면서 10년 동안 남한산성은 여론의 중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통일신라시대의 초대형 기와가 무더기로 출토되는 현상을 맞아하기도 하였다. 기와 한 개의 무게가 20kg이나 나가는 초대형 기와가 필요한 건물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상상이 가지 않는 규모의 건물임을 확인하였고, 그 시대에도 이미 남한산성은 주목 받은 장소였다는 것과 그곳이 결국 주장성(남한산성의 또 다른 이름)임을 확인하였다.

2002년 1월부터는 경기도가 경기문화재단내 남한산성 복원 정비 추진 기획단을 발족시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남한산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그 첫 번째 결과물로 2003년에 남한행궁의 상궐의 내행전인 정전이 준공되고, 마침내 2004년 8월 16에는 남한행궁의 좌전 복원공사가 준

공되었다. 2008년 3월에는 남한산성 행궁지 8차 발굴조사가 완료되면서 행궁지 발굴조사 사업의 대미가 완성되었다. 2009년 3월 1일 남한산성 문화 관광 사업단이 출범되었다. 사업단에는 기획 사업팀과 문화유산 팀 등으로 나누어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2009년 7월 8일 남한행궁 하궐 상량식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여 고유제를 지냄으로써 남한행궁 권역 정비 사업의 1단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9년 8월에는 남한산성 역사관 구조 변경 공사가 착공되어 남한산성의 또 하나의 명소로 탈바꿈 되리라 본다. 2010년 10월 24일에는 한남루 누각의 준공식까지 마쳤으니 남한산성 행궁권역의 건축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 2011년 새봄이 오면 남한행궁과 관아거리의 조경 공사가 완료됨으로써 1차 계획은 마무리가 된다.

지금까지의 사업 내역을 다시 정리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남한 행궁 정비 사업 기간으로는 2000년~2009년까지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업비는 528억 원이 소요되었다. 사업내용으로는 - 성곽보수:2,550m(성곽 총연장 11.76km/본성 9.05km, 외성 2.71km) - 행궁복원:252.5칸(상궐 72.5칸, 좌전 26칸, 하원 154칸) - 행궁권역 정비:30,685㎡(관아거리, 탐방안내소, 광장, 전통담장 등)등이다.

그리고 한옥단지 조성 사업으로 사업지구내 거주민에 대한 이주 대책으로는 한옥 이주 단지 조성 사업이 시행되었



다. 이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원 계획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경기문화재단과 광주시가 부담하였다. 한옥 건축비 지원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광주시는 한옥보조금지원조례 제정을 2006년도 6월에 제정하여 세대 당 7천 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 되고 있다. 그러므로 행궁권역내의 음식점들은 이축지에서 새로운 한옥 마을로 재탄생되었다. 남한산성 마을이 한옥 마을로 아름답게 재탄생되어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세계의 건축가들도 다 인정하는 한옥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당당한 수준 높은 건축을 보기 위하여서도 남한산성을 찾을 것으로 본다.

남한 행궁의 상궐권역은 내행전, 남행각, 북행각, 재덕당 그리고 앉아서도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광주유수의 집무처인 좌승당과 종묘 좌전 공간에는 조선왕조의 역대 임금

의 신위를 모신 정전과 영령전이 완성되었고 하궐 권역에는 임금님의 집무처인 외행전과 한남루의 2층 누각의 위용을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인화관을 중심으로 하는 관아 거리에는 조선시대의 행정기관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구성되면서 당시대의 최고의 건축과 임금님을 중심으로 한 복식문화, 음식문화와 각종 궁중 생활사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탄생되면 남한산성의 자존심은 물론 조선 왕실의 위용을 통하여 민족문화의 자랑스러운 터전을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과 삶의 예지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펼쳐 질것이다.

이제 우리는 남한산성 행궁과 관아거리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그 동안 잃어버렸던 남한산성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민족사의 치열한 삶의 현장인 남한산성의 지혜를 터득하여 민족 역량의 자긍심과 표상의 장소로 자리 매김 해야 한다. 이쯤 되면 내년 봄이 기다려짐은 물론 남한성이 있어 민족 문화의 자긍심을 자랑할 수 있다.

전보삼

한국박물관협회장

전통을 계승하는 광주의 도예가

이 은 실

경기도지박물관 학예연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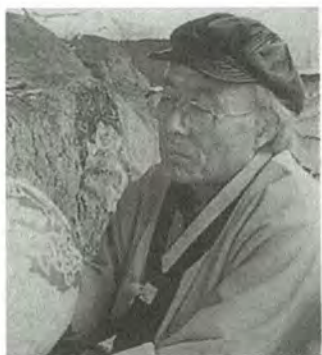
광주 분원은 민영화 이후 명맥만을 유지하다가 1930년경 와해되고 만다. 1926년에 간행된 『조선의 요업』 공장상태 표본을 보면, 광주군에는 자기 생산공장이 1개소주인 변주국, 분원리로 일제강점기 전후로는 도자기를 생산했다는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도자생산은 1960년대 이후 재개되었다고 하겠는데, 당시의 상황을 광주지역으로 한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광주지역에 설립된 요장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60~1970년에는 4곳, 1971~1980년에는 12곳, 1981~1988년에는 9곳 등 모두 25곳이 설립되었다. 이후 2006년 광주지역의 요장이 모두 71곳으로 46곳이 늘어났다. 1960년대 민속도자기연구소 안동오요를 시작으로, 1970년대 중후반에는 박부원(도원요), 최근식(분원요), 이후락(도평요), 김영수(경안

요), 구성회(미도요), 이광(백담도요), 김기철(보원도요), 한일상, 윤광조 등이 요장을 설립한다.

1962년 지순택으로부터 동에 입문한 박부원은 1966년 고려도요 공장장으로 지순택 문하에서 도자기 기술을 터득하고 재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지와 유약 연구를 위해 수많은 실험을 거듭하였다 1974년경 이천에 도원요를 설립하였다가, 이듬해 광주로 이주해 지금의 도원요 자리에 있던 가마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1976년 한국도



광주왕실도자기 초대 명장 박부원



백자달항아리(박부원, 2008년 작)



도자 장인 한일상



백화청화난초문호(한일상, 1990년 작)

에 5인전(일본오사카)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다수 개최하였으며, 2008년에는 광주왕실도자기 초대 명장으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11월 '지당 박부원 고회기념전(이천세계도자센터 전시실)을 열어 백자달항아리, 분청사기, 흑유기 등 다양한 도자기를 출품, 전시하였다. 그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도자 발전이야말로 세계화를 향한 길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매진하고 있으며, 아들 수열과 딸 소영이 대를 이어 열심히 제작, 연구하고 있다. 도원요에서 일했던 장인으로는 권영배(백산도요:이천), 박상진(개천요:광주), 나용환(태원도요:이천), 이해곤, 김영잔(송강요:이천) 등이 있다.

같은 시기에 이강세(우출요)가 숙부 이용노 화백의 권유로 화가에서 도예가의 길로 들어서 광주에서 철화를 이용한 작업을 하였으나, 현재는 평택에서 제작활동을 하고 있다. 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도 이 시기에 도평요를 설립하였고, 1978년경 여주의 서울요업에서 일하던 한일상도 도평요에 합류하였다. 그는 1994년 이후락으로부터 도평요를 인수받아 현재는 아들 우람과 함께 조선백자 재현과 계승 발전에 주력하고 있다.

1977년에는 이광이 고려도요에서 나와 광주로 이주한다. 그는 일본 출생으로 4세 때 가족과 함께 경북 성주 토기마을에 들어왔다. 토기장이였던 신라 토기 빚기를 사사받고, 1970년부터 이천의 고려도요에서 성형실장으로 일하였고,

1977년 백자 제작연구를 위해 김기철과 함께 보원도요를 설립하여 수많은 백자 소지와 유약 실험을 거듭하며 백자 제작에 매진하였다. 1982년 경 독립한 이광은 백담도예연구소(현 백담도요)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조선백자 계승을 위해 아들 태훈과 함께 도자 제작에 전념하고 있으며, 백담도요에 있던 동기로는 김도형(무농동연구소), 박철원(이당요) 등이 있다.

보원도요 김기철은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어 교사를 하다가 도자기에 매료되어 무작정 이천으로 들어와 고려도요에서 도자기를 배우기 시작하였고, 이곳에서 성형장인 이광(백담도요)을 만나 함께 보원도요를 설립하였다. 현재 그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장작가마만을 고집하여 백토를 이용한 무유소성의 독특한 도자기 제작에 힘을 쓰고 있다.

경안요 김영수는 도공의 아들로 태어나 1960년대 서울 암사동 광진요업에서 일하면서 도자기와 인연을 맺고, 1970년대 초 이천 수광도요(이정하)에서 흙밟기부터 물레와 가마 작업에 이르기까지 도자기 제조 과정 전반을 익힌 뒤, 1978년 광주에 경안요를 설립하였다. 그는 일본과 한국에서 개인전 및 그룹전을 다수 개최하고, 공모전에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제주도 화산토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여 '제주흑자'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2002년 제주도 제주요를 설립하였고, 현재

그곳에서 아들 형진과 함께 화산토를 이용한 도자기를 제작하고 있다.

1979년에는 대학 출신 도예가 윤공조가 광주에 한옥을 지어 작업실을 마련하고 분청사기 작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세상사로부터 초연함을 더하기 위해 1995년 경주 도덕산 산골로 이주한 뒤, 세상의 복잡함과 단절한 채 오로지 분청사기 작업에만 매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1960~1970년대 광주지역에서 제작활동을 한



광주왕실도자기 2대 명장 이광



백자호(이광 작)



도자 장인 김기철



연잎어항(김기철, 2000년 작)



도자 장인 양명환



청자상감당초문장경화병(양명환, 1990년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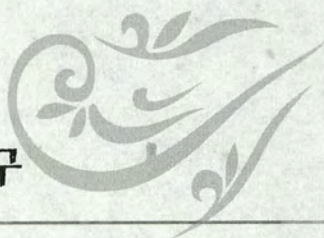
장인은 10여명에 불과하였다. 이후에는 해강고려청자연구소의 장인이었던 양명환이 1983년 청진요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고려청자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1985년에는 안동오요의 장인이었던 류선영이 완송요를 설립해 조선백자의 전통 계승과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 그밖에도 신현철(신현철도예연구소) 이윤희(죽전도예), 박상진(개천요), 조민호(단원요) 등이 1980년대에 요장을 설립하여 한국 전통도자의 계승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08년 현재 광주요장에서 제작되는 것은 분청사기와 백자가 주를 이루는데, 역사적으로 조선백자의 산실이며 조선초 분청사기를 생산했던 전통이 지금의 도자장인들에게 전해져 이를 제작하도록 이끄는 것 같다. 물레성형과 수작업 위주로 성형을 하고 있으며, 소성 방법으로는 가스마소성이 다수를 차지하나, 장작가마성 요장이 10곳으로 전체 요장 수 대비 장작가마소성 요장이 많은 편이다. 요장 설립도를 살펴보

면, 광주지역 요장 절반 이상이 1990년대 이후 설립되었으며, 요장 소재지는 도척면이 6곳, 초월읍이 12곳, 실촌읍이 11곳, 남종면 2곳, 중부·퇴촌면, 쌍령동이 각각 1곳으로 초월읍과 실촌읍에 소재한 요장수가 많은 편이다. 조선시대 퇴촌면 번천리, 금사리, 우산리 일대에서 양질백자가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퇴촌면 일대의 요장수는 현저하게 적고 3번 국도변에 위치한 초월읍과 실촌읍을 중심으로 요장수가 많은 것으로 보아, 교통편이 유리한 쪽으로 요장이 설립된 듯하다.

〈광주시사 중에서〉

여 백

문화연구



-
- 구중서 | 좋은 언어로 세상을 채워야
 - 석경징 | 영어를 가르치기로 한다면, 우선
 - 박종선 | 우리는 東方禮儀之國의 後孫
 - 김환희 | 경안천 단상

여 백

좋은 언어로 세상을 채워야

구 중 서

문학박사, 광주향토문화연구위원

신동엽 시인은 1969년에 마흔의 나이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가 문단생활을 한 것은 10년 동안 이었다.

그의 별세 후 6년 만인 1975년에 창작과비평사가 한 권의 분량으로 『신동엽전집』을 내면서 발간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그의 문학사적인 무게는 이보다 훨씬 호화로운 몇 권의 전집을 꾸민다하더라도 결코 지나친 대접이랄 수는 없다.” 그러나 형편 닿는 대로 이 시인의 글들을 우선 한군데 모아 독자들 앞에 내어놓는 일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러한 절실성에도 불구하고 『신동엽전집』은 발간된 직후에 정부의 긴급조치 제9호에 위반된다고 판매금지 처분을 당했다. 그 위반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논리적 설명은 수사기관이 끝내 밝히지도 못했다. 이 판금조치는 1980년에 다시 풀렸다.

신동엽의 시세계는 장편 서사시 「금강」이 동학 농민혁명을 다룬 것이고, 시 「깍뎡이는 가라」가 반외세의 인상을 띠는 점에서 군사독재 정권으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한 것 같다. 그러나 신동엽 시세계의 본질은 민족의 평화와 이상이다. 서사시 「금강」에서 보면 서두가 역사를 짓누르는 검은 구름장을 찢고 하늘을 보듯이 ‘영원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전봉준이 농민들과 더불어 고보관아를 쳐들어가는 장면도 바람이 밀려가듯이 조용한 분위기이므로 오히려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깍뎡이는 가라」의 한 마디 절창은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씨앗 알맹이의 사상이다. 신동엽의 화법에 의하면 낙엽이라는 차수성 차원보다 뿌리라는 원수성^{原數性} 차원을 추구하는 것이다. 인간과 세계의 끝없는 내면적 깊이를 추구했다.

이러한 정신적 뿌리를 가지고 실상 그가 취하고 싶어 한 삶의 모습은 부드럽고 조용한 것이었다. ‘나의 설계’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그의 산문 「서둘고 싶지 않다」는 노자 사상을 인용하고 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일도 작은 생선을 굽듯이 해야 한다.(若烹小鮮)

작은 생선을 구우면서 거칠게 수선을 피우면 뒤집고 뒤집고 하는 동안에 다 부서져 남는 것이 없게 된다. 큰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라 해도 섬세하게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나도 내 인생만은 조용히 다스려 보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시 「좋은 언어」는 이처럼 차분한 생각을 더 진지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외치지 마세요/ 바람만 재티처럼 날려가 버려요.// 조용히 당신의 자리를/ 아래로 낮추세요.//그리구 기다려 보세요/ 모여들 와요.//하거든 바닥에서부터/ 가슴으로 머리로/ 속속들이 구비둘아/ 적셔 보세요.// 허잘 것 없는 일로 지난 날/ 언어들을 고되게/ 부려만 먹었군요.//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허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

나는 이 시를 신동엽의 대표작으로 보고 싶다. 더 무슨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이다. 세상에는 좋은 언어와 좀 부족하거나 좋지 못한 언어도 있다.

좋은 언어는 존재하는 것들의 깊은 의미를 되새겨 보는 언어다. 이러한 언어는 비로소 존



신동엽 시인

재를 실현하고 해방하며 승화시켜 영원에 이어지게 한다. 좀 부족한 언어는 나쁘지는 않지만 실용적인 한계에서 멈추는 기능이다. 과학자가 물을 가리켜 H₂O라고 할 때 용도와 연구의 면에서는 이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가 개진할 수 있는 엄청나게 더 큰 의미에는 이르지 못한다.

철학자나 시인이 ‘물’이라고 할 때 이 언어의 폭과 깊이는 훨씬 크고 깊다. 노자가 말했다. “최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上善若水)” 굳어진 흙 언덕을 돌로 때리면 튀고 끝난다. 그러나 부드러운 물로 스며들면 녹여서 무너뜨리고 흘러갈 수 있다. 흐르면서 물은 생명 있는 풀포기와 농작물의 뿌리를 키운다.

그러면서 물은 스스로 낮은 데를 좋아해 사방 계곡의 시내가 편하게 흘러 들어와 강과 바다를 이루게 된다.(江海善下) 바다는 오하일미(五河一味) 보편의 진리와도 같은 것이다. 물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시로 표현하면 이렇게 큰 진리와 진리의 세계가 구현된다.

그런데 좀 좋지 못한 언어도 있다. 그것은 거칠고 욕이 되는 뜻에서 쓰는 언어다. 이러한 현상은 후진적 정치 분야 같은데서 나타나곤 한다. 가령 어떤 문화예술 단체의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관례가 있다. 그런데 한 통의 공문으로 “불법 시위에 가담하면 지원한 돈을 반환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고 한다. 이 지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이고 나라의 격조를 질적으로 드높이기 위해 마땅히 정부기관이 전달하는 것이다.

어떤 단체가 법에 저촉되면 그 사안을 법으로 가리면 될 것이다. 돈을 조건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자존심과 양심을 사전에 위협하는 것은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또 한 정당에서는 내부에서 어떤 사안을 놓고 분열을 일

으키는 와중에 외부에서 강도가 들어오면 우선 내분을 멈추고 힘을 합쳐 싸워야 할 것이 아니냐는 발언이 나왔다. 그러자 그 강도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 또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선약수의 철학이나 「좋은 언어」의 시에 비하면 정치분야의 현상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느끼게 한다. 모쪼록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나가야 할 것이다.

구중서

문학평론가. 현 한국작가회의 이사장 경기광주출생. 중앙대 대학원 졸업
저서 『한국문학과 역사의식』 『문학적 현실의 전개』 『면앙정에 올라서서』 등 다수

영어를 가르치기로 한다면, 우선...

석경징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영문학

아주 중대한 이야기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처음에는 그 까짓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거 보통 중대한 게 아니로구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중대한 일은 아닙니다만.

어느 큰 재벌 회사에서 만들어 파는 물건에 “애니콜”이라는 이름의 휴대전화가 있습니다. 저는 마침 그 전화를 써보지 않아서 개인적 체험에서 나오는 증언은 할 수 없으나, “애니콜”은 성능이 좋고, 모양도 예쁘고, 질도 고급이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 받고 사랑 받는 물건이라고 하니 우리로서는 그저 감격하고 반가울 뿐입니다. 수 백년 아니 수 천년을 젖은 지푸라기 타듯이 살아오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기계를 만들어 낸다니 그저 가슴이 뿌듯하고 기쁠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애니콜”이라는 전화기의 성능이나 상품가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애니콜”이라는 바로 그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애니콜”이란거야 하나의 고유명산데 지은 사람이 그렇게 지어 놓고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 부르면 고만이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애니콜”이라고 써놓고 이게 이 전화기의 이름이다 한다면 할 말이 더 없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애니콜”이라고 써놓고 꼭 Anycall이라고 로마자로 함께 써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Anycall은 다들 아시지요? 영어의 any와 call을 붙여서 만든 말인 것을? 그렇습니다. 영어에는 물론 anycall이라는 단어는 없겠지요. 그러나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any와 call을 합쳐서 anycall이란 새 단어를 만들어내는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겠지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 신기하거나 특이한 일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any는 [eni]라고 발음됩니다. 한글로 그 소리를 적어본다면 [에니]입니다. 보십시오. any가 영어라면 그 소리는 [에니]입니다. 절대로 [애니]가 아닙니다. 만약 Anycall의 any가 영어에서 온 것이라면, 그것은 [에니콜]이지 [애니콜]이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 하실 지도 모르

겠습니다. 그게 에니콜이면 어떻고 애니콜이면 어떠냐고. 어느 지방 사람들은 [에]와 [애] 분간 안하고도 잘만 살지 않는다고. 그게 우리가 쓰는 우리 말 같으면야 큰 불편 없이 잘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말의 문제가 아니라 영어의 문제입니다. 영어에서는 [el]와 [ael](a와 e는 붙어서 하나의 기호를 이룬 것입니다.)는 아주 다른 두개의 소리입니다. 여기서 소리가 다르다는 것은 그 두 소리를 각각 쓰면 뜻이 다른 말이 된다는 뜻입니다. [el]는 침대라는 뜻의 bed라는 단어의 모음이고, [ael]는 나쁘다는 뜻의 bad라는 단어의 모음입니다. bed와 bad는 들어있는 모음이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침대”와 “나쁜”은 아주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Anycall이 영어에서 온 말이라면 [애니콜]일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크고 돈이 많고, 따라서 권력이 많더라도 그것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이름을 지어내거나 그 주변에서 상관한 사람들이 영어 한자도 모르는, 중학교 일학년도 다녀보지 않은 삶을 산 사람들이었다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까짓 영어 발음 좀 틀리면 좀 어떠냐, 우리말이나 잘 하면 되지 라고 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바르게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어도 바르게 잘 해야 합니다. 기왕에 영어 가르치고 배우는데 쳐 넣는 돈을 생각한다면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어린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다른 것들과 함께 영어의 글자와 소리를 가르치느라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힘을 쓰는지 다 잘 아시지요? 그런 교육을 펴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우리가 들이는지 다 잘 아시지요? “bed”는 [베드], “bad”는 [배드]라고 아마 모두 합치면 억만번도 넘게 기를 쓰며 되풀이해서 배우는 이들이 익히도록 하느라 얼마나 애들을 쓰는지 다 잘 아시지요? 그렇게 가르쳐 노면, 전국 산지사방에 광고판을 세워놓고 이 휴대전화 회사는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애니콜”과 “Anycall”을 짝지어 대문짝 같이 크게 써놓고서, 한 순간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의 공을 들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땀 흘려 이룬 영어교육의 한 귀퉁이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휴대전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웬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마도 휴대전화회사 하는 것이 샘이 났던지, 다시 말하자면 휴대전화 회사가 영어 교육을 망치는 것이 재미있어 보였던지, 자동차 이름을 이렇게 지어 놓았습니다. “엑센트”라고. 그리고 또 영어도 써봤지요, “Accent”라고. Accent가 영어라면 그것은 엑센트입니다. 영어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어가 아니라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외계의 어느 별나라의 말입니까? 이 회사는 [애]를 [에]라고 해 놓고 있지요? 휴대전화이고 자동차이고 간에 우리가 무시하기 어려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온갖 머리를 짜서 (마음을 사로잡

는 광고문을 만들어서) 영어의 소리 중의 [e]와 [ae]의 분간을 우리나라에서 영어 배우는 이들의 능력에서 지워내는 것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교육과학부라는 굉장한 이름의 관청까지 차려놓고, 수많은 머리좋은 사람들을 돈을 쳐들여 훈련시켜서 선생으로 삼고, 눈이 또렷또렷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게 해놓고, 아이들이 겨우겨우 배워놓은 것을 광고판을 휘둘러서 일거에 없애버리는 이 휴대전화 만드는 회사,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대체 무엇들입니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 일을 그냥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이 중대한 일을?

이 회사들은 잘못을 사과하고, 그 물건의 이름을 당장 “에니콜”과 “엑센트”로 고쳐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東方禮儀之國의 後孫

박 종 선

韓國典禮研究院教授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출처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 했다.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라도 처음 알게 되면 새로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옛날부터 동쪽에 나라가 있는데 이름을 동이라 한다.(東方有古國名曰東夷). 방위는 28수의 기성과 미성의 방향이고 지역은 조선 백두산에 접해 있다.(星分箕尾 地接鮮白). 훌륭한 사람 단군이 나니까 9개 부족이 그를 받들어서 임금이 되니 요(堯)임금과 한때의 일이다.(始有神人 檀君 遂應九夷之推戴而爲君與堯並立). 우순(虞舜)이 동이에서 낳아 중국에 들어와 천자가 되어 훌륭하게 다스리니 못 임금위에 우뚝했다.(虞舜 生於東夷 而入中國 爲天子至治 卓冠百王). - 중략 - 소련과 대련이 부모의 상을 잘 치러 3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3년을 근심하니 나의 할아버지께서 칭찬하셨다.(小連大連 善居喪 三日不怠 三年憂 吾先夫子稱之). 그 나라는 비록 크나 스스로 교만하

지 않았고, 그 군대는 비록 강하나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다.(其國雖大 不自驕矜 其兵雖強 不侵入國). 풍속이 순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양보하고, 먹는 이들이 밥을 미루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거처해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니 동쪽에 있는 예스러운 군자의 나라라 하겠다.(風俗淳厚 行者讓路 食者推飯 男女異處 而不同席 可謂東方禮儀之君子國也). 이렇기 때문에 나의 할아버지 공자께서 동이(東夷)에 살고 싶어 하시면서 누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是故 吾先夫子 欲居東夷 而不以爲陋). -이하생략-

이는 우리가 중국을 대국으로 섬긴 때로부터 900여 년 전인 BC 268년, 중국 위나라 안희 왕 10년 곡부에 사는 공자의 후손, 공빈이 쓴 「東夷列傳」에 나오는 이야기다. 동이열전의 기록은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 중국유학(儒學)의 경전에 있는 말들을 종합한 권위 있는 책이라고 한다. 즉 지금부터 2300년 전, 생활문화(예절)를 실천해온 우리나라를, 중국이 동쪽에 있는 예절이 바른 나라라고 인정한 것이다. 또한 미국 조지 타운대학의 맥도날드 교수는 「첨단과 학문명을 꽃피우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반라(半裸)의 몸으로 숲속을 누비며 살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고도의 생활문화를 누렸다」는 말로 우리나라가 예의가 바른 문화 선진국임을 이야기 했다. 그런데 독일의 폰 한스 짤만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보고 느낀 점을 우리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보지 못했다.”고 썼다. 예절이 있어야 할 나라에 예절

이 없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모든 근본은 禮로 통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어느 때 보다는 더, 진실을 왜곡하는 정신적인 무질서와 잘못된 행태를 접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즉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36년 동안 일제침탈의 암흑 기를 벗어나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기쁨도 잠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전, 북한 공산집단의 적화야욕에 의해 일으킨 3년 여의 전쟁에서 수많은 고초(苦楚)를 겪었고,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먹고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가? 그 덕분에 지금 우리는 草根木皮하던 시대를 지나 여유를 찾았으나, 즐기 고자하는 욕구와 자기중심적인 사고(思考)는 무질서와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직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였기에, 우리 것과 스스로를 되돌아 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 “동방예의지국”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고 “동방 무례지국”이라는 말이 여과 없이 활자화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지도층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 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지켜야 할 본분과 질서가 있다. 그것을 우리는 예(禮), 또는 도리(道理)라고 한다. 그것이 잘 지켜지고 유지 되었을 때 살맛나는 사회,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한다. 衣食足而知禮節(의식족이지예절 : 등 따습고 배부르면 예절을 알아서 행한다)이라 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짚어 봐야 할 것은 「衣食足而則悖倫」(의식족이즉패륜 : 등 따습고 배부르니 부모도 모르는 패륜을 행한다)이라는 사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일찍이 “韓國人 精神 「仁」[한국인 정신 인(우리)]”을 가르치신 공자께서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 즉 나를 이기고 예절로 돌아가면 우리(仁)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원만한 대인관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이다.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 할 때마다 많은 지도자들이 즐겨 쓰고 있는 글귀가 있다.

지금부터 3천 년 전, 은나라 탕 임금의 좌우명인 「苟日新(구일신), 日日新(일일신), 又日新(우일신)」하라.(진실로 날로 새롭게 하려면, 날로 날로 새로워야 하고, 또 날로 새로워야 한다) 늘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변화를 일깨워 주는 명언이다. 또한 모든 일은 예(禮)로 통한다고 했듯이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의 터전인 너른 고을(廣州)은, 예로부터 수도권의 관문이자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인심이 온후하며,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충효(忠孝)의 고장이라 했다. 우리의 전통과 역사의식 속에서 시민 모두에게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주고, 희망을 갖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예(禮)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며, 말하지도 말며, 행동하지 말라(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는 교훈을 깊이 새겨, 실행해 나가는 지도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밝고 신뢰받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것이다.

朴鍾善

韓國典禮研究院敎授, 廣州市禮實本支部長, 禮節專門人 1 級, 廣州문화원이사
前 果川市 副市長

경안천(慶安川) 단상(斷想)

김 환 회

새마을운동광주시지회장

어릴 적 경안천은 참 맑았다. 서울에서 놀러 온 어른들로부터 물이 맑다고 감탄하는 소리를 들을 적마다 개울물은 당연히 맑은 줄을 모르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속으로 흉을 보곤 했다. 어려서부터 경안천 냇가에서 산 나는 자연히 그 곳이 주요 놀이터가 되었다. 방학이나 일요일같이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의 대부분은 냇가에 가서 놀았다. 여름에는 먹을 감고 겨울에는 썰매를 탔다. 냇물은 언제나 조용히, 그리고 수줍은 처녀같이 다소곳하게 제 갈길 만 갔다.

봄별이 흙속으로 녹아 들 무렵이면 하루 종일 강변을 돌아다녔다. 모래사장과 자갈밭 사이에 물떼새가 낱아 놓은 알이 있고 잘하면 새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냇물이 들 어와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기도 전부터 성급한 꼬마들은 물고기를 잡고 다슬기와 말 조개를 주웠다. 물밑의 돌을 들추면 어디에서든지 징거미새우, 미꾸라지, 모래무지 같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것도 도구 없이 손으로 움켜서
.....

피라미는 워낙 빨라서 손으로는 잡을 수가 없었다. 유리
로 만든 어항의 입구 부분에 깻묵 섞은 된장을 붙여 흐르는
물속에 큰 돌 몇 개로 보호벽을 쌓아 놓고 그 아래에 놓아
두면 영락없이 그 놈들만 들어간다. 나는 곧 어항의 대가가
되었다. 지금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흐르는 물만 보면 어디
에 어항을 놓으면 잘 잡힐까 하고 어림을 해 보는 버릇이
있다.

장마철에 홍수가 나고 사나흘 지나면 사납게 소용돌이치
며 흘러내리던 냇물의 흙탕물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그러
나 그 때까지는 물살이 사납기 그지없고 강폭도 평소의 두
배쯤 넓게 흘러 내려갔다. 해가 뒷산에서 두 뼘 정도 올라
오면 우리들은 서로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개울가에
모여서 강물을 헤엄쳐 건너기 시작했다. 위험하기 짝이 없
는 거센 물살에 겁도 없이 뛰어든 작은 머리들이 물속을 들
락거리며 동실동실 헤엄을 쳤다. 센 물살 때문에 물도 몇
모금씩 들이키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강 건너기를 몇 번
하고 나면 하루해가 저문다.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큰소리
로 부르며 찾아오실 때까지.

강 건너 넓은 들에는 이른 봄부터 기름종이를 고깔처럼
씩워 가꾼 수박 참외가 끝없이 줄지어 익어 가고 있고, 장
마 직후에는 주인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 주신

절호의 찬스를 감사히 활용하여 일용할 양식으로 삼기도 하였다.

겨울이 되면 추위에 손을 호호 불면서도 냇물이 얼었는지를 확인하다가 때가 됐다 싶으면 재빨리 썰매를 메고 나섰다. 날카로운 날을 박아 넣고 선 자세로 타는 외발썰매는 대단한 속도를 자랑했다. 한참 달리다가 목적지에 다 왔을 때에는 발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앞부분을 들면 지지직 소리를 내며 급제동효과를 내는 신발명품이었다. 위험도 늘 머리 뒤에 붙어 다녔다. 어느 해 겨울 방학식을 한 다음날 날이 몹시 추웠다. 그 해에 처음으로 냇물이 퐁퐁 얼었다. 많은 꼬마부대가 얼음을 지치고 썰매를 타기 시작했다. 나도 새로 장만한 신병기를 메고 친구들과 같이 냇물 안 얼음판으로 들어갔다. 쩡쩡하는 얼음 조이는 소리가 나면서 제법 단단해 보였다. 새 썰매를 타고 나섰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는가? 신나게 썰매를 타고 1km정도 떨어진 보(淤)를 향해서 냇물 한가운데 바닥이 파랗게 보이는 깊은 곳까지 갔다. 그런데 아뿔싸 큰 탈이 나고 말았다. 날은 추워졌지만 깊은 곳은 아직 단단하게 얼지 않았던 것이었다. 얼음이 으지직 소리를 내며 여기저기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썰매와 함께 물에 빠진 나는 간신히 얼음판으로 올라서면 올라선 자리가 깨져서 빠지고 다시 올라서면 또 다시 깨어져 빠지고……. 그 날 나는 완전히 망했다.

어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보 막기를 했다. 보(淤)는 동

네 아래쪽 들판이 시작되는 곳에 강을 가로막고 있었다. 보
 에 붙어 관개용으로 사용하는 봇도랑이 들판 끝없이 연결
 되어 있었다. 이른 봄 농사철이 되기 전에 어른들은 보 위
 쪽의 냇물바닥을 파서 물이 늘 풍부하게 고일 수 있도록 하
 고 지난 장마 때 떠내려간 돌을 다시 쌓았다. 냇물은 보 앞
 에 모여 일단 숨을 고른 다음 아주 작은 나이가가라 폭포를
 만들면서 보를 넘어 기운차게 하류로 흘러 내려갔다. 봇도
 랑으로 연결되는 자리에는 필요한때에 물을 댈 수 있도록
 수문을 설치하는데 그 곳을 고쳐 쌓을 때에는 메기, 뱀장어
 같은 고급 물고기가 수두룩하게 잡혔다. 그런 날 어른들은
 천렵하느라 하루가 모자랐고 양조장자전거는 불이 났다.
 장마가 끝나면 방천을 만들고 다리를 놓았다. 홍수가 나면
 냇물 가에 붙은 논밭의 유실을 막기 위해 밤나무같이 단단
 한 나무로 버팀 구조 목을 세우고 돌을 쌓아 방천을 만드느
 데 시원한 날을 골라 여름내 부서지고 흩어진 방천을 보수
 하고 나무기둥과 석가래, 뗏장을 이용하여 흩다리를 놓았
 다. 아웅다웅 싸우던 건너 마을 사람들과도 다리를 놓을 때
 만은 내일처럼 서로 도우며 일했다. 다음 장마 때까지 서로
 유용하게 건너다니기 위해서……. 방천 옆도 물이 깊었다.
 그 곳은 아낙들의 여름밤 수영장으로 자주 이용되었다. 가
 끔 수상한 나무꾼이 날개옷을 훔쳐 갔고 그 해 가을추수가
 끝나면 결혼식이 열리곤 하였다.

경안천과의 꿈같은 날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종언을 고



했다. 아버지께서 이천군 읍면의 한 초등학교장으로 전임 되셨고 나는 대학입시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광주시내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이었다. 그 후 세월이 흘렀고 80년대 초 모처럼 친구들과 같이 옛 생각을 하며 냇물엘 들어가 보니 이미 경안천은 옛날의 그런 물이 아니었다. 에버랜드의 전 신인 중앙개발에서 10,000두가 넘는 돼지를 사육하며 나온 분뇨를 그대로 경안천으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분뇨가 10cm정도 두께로 강바닥에 쌓여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거기다 각종 공장의 폐수와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와서 물은 오염될 때로 되었고 토사가 계속 밀려 내려와 강바닥이 높아진데다 그나마 흐르는 물을 골프장이나 공장에서 펌프로 퍼 쓰기 때문에 물의 양이 형편없이 줄었고 냇가는 개울수준으로 떨어졌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결국

은 내 고향도 별 수 없이 이 모양이 되었구나. 충격은 그 뿐만이 아니었다. 경안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수도 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물 오염의 대표적인 주범으로 되어있는 게 아닌가? 바닥에 깔린 모래알을 셀 수 있을 만큼 맑고 투명하며 떡 감다 목마를 때 물 속에서 그대로 마시면 달디 단 맛이 나던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천년 대 초 양벌리로 다시 이사 온 며칠 후, 일요일 날 큰딸과 함께 이제는 비닐로 재질이 바뀐 어항과 떡밥을 사 들고 의기양양하게 양벌리 앞 냇가로 갔다. 딸 앞에서 아빠의 어항으로 고기 잡는 숨은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다. 11월이라 날이 추웠다. 신발을 벗고 어항 놓을 준비를 하려 냇물로 들어가려니까 딸이 펄쩍 뛰었다.

“아빠! 지금 제정신이야? 이 추운 날 무슨 고기를 잡는다고 그래? 그리고 저렇게 더러운 물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아서 뭘 하려고?”

다행히 경안천을 살리자는 시민운동이 일어나 2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오폐수를 감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계속한 덕분에 수질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나 옛날의 모습을 찾기에는 아직도 길이 멀다.

한 여름에 경안천에서 축제를 열었으면 좋겠다. 모름지기 축제는 거기모인 주민과 관광객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때론 미친 듯이 참여해서 같이 즐길 때 성공하는 축제가 된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토마토 축제,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축제, 일본의 삿포로 눈축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축제 등 세계적인 축제는 다 그렇다. 지역에서 살고 있는 전체시민들이 준비하고 관광객이 합세하여 다 같이 즐기고 행복해하는 축제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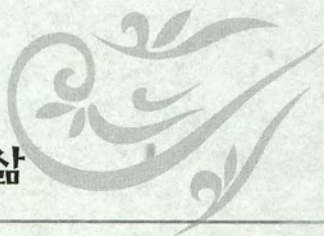
우리도 청석공원 근처 경안천 물에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될 때쯤 축제를 연다면 어떨까? 시장님부터 참석한 사람들이 다 같이 정장을 입은 채로 물에 빠지기, 물속에 감춰진 보물찾기 등 모든 사람이 물속에서 또는 물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면 더 깨끗한 물에서 놀고 싶은 마음에 자연스럽게 수질도 정화되고 감시활동도 강화될 텐데, 그것도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 광주사람은 물론 인근의 서울이나 성남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재미있어 하고 즐거워하며 참여할 것이다. 경안천을 살리고 함께 하는 방법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경안천 얘기는 끝이 없다. 그 얘기를 글로 쓰면 쓰여 진 글이 경안천을 다 덮고도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다.

김한희

새마을운동 광주시 지회장
광주시 문화원 이사

문화와 삶



-
- 박기준 | 역사문화탐방을 중국 서안(西安)에서
 - 심상구 | 아버지, 그리움

여 백

역사문화탐방을 중국 서안(西安)에서

박기준

문화원문화학교 교장



제작년부터 중국 서안으로 계획되었던 광주문화원 해외 문화탐방이 신종플루와 이런저런 일로 미루어지다가 올 6월 3박4일의 일정으로 떠나게 되었다.

6월 17일, 아침 일찍 서둘러 문화원 가족이 관광버스로 광주를 떠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전 7시가 지나 서였다. 간편한 여행 복장인 35명 모두가 즐거운 표정이었

는데 부부동반도 꽤 여러 팀이 참여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10시 20분 인천공항을 이륙했다. 기내식으로 아침을 때우고 현지시각 낮 12시 30분(1시간 늦은 시차) 도착한 서안 공항은 한산 했고 외국에 온 느낌이별로 들지 않았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오후1시 현지 가이드와 미팅을 했다. 공항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우리를 맞았다.

첫 탐방코스를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정하고 이동하기 위해 관광버스를 탔으나 덩기는 차 밖이나 차 안이나 다름이 없다.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의 안내가 있었다. 서안은 중국 서북지방 관중평야의 중앙 섬서성 위하(渭河)강 남쪽 유역에 위치한 도시로, 명태조 홍무2년(1369년) 이름을 장안에서 서안으로 바꾸었다.

서안은 아테네, 로마, 카이로와 함께 세계 4대 고대 도시의 하나란다. 가장 번영했던 당대의 장안은 인구 100만이 넘는 세계 최대의 도시 이기도 했단다. "장안의 화제"란 말이 이곳에서 유래한 것일까?

서안은 중국 문명의 발생지이자 중화 문화의 대표로 손꼽을 수 있는 지역이다. 표준어를 쓰고 3천여 년의 역사와 11개 왕조가 도읍했던 중국 제1의 고도(古都)로 1,100년 이상이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당대 이후 정치중심은 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지금의 하남성, 항주, 남경, 북경으로 이동했다. 서안은 교육의 중

심지이자 첨단과학기술의 도시란다. 전자, 정보, 항공, 국방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만 아직 지하철이 없단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지하에서 많은 귀중한 유물이 쏟아져 나와 공사 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이란단다.

우리 일행은 실크로드의 시작점에서부터 서안의 문화 탐방을 시작했다.

한(漢)무제(武帝)는 북방변경지대의 흉노족을 제압하고 아시아로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BC139~BC126년 2차례에 걸쳐 장건을 중앙아시아로 파견 했는데 장건의 원정을 계기로 당시 서역(西域)인 중앙아시아 및 서방 각지와 사절을 교환하게 되었고, 여러 문물이 왕래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념한 것이 시작점이며, 그런 이유로 개척자 장건의 조각상이 이곳에 세워졌다. 조각상을 둘러보고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현대화 된 박물관 중의 하나로, 그 소장 유물만 37만여 점에 달하는 섬서역사박물관을 관람하고 3일 동안 묵을 해경주점(海景酒店)에 여장을 풀었다.

6월 18일, 일찍 잠에서 깼다.

아침 9시30분, 이틀째 문화탐방을 위해 서안에서 동북쪽 25km 떨어진 여산 기슭에 자리한 화청궁(華清宮)으로 향했다. 황제들의 온천휴양지로 지금도 43도의 따뜻한 온천수가 나온다. 서주(西周)시대에 여궁을 세웠으며, 진시대엔

석우(石宇), 당나라 현종시대에는 더욱 크게 넓히고 화청궁이라 고쳤다 한다. 화청궁을 들어서니 배꼽을 내놓은 양귀비(본명:양옥환)의 조각상이 보인다. 주변엔 화청지 연화탕, 해당탕, 태자탕, 상식탕, 성진탕이 있다. 특히 해당탕 위쪽엔 양귀비가 목욕 후 올라가 몸을 말렸다고 하는 누각이 있는데 흥미로운 마음으로 올라갔으나 그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양귀비는 조선, 왕소군, 서시와 더불어 중국의 4대 미인 중에 한사람이다. 양귀비는 연못가의 연꽃마저 고개를 떨군다고 해서 「수화」라는 애칭을, 조선은 여포의 여인으로 달도 부끄러워 구름 속에 숨을 만큼 아름답다는 뜻으로 폐월(閉月), 왕소군은 미모의 궁녀로 나는 기러기도 날개 짓하는 것조차 잊은 채 땅에 떨어진다고 해서 낙안(落雁), 서시는 미모에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조차 잊은 채 물 속에 가



라았는다고 해서 침어(沈漁)라 했단다. 양귀비는 현종의 18번째 왕자인 수왕의 비로 궁중에 들어왔다. 며느리인 양귀비에게 반한 현종이 740년 수왕에게서 양귀비를 빼앗아 여승으로 보냈고, 다시 4년 후 궁중으로 들인 후 다음해인 745년 27세 때 현종이 정식으로 귀비로 책봉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745~755년 까지 현종이 추위를 피해 양귀비와 여러 대신들을 데리고 화청궁에 왔다가 이듬해 봄에 장안성으로 갔다고 한다. 755년 안사의 난으로 현종은 귀비와 함께 지금의 사천(四川)으로 도망갔고, 경호하던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켜 양귀비는 죽게 된다. 화청궁의 오간청은 1936년 12월 서안사변이 일어난 현장이기도 하다.

장개석은 내적인 공산당을 먼저 뽑아내고 외적인 일본을 몰아내자는 기치를 내걸고 항일 투쟁을 뒤로 미룬 채 반공 정책을 펼쳤다. 이와 반대로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힘을 합쳐 일본과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장학량은 1936년 12월 12일 서안사변을 일으켜 공산당 토벌을 지시하기 위해 직접 서안으로 내려온 장개석을 감금하였고 결국 이 사건은 국공합작의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물러나고 힘을 키운 공산당에게 국민당은 1949년 대만으로 쫓겨 가고 모택동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과 함께 주석이 되었다.



세계 8대 불가사의인 병마용갱(兵馬俑坑)을 찾았다.

서안에서 37Km 떨어진 린통현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여산(驪山), 북쪽으로는 위수(渭水)와 접해있다. 1974년 우물을 파던 7명의 농부에 의해서 2,200여 년 동안 존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지하의 보물 병마용을 발견했다고 한다. 총면적 25,380m²에 달하는 4개의 갱이 발견되었으나 그 중 4호갱은 3군을 보급지원 하는 곳으로 보이거나 완성되기 전에 폐기된 빈 갱도라 한다. 1호갱에 들어서면 순간 거대한 규모에 놀랐다. 길이 230m, 폭 62m, 깊이 4.5~6.4m로 전체 도용은 6,000여 개로 추정되지만 진나라로 쳐들어온 항우(項羽)에 의해 많은 수가 파괴되어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고 한다. 병마용은 머리, 몸통, 팔, 다리 등 따로 빚은 뒤 구워서 조합해 완성한 것으로 병사의 크기는 1.75~1.95m로 겉옷만 입은 것과 겉옷위에 갑옷을 입은

병사로 구분되어 있다. 손에는 창, 긴창, 극(戟) 등의 장병기 및 궁노(弓弩)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중무장한 주력부대로 짐작된다고 한다. 병사들의 체구가 크고, 자세와 얼굴 표정이 단 한 개도 같은 것이 없고, 정교함은 진나라의 높은 조각예술 수준을 보여주었다. 본래 병마용은 화려하게 채색되었으나 발굴과정에서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어 바랐다고 한다. 2호갱은 1호갱의 동북쪽 2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규모가 좀 작다. 갱내에는 기마병, 보병, 궁병과 전차 등의 혼합된 대형 군대로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 병마용은 약 1,300여건, 전차 8여량, 다량의 금속 병기가 출토 되었다고 한다. 궁노병(弓弩兵), 기마병, 전차병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동력이 있는 주력부대를 보조하는 부대일 것이라 한다. 3호갱은 1호갱 서북쪽 25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규모가 가장 작고 병마용의 수도 가장 적다. 장군의 것으로 보이는 채색된 전차 1량과 갑옷을 입은 보병용 64건, 매용 4건이 출토 되었다 한다. 1호갱은 주력부대인 좌군, 2호갱은 주력부대를 보조하는 우군, 3호갱은 1호와 2호의 뒤편에 있어 지휘본부에 해당되는 사령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병마용갱은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진시황릉(秦始皇陵)으로 향했다.

서안의 교외 여산에 위치하고 있고 병마용갱과 1Km떨어

져 있다.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 진시황이 묻혀있는 능으로, 그가 황제에 오르자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그가 죽고 난 후 36년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70만 명이나 동원해 만든 이 무덤은 높이가 약 79m나 되어 산과 같아 보이며, 무덤 속에는 하늘과 별, 강과 산 등 세상을 재현해 놓았고 도굴을 막기 위해 기궁이라는 자동 화살 장치가 있고, 무덤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장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생매장 했다는데, 이는 발굴이 이루어 지지 않아 모든 것은 기록에 의한 추측이라고 한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진시황은 악명 높은 통치로 중국 역사에 자주 회자 되지만 수 많은 유산을 남겼으며, 대표적인 것은 내세의 삶을 위해 만든 진시황릉, 병마용, 그리고 흉노적을 막기 위해 쌓은 만리장성이 바로 그것이다.

어둑기를 기다려 섬서가무쇼를 관람하기 위해 화청궁 야외 공연장에 입장했다.

무대 맨 앞 관람석에 앉아 공연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일행의 모습은 행복해 보였다. 당나라 6대 황제 현종(玄宗)과 양귀비의 비련에 관한 것을 당대의 시인 백거이(白居易)가 지은 장한가(長恨歌)를 장예모가 감독한 것이다. 여산인 뒷산에 전등을 걸어 넓은 별자리와 달과 폭포로 배경을 만들고, 수중과 공중이 어울리는 무대, 시원한 분수와 레이저의 어울림, 웅장한 음악, 많은 등장인물 등 어두운 밤에 시원

한 야외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공연은 서안의 문화탐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시보고 싶은 관람이었다. 내용은 양귀비 등장→당 현종과의 만남, 절절한 사랑이야기→안록산의 난→현종과 양귀비를 비롯한 많은 군사들이 도망감→도망가던 중 부하 장군들이 현종에게 양귀비 처단을 요구→어쩔 수 없이 양귀비의 죽음을 지켜보는 현종→도사가 현종을 위해 양귀비의 혼을 불러 현종과 만나게 해줌→서로의 정표를 나누고 하늘을 나는 새가 되면 비익조가 되고 땅에 나 무로 나면 연리지가 되자고, 천상에서든 지상에서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3월 19일. 서안에 온지 벌써 3일째, 비림(碑林)으로 갔다.

역대 명필을 새긴 1,000여 개의 비석이 마치 나무숲처럼 무성하여 붙여진 이름이란다. 북송 철종(1090년)때에 처음 지어져 현재까지 9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한나라에서부터 청나라까지 3,000여 점의 석비가 있는데, 지금은 1,000여 점만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한다. 비림은 원래 서안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자(孔子)의 사당(문묘:文廟)이었다고 한다. 비석 중에는 관제시죽(關帝詩竹)이 특히 해 보였는데, 관제는 의리 있고 용맹한 덕장 관우를 후대에 제왕으로 높이 부르는 호칭이라고 한다. 시죽은 한편의 시와 두 개의 장죽화(長竹畵)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우가 조조 포로시절 유비에 대한 자신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죽엽그림

으로 운치 있게 표현한 글로 유명하다. 이곳의 비석은 두 개의 돌을 조립한 것이 우리나라의 비석과 다르다. 비림을 나와 서책, 서체, 문방사우(종이, 붓, 먹, 베풀)를 파는 서안의 명품 거리인 문서 거리를 둘러보고 장안성으로 향했다.

관광버스를 타고 장안성(長安城)에 들어섰다.

장안성은 당나라 때 축조한 서안에 있는 성인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성중의 하나로 원형이 잘 보존되었다 한다. 성의 동서남북 사방에 각각 안쪽문과 바깥문 두 개씩의 문이 특별한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런 문 구조의 성은 처음 본다. 안쪽문과 바깥쪽문 사이의 넓은 공간에 적군이 들면 꼼짝 못하는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된다. 장안성은 돌이 아닌 구운 벽돌로 축조 되었다. 성의 길이가 13.7Km, 높이 12m, 폭이 12m로 버스 3대가 지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성을 평지에 쌓았기 때문에 성벽 위가 넓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전동차로 성벽 위를 한 바퀴 돌며 관람하는 것이 특별했는데, 주택의 지붕 위에는 태양열 난방 시설이 많았다. 성안보다 성 밖이 더 발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성안은 유물이



많아 개발이 늦어진다고 한다.

이어서 고씨 집안의 건축 고가구 전통문화를 돌아보고 회족 거리에서 온갖 먹을거리를 파는 재래시장을 구경하였는데 네발달린 것 중은 의자를, 날개 있는 것 중에서는 비행기만 빼고 모두 먹는다는 말이 이해가 같듯 했다.

라텍스 판매점을 들릴 기회가 있었다.

재미있게도 매장 사무실에 공신(供神)이란 신을 모셔 놓았다.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하늘에 인공위성이 날아다녀도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소박한 마음은 어찌 할 수 없는가 보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한식당으로 출발했다.

가로수가 잘 조성되어 있어 그들이 참 좋은 도로가 꽤 많다. 하지만 교통질서는 수준급 이하였다. 신호등이 있기는 하나 지켜지지 않고, 중앙선도 있으나 마구 넘나들며 무질서 했다. 그래도 사고가 없는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다. 중국은 무질서가 질서인가보다. 발 마사지로 피로를 풀고 호텔에 들었다.

6월 20일. 벌써 문화탐방 마지막 날이다. 약속한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다. 짐을 꾸리고 대안탐을 향해 호텔을 나섰다.



서안에서 6Km를 달려 1400년이나 되는 자은사 경내에 들어섰다. 대웅보전이 먼저 보인다. 우리나라는 절의 뒤편에 위치하고 있다. 대웅보전 출입은 왼쪽 문으로 들어가 오른쪽 문으로 나온단다. 7층인 대안탑은 652년 삼장법사 현장(602~664)이 인도의 날란다

(Nalanda:고대불교 교육기관으로 신라 고승 혜초가 불도를 닦던 곳)에서 불도를 닦고 돌아와 불교를 중국어로 번역했는데 보존할 장소가 없어 건립을 건의하여 지어진 탑이란 다. 내부는 나선형의 계단이 있어 탑의 맨 꼭대기 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수리중이라 우리 일행은 올라가지 못했다. 대안탑을 뒤로 하고 자은사 정문을 나선 우리 문화원 가족은 3박4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두가 건강하게 보람 있는 서안의 문화탐방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다.

서안은 고대문명과 현대문명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홍망성쇠가 수 천 년을 되풀이 하였고,

희로애락도 수 천 년을 되풀이 하였으니

서안의 삶 또한 그렇게 끊임없이 되풀이 되리라.

2010. 6.

아버지, 그리움

심 상 구

광주문화원 부원장

십년 전 아버지께서 이승을 떠나신 후 부모님이 사시던 집과 농원을 비워둘 수 없어 방 한 칸을 사무실로 꾸며놓고 매일 출퇴근해 왔다. 어느 날인가부터 연립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도 세워져 원치 않는 도로가 개설되는 바람에 아버지가 가꾸시던 농원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이곳은 도심 속의 쉼터처럼 봄부터 늦가을까지 온갖 꽃들의 개화가 정신없이 이어지고 있고, 새들이 무리지어 찾아와 하염없이 노닐다 가곤 한다. 산과 이어져 있을 때는 다



람쥐 몇 마리가 느티나무를 기어오르기도 했지만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이후로는 그 모습 찾을 수 없어 무척 아쉬웠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차리거나 한 듯이 얼마 전부터 청설모 한 마리가 어찌 길을 건너 찾아왔는지, 이른 아침 출근하여 하루를 계획하며 커피 향을 즐기고 있을 때, 사무실 창가 바로 옆 나뭇가지 위에 올라 바스락거리며 호젓이 홀로 있는 내 마음을 도닥거리 주고 있다.

작년 어느 여름날, 에어컨 바람을 가둬두고자 방문을 닫은 채 모니터를 보며 세상사와 씨름하고 있는데, 며칠 째 방 밖에서 ‘탁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포시 발걸음을 내딛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서니 박새 한 마리가 현관 입구의 커다란 유리창을 작은 부리로 쪼고 있었다. 내 발걸음에 놀라 잠시 현관 밖으로 달아났다가는 다시 찾아와 또다시 유리창을 쪼아댔다. 짝 잃은 새 한 마리가 우연히 거울에 비춰진 자신과 닮은 새 한 마리를 보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뽀뽀를 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애뜻하여 커다란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들고 다가서니 또다시 도망을 가버렸다가는, 살며시 숨죽이고 있으니 다시 찾아 들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에 결국은 멀리 날아가 버리고는 몇 날 며칠 동안 현관문을 열어 놓고 쌀 한줌을 거울 앞에 놓았어도 더 이상 그 새는 찾아오질 않았다.

거실의 벽면은 안팎이 하나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커다란 통유리로 되어 있다. 때문에 봄이면 사랑놀이를 하는

직박구리 새들이 쫓고 쫓기다가 유리창에 부딪쳐서 땅바닥에 떨어지곤 했다. 거실로 숨어들고 싶어 날아드는 새들의 충돌사고를 막아보려고 커튼을 내리기도 했지만, 파란하늘과 푸른 나뭇잎들이 그리워 이내 장막을 올리곤 했다. 반쯤 2층인 내 사무실 커다란 창문 바로 옆에 있는 감나무 끝가지에는 가을이 되면 따지 않은 감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으레 까치밥이 되곤 했다. 직박구리 새 그리고 까치가 치열한 싸움 끝에 하나하나 열매가 사라지게 될 때는 이심전심이랄까 나 또한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꼈었다. 비록 내 방 한 칸은 담배연기로 가득 차 있지만, 몇 걸음 밖은 푸른 나무들과 화사한 꽃향기 그리고 시끄러울 만큼 지지대는 새 소리가 어우러져 깊은 산속처럼 느껴지는 곳이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떠나가 버린 자기 짝이 그리워 커다란 거울속의 자신을 보고 애타게 옛일을 떠올리던 그 새의 존재는 잊어 버렸다. 그러다 가을이 찾아올 무렵에 하늬바람을 맞이하고자 창문과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만의 공간에 갇혀 세상과 씨름하고 있을 때, 나는 또다시 푸드덕 거리는 소리에 이끌려 거실로 발길을 내딛었다. 아버지가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시던 벽난로 옆 커다란 화초 가지에서 낮익은 새 한마리가 오르락내리락하고는 발걸음 소리에 놀라 후다닥 안과 밖을 가로 나누는 유리창으로 날아가 버렸다. 반가운 마음에 쌀 한 줌과 카메라를 들고 다가서니 아버지 침대가 놓여있던 그곳으로 옮겨가 고개를 이리저리

기우뚱거렸다.

그곳으로는 창밖의 커다란 목련이 가지를 뻗고 있다. 밑둥지부터 두 갈래로 큰 줄기가 갈라진 그 목련은 겨울이 올 무렵에 꽃망울을 가지마다 품었다가는 해마다 삼월이 지나갈 무렵에 화들짝 놀라듯 온 나무를 하얗게 덮고는 인생사처럼 이내 땅바닥에 떨어지고 만다. 그 해 일월에는 몹시도 추웠다. 선천과의 이별에 천봉지통으로 나날을 보내야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 햇살이 무르익기 시작할 때 겨우내 추위를 이겨내고 산수유가 피어나니 목련도 순백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해 봄에는 밑둥지부터 갈라진 두 줄기의 목련은 반신불수가 되어 버렸다. 아버지의 침대가 놓여있는 곳으로 뻗은 줄기는 봄이 왔음에도 겨울을 품고 있는 듯 앙상한 가지의 꽃망울을 펼치지 못하고, 남쪽으로 향한 줄기에서 만개한 꽃잎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도 한 줄기는 얼어 죽었나 보다. 꽃잎 떨어지고 새잎 돌아날 때까지는 기다려야겠지.” 다행히도 사월에 들어서니 한 뿌리에서 올라온 두 줄기는 연두 빛 새잎들로 하나가 되어 갔고, 또 한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이하니 거실 쪽으로 뻗어 있는 그 줄기의 꽃망울들도 마지막 침상에서 “깨끗이 살았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라며 내게 들려 주셨던 아버지의 말씀처럼 힘든 추위를 이겨내고 티 한 점 없이 순결한 모습으로 활짝 피었다. 그런데 그 줄기가 뻗어있는 거실 한 구석으로 그 새가 날아들었던 것이다.

어릴 적에는 멋모르고 꽃잎에 앉아있는 벌을 낚아채고는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했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흑시라도 개미 한 마리라도 내 발에 밟혀 짓이겨질까봐 땅을 밟기가 조심스러워진다. 내 발걸음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새를 가두어 둘 수는 없다. 무리에서 떨어져 어찌 이곳까지 날아들었는지는 알 수 없어도 아버지가 태어나신 검단산과 영면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예봉산이 강물로 갈라져 있듯이 우리는 커다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사는 세상을 달리해야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리창들을 열어 제치고 자리를 비우니, 아버지께서 “8일 뒤에 떠날 거다.” 라고 며느리 손바닥에 희미하게 글자를 쓰시고는 더 이상 아무 말 씀 없이 떠나갔듯이 그 새도 그렇게 사라져 버렸다.

이제 며칠 뒤에는 십주기가 된다. 거의 한 달 내내 저 멀리 계신 아버지께 다가서려 해도 다가설 수 없어 수없이 꿈속에서조차 그리움에 시달리곤 했었는데 그때로부터 어느새 십 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지난 인연에만 묶여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사의 이치기에, 나는 선친의 유지를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락시장 큰 길 가 트럭 위의 돼지들! 죽어서라도 고기 한 점 남기려면, 나 주검이 된다할지라도 풀 한포기 거름조차 되질 못할 삶! 세상을 향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 십여 년 전 나의 뇌리를 스쳐지나갔던 그 생각을 되새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동짓달 추위가 매섭게 몰아치던 얼마 전! 일상의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다. 모니터를 응시한 채 일희일비하며 유리

창과 현관문 모두를 꼭꼭 잠그고 자연과 단절하고 있을 때, 또다시 생소한 소리가 들렸다. 그저 추위에 집이 움츠려드는 소리인가 생각하며 일손을 놓고 있지 않았는데, 이어지는 ‘딱딱’ ‘푸득푸득’ 소리에 결국 밖을 둘러보려 거실로 향했다. 언제 어떻게 꼭 닫힌 이곳으로 날아 든 것일까? 바로 그 박새가 거실로 다시 찾아 온 것이었다. 목덜미부터 다리까지 넥타이 모양의 짙고 검은 선이 하얀 배 위로 새겨진 수컷 박새가 이제는 아버지 사진 액자 위에 앉아 있었다. 그저 새 한 마리가 길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 무시해 버릴 수 있겠지만, 세 번째의 만남에서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다. 당신의 손길이 아직도 짙게 묻어있는 거실에 새가 되어 날아들어, 맑고 바르고 슬기롭게 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바라보고자 오셨던 것인가 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끝이 없나보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남을 것인가?

“아버지! 현명한 지혜를 주세요! 험한 세상 헤쳐갈 수 있도록 해안을 주시고, 진정한 아이들의 아빠가 되도록 사랑의 마음을 안겨 주세요. 당신의 딸들과 아들이 지금까지처럼 어우러져 함박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주세요! 당신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 주신 것에 진정 감사드리며, 또한 새 한 마리 되어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비문처럼 ‘깨끗하게 살았노라! 열심히 살았노라!’ 라고 저 또한 새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2010년 12월 30일



문화 현장

- 오경영 | 지방명소활용 풍류음악회 ‘풍류락’
- 이종남 | 광주문화원 공연단 ‘존재감을 무대에 올리다’
- 편집부 | 팔당 푸르내길 어디까지 왔나
- 편집부 | 광주문화의 이모저모

여 백

2010년 지방명소활용 남한산성 풍류음악회 “남한산성 風流樂”

오경영
본지 편집인

남한산성. 탐방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고 이들의 마음을 가볍게 흔드는 아주 특별한 가을 음악회가 열렸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원이 주관한 “남한산성 풍류락”으로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경기도·광주시·남한산성관광사업단이 후원한 2010년 지역명소활용 지원 사업이었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이어온 이 풍류음악회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5호인 침괘정에서 9월 19일부터 10월 23일 까지 매주 토·일요일 총 10회를 공연하였다.

남한산성과 풍류

‘풍류’란 무엇인가? ‘풍류’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숙된 일을 떠나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일. 음악을 예스럽게 일컫는 말’ 이라고 나와 있다. 풍류음악회 해설을 맡

은 최종민 교수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풍류’는 ‘음악을 통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고 사특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순수한 자아를 회복하는 玄妙之道로 믿어온 우리네의 고유한 도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러한 풍류도는 화랑도로 발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음악의 명칭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래서 국악을 아는 사람들 간에는 ‘풍류를 한다.’고 하면 영산회상을 연주하며 노는 것을 말한다. 거문고를 비롯해 대금, 해금, 세피리, 단소, 양금, 가야금, 장고 등으로 하는 줄풍류로 이는 선비들의 합주음악으로 전승되고 대풍류는 행진음악이나 무용반주음악으로 광대나 잡이들의 음악으로 전승되고 있다.

풍류음악회의 취지와 관련해 지방명소로서의 남한산성에 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남한산성은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서울 근교의 명소이다. 백제의 시조 온조왕을 모신 숭열전이 있고 조선시대의 행궁이 있었으며 1,000개가 넘는 한국의 산성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보존상태가 우수하다. 산 전체에 울창한 소나무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삼림욕을 즐길 수 있을 만큼 맑은 공기를 뿜어낸다. 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관광객도 증가할 추세지만 이곳에서 전통문화의 향기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럽게도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이 UNESCO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성곽 및 행궁 등 문화유산 복원, 숲속



남한산성 침패정

음악회, 전통연희마당 등 문화콘텐츠 사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남한산성을 수도권 대표적 문화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아무튼 전통음악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최고수준의 좋은 음악을 자연스럽게 감상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안목을 높여줄 수 있는 풍류음악회를 하기에 자연 경관, 역사 유적지, 접근성 등에서 광주의 명소로서 남한산성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다. 물론 의미를 따져볼 때 경기도 유형문화재 1호인 수어장대가 제격이지만 작년에 실시해본 결과 악기 운반 및 연주자의 이동의 어려움과 우천 시 공연이 불가하여 침패정으로 장소를 정하게 되었다. 원래 무기를 보관한 장소였던 침패정은 한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주변의 아늑한 공간과 내부 공간 활

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풍류음악에 제격이었고 특히 올 해는 남한산성관광사업단의 협조로 건물과 어우러지게 무대를 제작하여 공연 분위기를 훨씬 높여주었다.

최고 수준의 출연자와 프로그램

2009년 연주에는 야외 환경에 맞게 음량이 큰 평조희상을 자주 연주했고 대금 정악이나 거문고산조 가야금산조 피리정악 등을 독주하였다. 가곡을 8회 연주하고 소리와 춤은 10회 계속, 살풀이 · 승무 · 태평무 등을 추게 하였다.



또 범패를 5회 공연한 것은 영산재가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이 되었는데도 한국인들이 불교의 예능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범패를 꾸준히 공연했다. 반응은 참으로 좋았고 성악으로 판소리나 가곡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가곡을 조금 줄이고 정악도 시간을 줄이며 대중들과 호흡이 잘 맞는 연주를 선택

하여 관중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회차 별로 특색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른 음악도 그렇겠지만 국악은 특히 연주자에 따라 음악의 내용과 질이 천차만별이다. 남한산성 풍류음악회는 한국의 최고 음악가들을 초청하여 가곡은 6회를 계속 이동규(남창)와 인간문화재 김영기(여창)가 불렀다. 반주단은 사재성, 이오규, 윤선숙, 이삼스님, 권미선, 송인길, 조희춘, 김정집 등 국립국악원 출신들이다. 판소리는 대통령상을 받은 중견명창들과 요즘 TV프로그램 아침마당에 출연하여 대중적인 인기를 지닌 남상일이 출연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역시 방송매체의 힘은 대단했다. 춤도 대학 강사인 조명숙과 서울춤의 대가라는 이승희를 비롯 영남춤의 사범 박경랑이 추었다. 정악 연주자들은 모두 국악사양성소 출신들이고 대풍류를 한 최경만 이철주 김무경 등도 국악예술학교 출신으로 국내 최고연주자가 대거 출연한 음악회였다.

국악 해설의 묘미를 살리다

혹, 국악이라는 것을 오르기 힘든 높은 산으로 여겼던 분들이라면 최종민 교수의 알기 쉽고 재미있는 국악 해설의 덕을 톡톡히 보았을 것으로 안다.

물론 음악을 해설해준다는 것이 쓸모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최상이라고 하겠지만 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이 해설은 음악을 이해하고 느끼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받아들인다. 특히 정통 국악을 이해하는 데에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의 삶이 정통 국악 정서와 너무나 동떨어져있기 때문이다. 문명사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나타나고 사라지는 빠른 사회에서 현대인이 정통 국악의 여유로움을 받아들이기에 마음의 여유가 그리 많지는 않다.

사실 침괘정 앞에서 자연 속에 흐르는 국악을 고요히 들으면 그윽하게 전해오는 그 멋스러움을 절로 느낄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 공연을 총 연출한 최종민 교수의 해설을 함께 들으면 그 맛은 더욱 배가 된다. 풍류의 전통이라든가 남한산성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연결시켜 재미있게 설명을 들으면 그 음악과 춤이 전해주는 감동은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설이 관람객의 이해와 감동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



지만 최종민 교수는 이 해설을 국악 교육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는 우리전통예술에 대한 아름다움을 전하고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악적도사로의 사명감이기도 하다.

그는 서울대 음악대학 국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고 동양철학박사이기도 하며 대학교수와 국악고등학교 교장 역임 후 국립창극단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그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KBS, MBC TV 국악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KBS FM 국악방송 흥겨운 한마당 MC를 하며 구수하고 친근한 해설로 다양한 국악을 일반인이 알아듣도록 소개했고 2001년부터 국악방송 '최종민의 국악세상'을 진행하였다. 방송을 통해 국악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국악의 아름다움을 잘 설명하여 국악공연의 명사회자로서 국악의 격을 높이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해설의 명인으로 그를 일컬어 국악전도사니 국악의 부흥사니 해설의 달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이라고 해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풍류음악회의 훌륭한 출연자들이 빛어내는 연주와 노래, 춤을 명해설가에 의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특히 올해는 김영기 선생, 김세중 선생이 참신한 해설로 색다른 맛을 느끼게 해 준 명품음악회였다.

전통예술의 정신, 현대인의 삶에 스며들기를

궁극적으로 남한산성 풍류음악회가 광주, 혹은 광주를 찾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고민이 다 시금 찾아온다. 예술이 정신의 표현이라면 진정한 예술의 완성은 그 정신이 인간 본연의 삶에 녹아드는 것이 아닐까.

아무런 정보 없이 남한산성을 찾아 뜻밖의 수준 높은 공연에 감동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곡이나 범패 같은 음악에 익숙지 않아 지루하게 느껴진다는 관람객도 종종 있다. 저마다의 느낌은 다양하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 주 와서 듣는다는 마니아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큰 기쁨이며 내년에도 꼭 다시 찾겠다는 대다수의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 전통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TV 방송에서 우리 정통국악을 보기는 무척 힘들다. 왜냐하면 채널을 돌리기 때문이다. 방송을 좌지우지 하는 힘은 대중성이며 대중의 큰 축은 젊은 청소년층이고 이들이 선호하는 음악에 의해 방송이 편성되기 때문이다. 신세대 국악인으로 의상이나 무대매너 등에 현대요소를 대폭 가미해서 퓨전국악이니, 국악가요 등으로 대중과 호흡하며 국악이 살아남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봐야할지. 젊은 층을 사로잡을 묘안을 찾아야할 때가 아닐지.

국악당이나 혹은 전문 공연장을 찾아가 멀찌감치 무대에

서나 볼 수 있는 정통국악의 멋을, 한 마당에 둘러앉아 바로 내 눈앞에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건 분명코 흔한 일이 아니다. 남한산성이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선조들의 멋스러운 정신세계가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일이 풍류음악회에서 고요히 시작되었기를 바란다.

“광주문화원 공연단” 존재감을 무대에 올린다.

- 『2010 지역명예교사 사업』,
‘예로 차린 구절판’ -

이 종 남
본지 편집인

광주문화원의 표제는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광주문화원’이다. 이는 ‘온고이지신’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또 문화원이 해야 할 역할이기도 하다. 그것들은 곧 우리의 뿌리이고 그 뿌리들은 우리의 자존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과 원칙을 만들어가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을 다분히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 보다는 현대의 삶에 적용해서 아우르는 일이 중요하다.

공연 워크숍 ‘예로차린 구절판’

광주문화원에서는 지역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설화 퍼포먼스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2010 지역명예교사」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퍼포먼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사업으로 광주문화원이 기획하고 주관했다. 전국 각 기관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이번 사업은 경쟁이 경쟁인 만큼 3회에 걸쳐 심사를 하느라 계획보다 15일이 늦은 8월 13일에야 그 결과가 발표되었다.

워크숍 진행과정

선정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8월 말까지 문화원 문화교실 수강생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단원을 모집했으며, 9월 첫 주 사업 설명회 겸 제 1회 워크숍을 실시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된 이번 워크숍은 공연제작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작된 공연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설화를 발굴해 설화가 생겨난 배경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과정으로 단원들이 단순히 주어진 배역을 소화하기 보다는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점을 찾아가며 배우로 혹은 스태프로, 또는 시나리오 정리로 제작에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공연에 올린 설화는 초월읍 지월리에 전해지는 '가마소 설화'로 기본을 지키지 않아 슬픔을 겪게 된 이야기이다. 문화원이 많은 설화 중 '가마소 설화'를 택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은 삶에 있어서 기본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였다.

색다른 체험을 위한 도전

참여자 대부분이 아마추어 시민이므로 짧은 기간에 연습을 소화해내기가 매우 힘들었다.

워크숍이 막바지에 오를수록 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 애초 예산했던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단원들 대부분이 공연에서는 아마추어지만 각기 전문적인 일을 가지고 있어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들이라서 어려움이 상당히 컸다. 때로는 양자택일을 해야 할 정도로 시간을 할애해야 했기 때문에 갈등도 심화되었다. 또 연출가의 혹독한 요구는 개인에게 상처가 될 정도로 가혹한 것이어서 불협화음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기도 했다. 그런데도 단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마침내 공연을 성공시켰다.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연습하는 동안 무참히 깨지는 과정을 통해 동면 상련과도 같은 동지애가 생겨서일 수도 있고, 공연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중도 하차하면 단원 모두에게 피해가 갈 지 모른다는 성숙된 책임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 또는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거듭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23명의 참여자 모두가 일생일대의 색다른 체험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공연의 변화를 꾀하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연의 기본은 무엇인지, 공연이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등등 공연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사업 취지가 십분 달성된 셈이다. 광주에서는 공연기회가 적은 퍼포먼스 공연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이색적이었다. 단일 장르로 이루어진 기존 공연에 비해 여러 장르(문학, 미술, 음악, 무용, 스포츠, 퍼포먼스 등)를 통합한 것이어서 체험의 폭이 한층 넓었다고 할 수 있다. 공연 제목도 우리나라 고유 음식인 구절판에서 힌트를 얻어 '예로 차린 구절판'이라고 붙였다. 저 예산과 지역제작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공연에 비해 스케일이 단연 컸다. 아마추어들에겐 유능한 전문 연출가의 연출로 만들어진 공연에 배우로 선다는 것이 그리 흔한 기회는 아니다. 그런 연유로 공연을 마쳤을 대의 자부심도 남달랐을 것으로 본다. 400여명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공연은 성황을 이루었고, 시 당국으로부터 앙코르 공연을 요청 받을 만큼 작품성도 인정받았다.

총연출을 맡은 명예교사

이번 공연의 총연출을 맡은 '소니아 한'은 실험성 강한 공연을 주로 연출하는 전문 연출가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



모한 「2010 지역명예교사」 사업에 명예교사로 선정된 유능한 예술인이다. 3개월간 공연 워크숍을 진행한 그는 일상에서 소홀히 여기는 것들, 홀대받는 것들을 무대 의상 및 소품으로 쓰면서 이 세상에 하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의 철학을 공연을 통해 전달했다. 탁월한 연출력과 일상 생활에서 널리 쓰이거나, 폐기된 물건들을 소품이나 의상으로 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주목을 끌며 무대의상이 값나가는 재료로 특별히 제작될 것이라는 통념을 깨기도 했다. 그의 연출은 특별한 주인공이 없이 등장인물들에게 고루고루 비슷한 비중의 배역을 맡게 함으로써 우리 인생에도 우리 각자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거듭 일깨워주는 특징이 있다.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지역 공연문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평을 했고, 참여자들이나 관객들은 광주 공연문화 발전에 획기적인 발판이 될 것이라 입을 모으기도 했다.

공연 성과

광주문화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우선 단원들 모두 힘겨운 시간을 극복하며 행복해 했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 자신과 깊이 대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예술에 대한 quality도 한층 높아졌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에너지를 확인한 단원들이 귀한 체험을 함께한 동지애를 발판으로 향후 조출한 모임을 구성해 광주문화발전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문화원으로선 문화가족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올린 셈이다.

또 이번 공연을 통해 지역설화를 발굴하고 알리는 문화원의 주요 임무를 백분 수행하게 되었으며 공연에 있어 앞으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도 성과를 올린 셈이다. 수준 높은 공연을 함으로써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일조했다고 본다.

공연을 통해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공연의 목적은 다양할 수 있다.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거나, 자기를 표현함으로써 상대와 교류하는 가운데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일 수도 있으며, 삶의 지침을 얻는 것일 수도 있다. 거기엔 수준 높은 전문가의 공연도 있고, 아마추어들의 풋풋한 공연도 있다. 그러나 행복한 삶을 위해 길을 연다는 데는 뜻을 달리 할 수 없다.

독창성있는 공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 해 동안에도 수 많은 공연이 제작되고 무대에 올려진다.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또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수준 높은 공연들이 대부분 대도시 중심으로 오르고 있어 지역에서는 여전히 변방으로서의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 내에서의 문화예술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광주 파발극회의 연극이나, 광주시립 광지원농악단의 풍물은 이미 전국적으로도 인정받은 수준급 공연이고, 동호회나 전문 단체들이 속속 그들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광주공연 문화의 전망이 밝다.

이러한 활동들이 보다 더 시민들의 삶 속으로 파고 들어가 실질적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광주문화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많은 가능성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광주문화의 중심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화를 선도하고 이끌어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에필로그-

◆ 남재호 광주문화원장님께 드리는 감사편지

이번 명예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시민공연단은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된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전국 어디에 이처럼 공연단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혼신을 다해 지원하고 진심으로 응원하는 기관이 있겠습니까. 광주문화원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와 자상한 배려는 참여자 모두가 평생 잊지 못할 따듯한 기억으로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김진영 사무국장님과 이종남 실장님, 그리고 오경영 과장님 등 모든 분들이 열정과 사랑으로 이번 공연에 힘을 보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원장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열악한 문화·예술 환경을 비옥하게 만들고자 남다른 각오로 일선에서 애 쓰시는 문화원의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더 뜻 깊은 워크숍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연단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를 해 주신 광주문화원 문화학교와 광지원농악단, 그리고 관계자들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서로 다른 분야가 함께 공감하고 협조하는 일이 말



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너른고을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광주문화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기적처럼 공연을 만들어 낸 일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상호협조와 공감대의 태도이라 생각합니다. 뿔뿔이 헤어져 각자의 길만을 걷던

각기 다른 문화·예술 분야의 일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고 힘을 뭉쳐 우리 동네의 자긍심을 확인하고 그 가치를 위해 지속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 마련해 주신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단원들은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예술의 가치를 경험했으며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보석의 빛이 지속적으로 지역민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원과 관계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2010년 12월 4일

2010년 명예교사 프로젝트

“예로 차린 구절판” 시민공연단 일동

◆ 공연단 가족께 드리는 감사편지

이번 공연에 총연출을 맡은 소니아 한입니다.

그간 공연 연습 때문에 밤늦도록 자리를 비우며 가족들의 일상을 돌보지 못한 출연진에게 이처럼 많은 인내와 이해를 가지고 끝까지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하신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부모로, 부모님의 자식으로,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흐트러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은 가족이 느끼는 공허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신 공연단 가족들의 깊은 사랑에 저 역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지켜나가는 일은 삶의 무게에 눌려 그 흔적을 잃고 세월이 갈수록 영혼은 메마르고 자신감을 잃게 되기 마련이지요. 우리 공연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연 그 자체보다도 삶의 의미를 찾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각자가 가진 잠재력에 도전해보면서 용기를 배우고 자신감을 되찾고, 주변과의 화해와 이웃에 대한 배려를 배우는 워크숍이었습니다. 또한 예술을 통한 문화체험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컨텐츠 시대에 자녀세대와의 소통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연습과정에서 겪게 되는 좌절감과 회의, 그리고 일상과의 조화가 깨지는 스트레스 등을 이겨나가기 위해 눈물과 피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들이 극복해낼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도전하고 극복하는 힘이 어디에 있었는지 깨닫는 순간 저 또한 자신이 생겼습니다.

멋진 엄마의 모습, 도전하는 아내의 모습, 당당한 아빠의 모습, 자랑스러운 자식의 모습, 이 보다 더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모습

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족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우리가 무대에 올린 것은 앞으로 꾸려갈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이었습니다. 우리 출연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분들과 함께 할 삶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소중한 가족을 제게 보내주셔서 또 하나의 가족을 탄생시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0년 12월 6일

총연출 소니아 한 드림

◆ 사랑하는 공연단 여러분께!

재를 넘고 계곡을 건너 산마루를 향해 내딛던 힘겨운 발걸음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 정상에 서서 우리는 구름 아래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탁 트이도록 야호~~를 외쳐 보기도 했습니다. 산의 정상에서 내려다볼 때, 대자연이 보여주는 창조의 결실 앞에서 문득 우리의 존재가 너무도 미미한 것을 느끼듯 이번 공연을 통해 여러분들도 창조에너지의 위대함과 생명에 대한 경의를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 얻은 많은 느낌들을 잘 버무려 겸허한 자세를 가꾸어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각기 다른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모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이 재미있을 줄 알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여러분이 겪은 지난 3달은 너무도 혹독하고 모멸스럽고 자존심 상하는 배신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서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자리에 또 매질을 당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는

지, 저의 입은 얼마나 험하고, 성질은 또 오죽합니까. 시간과의 싸움 그리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저의 철면피 같은 요구를 어찌 그리도 잘 견뎌냈습니까?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고백하자면, 때로는 여러분을 칭찬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모든 것을 허물어버린다는 것을 너무도 명백하게 알고 있는 저로서는 기다려야했습니다.

두 달이 지나면서부터 한사람씩 제대로 된 태도와 모양새가 나올 때면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칭찬할 수 없었습니다. 다 함께 가야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 워크숍에서 상대가 모멸감을 느끼고 깨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본인이 당할 때 억울하던 것이 남이 당할 때는 타당성이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함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함께 무언가를 이룩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똑같이 당한 고통과 설움이 서로를 이해시키고 결속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사람씩 따로 만나 지적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단체였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만이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원천에너지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촉박한 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을 이룩하려는 저의 스트레스도 많았지만 어디 여러분이 겪은 것만 하겠습니까. 너무도 잘 참아주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무대에서 본 여러분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한사람씩 그런 모습이 무대에서 보여 질 때 칭찬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했었습니다. 허나 아직 질타를 받아야할 분들이 남아있기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번 퍼포먼스 극에서 주인공이 따로 없고 각 장면에 서는 이가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개인의 발전에도 경쟁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제가 가진 신념입니다.

누구는 앞서가고 누구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 다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 정상에 다다를 때까지 저의 뛰는 가슴도, 뿌듯함도, 고마움도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참 너무했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그간 여러분 마음에 입힌 상처를 사과드리고 쓰다듬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못난 사람을 믿고 따라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스승들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디 우리 단원들만큼 순수하고 당당한 인간 있으면 나와 봐라~~”입니다.

내년 1월 7일 토요일에 퇴촌에서 1박2일로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 때 여러분 개개인에게 보내는 저의 편지를 가져가겠습니다. 사진과 영상자료도 준비된 만큼은 가져갈게요.

오늘 우리는 헤어지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 두고두고 장아찌처럼 찾아먹으며 살으렵니다.

2010년 12월 6일

여러분의 벗, 소니아 한 드립



◆ ‘예로 차린 구절판’ 공연을 마치고.

이제야 그 음악이 나를 흔든다 육신은 다져지고, 영혼은 어루만진다.' 라고 표현들을 한다.

나는 소니아 선생님과 만나면서 육신은 영혼이 깃들여 사는 하나의 틀이기에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영혼부터 깨부셔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깨지지 않는 답답한 영혼들을 망치로 깨야 하는 역할이 어찌면 나를 낳아준 이도, 나와 같이 사는 이도, 나와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도, 그 누구도 못해 주는 가장 필요한 역할이었다.

내 스스로가 뱀을 싫어하면서도 나를 일으켜 주기 위해 내 육신의 틀에서 순수한 영혼을 보기 위해 깨부셔야 하는 작업을 할 때 독을 품은 독사처럼 머리를 꼿꼿이 들며 언제든 독을 품을 자세를 취하고 오만함을 가득 품은 채 늦은 연습을 마치고 이배재를 넘으면서 독을 품어달 여우를 만나기를 꿈꿨었다.

막이 오른 날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었던 무대 위의 동작 하나하나를 통해 자신의 아픔을 보았다던 한 단원이 마치 그 쇠사슬에 갇혀 몸부림치는 것이 자신이라는 생각에 너무나 많이 울었다고 한다. 아싸 -

막이 내려지고

영희 언니는 자신이 늘 일상의 주인공인줄만 알았는데 동네 아주머니 역할을 하면서 깨어났다고 하고, 전덕순 언니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남이야”라는 기가 막힌 대사가 자신의 이야기라며 실감 있게 연기하곤 속이 다 시원하다고 했다. 언니, 멋있어요.

해수는 경분 씨가 어망 춤 소품을 찾자 함께 찾아주는 것처럼 구석으로 몰고 가더니 그걸 왜 내게 와서 찾고 지랄이야. 하며 익살스런 농담을 건넸다. 잊을 수 없는 자연스러움에 지금도 웃음이 나온다. 해수가 나를 “연준아” 라고 불러 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내 속을 다 까뒤집어 보여 주어도 창피하지 않을 사람으로 여겼다. 진정한 친구를 얻은 건가?

뒤풀이 장소에서

나훈아가 부른 ‘내 삶을 눈물로 채워도……’

해수가 분위기 깬다고 난리를 치는 순간 음악은 흐르고, 내가 처절히 바닥을 기어 다닐 때마다 소니아 선생님은 깨어 나온 영혼을 받아 성스럽게 춤으로 위로 하는 의식을 행해 주셨다. 어쩌면 이리도 ~

우리 신랑(본인과 20여살 어린 공연 배역 남편)

“색시아 조금만 기다려” 태진아의 동반자가 나오자 21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범상치 않은 끼를 발동하자 단원들은 평생을 웃어도 다 웃지 못 할 정도로 포복절도하며 자신들의 끼를 아낌없이 표출했다. 내 진작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귀가해보니

아이들의 아버지인 우리 방 선생은 내게 “당신 짱이야”? 라고 유행어로 표현해 주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난 지금도 내가 출연했던 11막의 음악을 잊을 수가 없으며, 그 음악을 들으면 펄펄 끓는 방처럼 내 피도 그렇게 뜨겁게 끓어오른다.

오늘 아침, 난 내 영혼이, 소니아 선생님의 영혼이, 우리 단원들의 영혼이, 우리를 위해 늦도록 함께 해준 사무국장님의 영혼

과 이 실장님, 오 과장님 그리고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의 영혼들이 감사해 콧등이 시큰해졌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인사를 이렇게 전하고 싶어졌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영혼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광주문화원 최고!

- 박연준(단원, 문화교실 중국어 강사)

◆ 달이 뜨네

'예로 차린 구절판' 공연을 마치고-

덕화 김영희(단원, 시인)

*달이 뜨네 너른고을에 두둥실 달이 뜨네

가마소 설화 한 편을 끌어안고 밤새워 노닐다가
한바탕 꿈을 꾸고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달처럼 보이네

소니아 한의 두 눈에 빙그르르 도는 눈물을 작은 종지가슴에
샘물 채우듯 채우고 채워 달처럼 둥근 채반을 들고 달춤을 추고
보니 오 채반이 은은한 달이 되었네 양푼이 달이 되고 접시가 달
이 되고 둥근 것은 모두 달이 되는구나

아 나는 평생 달을 만지며 살았어 아니 달을 안고 살았어

아니 저기 좀 보아 예로 차린 밥상에서 채반 들고 둥근 달춤
을 본 너른고을 사람들

뺨간 끈의 몸부림을 보고 눈물 흘린 사람들

가마소의 슬픈 사연 가슴에 담고 이즈러진 자신의 반달을 사랑
하는 이의 반달과 께옥 맞추고

둥근 달의 황홀한 빛을 받아 모두 달이 되네

천 개 만 개의 달이 되었네 달이 되어 너른고을을 구름속의
달처럼 사분사분 춤추며 가고 있네

달이 뜨네 너른고을에 두둥실 달이 뜨네.

*공연 노래 가사 중에서(소니아 한 지음)

“팔당 푸르내길” 어디까지 왔나?

편집부

자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부터 산책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보여행이 각광을 받으면서 길에 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제주 올레길이나 지리산 둘레길 등 길에 관한 문화 사업이 지역 살림을 키울 정도로 성공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굳이 문화산업으로서의 성공을 논하지 않더라도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를 활용한다면 자연과 하나 되는 정서적 차원에서도 이는 바람직한 일이다.

광주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산책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양평, 남양주 세 지역이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비중 있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현재 4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팔당 푸르내길의 4코스는 수도권의 젓줄인 팔당호를 따라 온전히 걷는 사람

들만을 위한 테마 형 걷기 체험 장이다. 아름다운 팔당호 주변을 땀을 흘리며 걷다 보면 자연과 내가 하나 됨을 느끼게 될 것이다.

팔당 푸르내길 전 코스



푸르내길 1코스



푸르내길 2코스

제1코스를 조성할 계획인 양평은 “수려한 산과 강, 맑고 깨끗한 공기! 몸소 체험하다보면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됨을 느끼게 된다.”라는 표제로 양수역에서 출발해 양서문화체육공원을 거쳐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지나 애벌레 생태학교 인근에 있는 한강물환경연구소로 돌아오는 기존 코스를 정비할 계획이다.

제2 코스는 남양주에서 조성할 계획인데 “손을 뻗으면 물이 닿을 듯 지척인 길을 홀로 걷다보면 인간도 자연의 일부가 된다!” 라는 표제를 내걸고 조안면에 있는 다산정약용

유적지를 중심으로 다산 생가(여유당)와 실학박물관을 거쳐 토기섬을 돌아오도록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광주는 "곧게 뻗은 나무처럼, 풀숲에서 자태를 뽐내는 꽃처럼, 유유히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도 한 때는 자연의 일부였다."라는 표제의 3코스와 "새, 곤충, 꽃 등 생태계의 보고! 여유롭고 고즈넉한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그리고 더 느리게 걷고 싶다."라는 표제의 4코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푸르내길’이란 명칭은 생명과 청정함을 상징하는 ‘푸른’과 하천을 뜻하는 ‘내’의 합성어에 ‘푸르네!’라는 감탄사의 느낌을 추가해서 ‘팔당이 푸르다’ 즉 자연과 물이 모두 깨끗한 팔당이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팔당호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물길을 끼고 조성 되는 것으로 모두 ‘자연과 하나 되는 인간’을 주제로 삼고 있다.

광주 팔당 푸르내길 - 제3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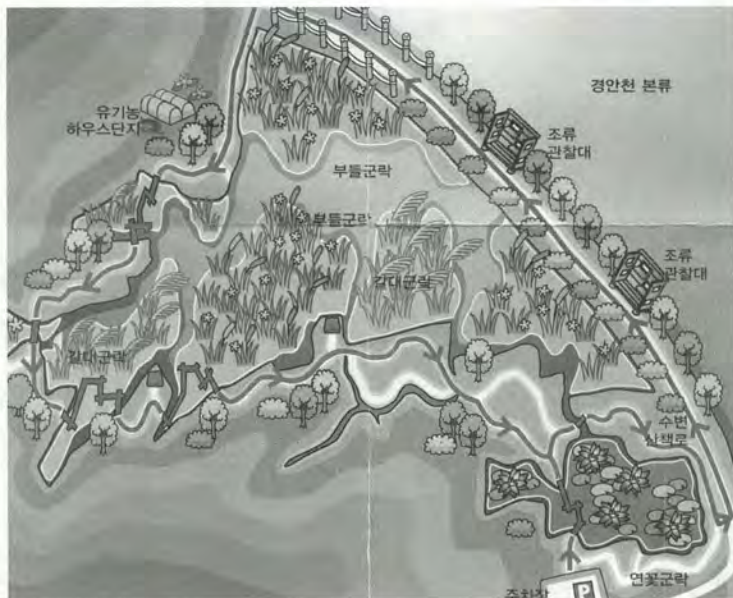
제3코스는 분원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하여 감투바위와 영산홍 꽃길을 거쳐 망조고개에 있는 구름다리를 건너 팔당전망대 내에 있는 물환경전시관을 지나 분원백자관을 마지막으로 분원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이 푸르내길은 약 3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되며 등산로와 연결되어 있어 산책로로는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감투바위 위에서 바라보는 팔당호는 절경이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팔당전망대에 있는 전시



관은 ‘시간 여행으로 만나는 팔당호’를 주제로 도입의 장, 교육의 장, 홍보의 장으로 나누어 단순히 걷기만을 위한 길 외에도 교육의 장을 포함시킴으로써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교육의 장은 팔당호의 현황과 팔당호의 자연, 물의 중요성 등으로, 또 홍보의 장(전망대)은 팔당호와 주변 조망, 팔당호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역사연표 등으로 꾸며져 있다. 이와 함께 취수와 정수과정,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 팔당호에 사는 동·식물 등에 관한 자료도 전시하고 있다. 다음 관람지인 분원 백자관은 분원리 조선백자 가마터 발굴을 계기로 마지막 조선왕실 가마터 유적지에 설립되었다. 전시관 외관은 철판으로 둘러싸서 수장고의 이미지를 형상화시켰으며, 전시관 내부에는 바닥 도판 전시물과 토층전사 패널, 멀티스크린, 분원리 출토 요도와 백자편, 경기도 도자 유적 파편유물, 경기도광주 백자편, 조선백자 완형유물 등을 전시해 놓고 있다.

광주 팔당 푸르내길 - 제4코스

광주 팔당 푸르내길의 제4코스는 경안천생태습지공원을 중심으로 팔당호 방과제를 끼고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코스를 잡고 있다. 우선 입구인 주차장에 연꽃 군락이 조성되어 있어 제철엔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경안천생태습지공원은 팔당호를 끼고 있는 수중 생태계 보고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줄잡아 1시간은 족히 걸릴 산책로 주변엔 불거리들이 성하다. 2km 길이의 산책로 길 대부분이 S자 형태로 구불구불해 생태계 구석구석에 발길이 가고 눈길이 닿는다. 왼쪽으로는 공원에서 경안천으로, 경안천에서 팔당호로 유유히 흐르는 물길이 평화롭고, 오른쪽으로는 부들군락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 장관을 연출한다. 산책로 곳곳엔 조류 관찰대와 경안천에 사는 동·식물에 대한 해설들이 자세



히 안내되어 있다. 습지에 있는 갈대군락도 볼거리 중의 하나다. 경안천으로 이어진 1만 6,000km² 규모의 이 습지공원은 빼어난 외관상의 경관도 경관이지만 스스로 정화작용을 하는 자연 생태 습지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 정화작용이 뛰어난 연꽃, 노랑꽃 창포, 물수세미, 개구리자리 등 수 많은 식물들이 경안천물을 맑게 정화시키고 있다. 해마다 수중 숲이 점점 터를 넓히는 이곳은 철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무수한 생명이 질편하게 제 삶의 유희를 즐기는 이곳은 광주시민은 물론, 문인이나 화가,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팔당 푸르내길의 전망

주 5일 근무로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주말이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멀리, 또 가까이 자연 속에서 심신을 달래고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해서 전국적으로 여행지 개발은 과열될 만큼 붐을 이루고 있다. 그 이면엔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 측면도 있다. 무엇인가를 개발하고 조성한다는 것은 기존의 것들을 정비해야하므로 그것이 아무리 최소 단위라 하더라도 훼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연과 함께 한다는 명분이 자칫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예산 문제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어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경안천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당푸르내길’이 답사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친 후에도 아직 착수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서울 인근에 이토록 빼어난 경관을 갖춘 탐방지가 그리 흔치 않음을 감안할 때 충분히 조성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광주의 경우 제4코스인 경안천 습지 생태공원부터 시작해 광동리를 거쳐 망조고개로 올라가 제3코스를 한 바퀴 돌아본다면 타 지역의 어느 길과 비교해도 손색이 가지 않을 것이다. 팔당호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갖춘 이 천혜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 광주로서는 도전해볼 만한 프로젝트라 생각된다.

꼭 이름을 짓고 무엇인가를 세워놓아야 길이 되는 건 아니다. 우선 가까이에 있는 내 지역의 길을 탐방해보고 그 가치를 생각해보는 관심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에서 관심을 갖고 조성해 나가고 있는 경안천변 산책로와 함께 팔당푸르내길이 연결만 된다면 아주 환상적인 코스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편 상 어려움이 많아 현재 계획인 팔당푸르내길을 우선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니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문화의 이모저모

편집부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한다. 문화예술은 한 사회 한 국가를 구성하는 삶과 가치관의 표현이며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문화예술 경향을 살펴보는 일은 문화원으로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우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다. 한 시대를 아우르는 예술경향은 매우 다양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에 의해 끊임 없이 분화, 생성, 소멸하여 한마디로 언급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문화예술을 이루는 근간인 예술과 미의식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관심과 표현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해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졌던 문화예술행사를 되돌아 보면 광주문화예술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일이 가능하리라 본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음악

예술의 분야는 참으로 다양하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음악만 해도 크게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으로, 서양 음악과 우리 전통음악으로 나뉜다. 이들도 내부로 들어가면 그 장르가 더욱 세분화 되어 주류가 아닌 인디음악까지 하나의 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여름, '남한산성 행궁복원 KBS 열린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지명도가 있는 한국방송공사의 TV프로그램 덕인지 비가 오는 날씨에도 시민들의 호응은 대단하였으며 대중음악과 클래식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남한산성의 행궁복원을 전국에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어 가을에도 남한산성에서는 '지방명소활용 남한산성 풍류음악회'가 열려 자연 속에서 정통 국악의 정수를 맛보며 풍류에 깃든 멋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우리 지역에는 클래식 음악분야의 활동이 두드러지



고 있다. 그동안 광주오케스트라가 광주의 클래식 음악보급에 꾸준히 힘써 왔는데 2008년에 창단된 광주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활동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두 단체는 일 년에 한 두 차례 정기연주회를 기본으로 시민초청음악회, 남한산성음악회, 청소년 협연의 밤, 시청로비음악회, 찾아가는 클래식 연주회 등을 선보이고 있다. 아울러 합창단 및 청소년오케스트라를 통해 미래의 훌륭한 음악가를 키우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시민들과의 거리가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

또 하나, 음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12월, 광주오페라단 창단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새로운 감동을 주는 오페라단의 공연을 비롯해 풍성한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깊이 따지지 않아도 우선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문학, 존재를 찾아

인류가 쌓아온 근간은 문명이다. 5천 년간 축적해온 문학, 역사, 철학이 문화콘텐츠의 중심을 차지하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근 가장 비인기 품목으로 전락한 인문학이 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에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을 해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역시 인간이기 때문이다. 올해 문화원에서 태동한 ‘인문학교실’은 그래서 매



우 의미 있고 반가운 일이며 아직은 시작 단계로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그 문이 활짝 열려있다.

광주에 잘 알려진 문학회로는 ‘너른고을문학회’와 ‘한국문인협회 광주시지부’ 두 단체가 있다.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기본으로 동인지 발간과 시민 대상 문학축전을 펼치며 문학으로 시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문인협회 광주시지부에서 올해 시작한 ‘제1회 남한산성문학제’는 지나가던 탐방객의 마음을 끌어 모아 시원한 그늘에 앉아 시낭송을 감상할 수 있었던 신선한 프로그램이었다.

미술로 세상 바라보기

광주에 위치한 유일한 미술관인 ‘영은미술관’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행사로 지역미술문화 발전

을 이끌어오고 있다. 동시대 현대예술작품을 소장, 전시하고, 전문 작가에겐 창작스튜디오를 운영 지원하며 기획전과 개인전으로 현대미술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확대와 주변 학교 등을 연계하여 미술체험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예술과 대중의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어 광주시민의 보다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시정홍보관이 있는 터미널 문화센터에는 미술 작품을 상시 관람할 수 있는 미술 전시관이 운영되고 있다. 올 한해 광주미술협회 회원들 및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작가에겐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장소를, 시민들에겐 미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연말에는 광주문화원 미술반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회도 열렸다. 문화원은 서양화반과 한국화반을 운영 중인데 수강생들에게 있어 이

번 작품전은 그간의 노력에 대한 보람인 동시에 미술인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다.

인생은 연극이다

광주 문화의 뿌리를 튼튼히 하고 있는 연극계는 특히 청소년 연극에서 풍성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경화여자e비즈니스고등학교와 광주고가 제14회전국청소년연극제와 제5회 SAC 청소년연극제 등 전국규모의 연극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작품뿐만 아니라 개인상도 휩쓸면서 광주 청소년연극의 저력을 확인시켜주었고 앞으로 문화예술계의 주역이 될 기대주가 되었다.

이는 전문연극인을 배출하고 있는 광주예술극장의 운영이 밑거름이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연말기획공연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장터 공연에서 유래한 코메디아 델 아르테 장르의 희극 ‘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Il Servitore di due Padroni)’을 선보였다.

또 12월에는 송정4통 노인회의 ‘춘향전’이 공연되었다. 본 공연은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어 가는 노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송정4통 노인정 회원 20명이 지난 4월부터 준비하여 완성한 연극으로 2006년부터 시작하여 실버 세대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광주 공연문화의 결정판은 광주문화원에서 지역 명



예교사 사업인 '예로 차린 구절판'이 아닐까 한다. 통합 공연워크숍으로 공연 예술의 독창성을 가진 새로운 시도로 시민과 공연관계자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24만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로 '제7회 광주예술제'와 '제15회 남한산성문화제'가 6월과 9월에 열렸으며 각 지역마다 계절마다 크고 작은 문화행사가 열렸다. 광주의 전통을 잇고 있는 광주시립농악단과 전통무용단은 축제의 꽃이 되고 있다.

진짜 문화가 중요하다

새무얼 헌팅턴의 책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에서 새겨들 만한 대목이 있다. 1960년대 경제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아프리카의 가나와의 비교인데, 당시 두 나라는 1인당 GNP가 비슷했고 1차(농산물)·2차(공산품)·서비스의 경제 점유분포도 비슷했다. 당시 한국은 제대로 만들어 내는 공산품이 없었고 양국은 상당한 경제 원조를 받고 있었다. 30년 뒤 한국은 세계 1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강국

으로 발전하여 우수한 다국적기업을 거느리고 자동차, 전자장비, 고도의 기술집약적 2차 제품을 수출하는 나라로 부상했지만 반면 가나의 1인당 GNP는 한국의 15분의 1 수준이다. 이런 엄청난 발전의 차이는 물론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가 볼 때 ‘문화’가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이야기다. 문화의 의미는 다양하지만, 한국인의 근면성, 전통적인 가치관, 위기의 경험으로 배운 삶의 의지 등 말 그대로 5천년의 역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커다란 문화적 자산이라는 것이다.

광주가 시로 승격한 지 10년, 그간 여러 사회 모습이 변하였지만 인구증가와 아파트로의 주거문화 변화로 시민의 문화욕구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예술문화인의 활동이 이에 부응했는지, 진짜로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커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동안 광주가 달고 다닌 ‘문화 불모지’라는 꼬리표를 하나씩 떼어내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2011년 스포츠문화센터가 건립되면 전문가에 의한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예술인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듯 광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가 절실하다고 본다. 최근 이유야 어쨌든 새로운 문화단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는 문화예술발전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로 환영할 일이다. 조심

스런 우려가 제기되고도 있지만 우수한 광주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서로 협력과 조화를 이뤄야할 것이다.

예술가 자신들은 순수예술에 대한 기본정신을 잃지 말아야할 것이다. 예술정신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을 심미적인 경지로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예술인은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존의 틀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경지로 접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항시 자신의 재능을 의심하고, 창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생계를 고민해야하는 끝없는 불안 속에 살아남을 진정한 예술인의 길, 예술 자체에 대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그 길을 가기를 바란다. 그러다 보만 진짜 중요한 문화적 자산은 저절로 커져가지 않을까 믿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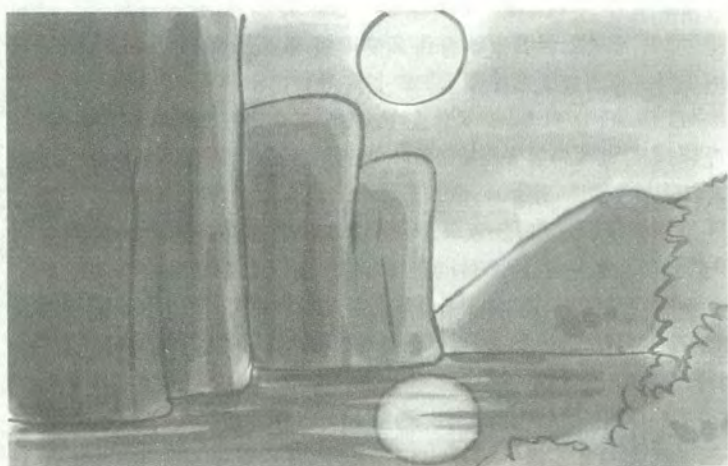
너른고을 옛이야기

■ 가마소 설화

여 백

가마소 설화

이종남
본지 편집인



송정동에서 퇴촌방향으로 2Km쯤 내려가면 '지월리'라는 아름다운 지명의 마을이 있는데 유난히도 달과 인연이 깊어 '설월리'라고도 부른다. 이 마을 앞에 곤지암 천과 경안천이 합류해 팔당호로 흘러들어가는 소가 있는데 수면으로 보면 얇은 물이어서 갑자기 빨려 들어가는 수심 때문에 종

종 역사사고가 생기기도 하는 장소이다. 이 인근엔 물이 유독 맑아서 맑을 경자를 쓴 ‘경수’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름만큼 물속에 비치는 달빛이 환해서 달밤엔 이 일대가 유난히 환하다. 이 마을엔 아름다운 지명만큼이나 맑고도 애절한 사연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니 그것이 곧 ‘가마소’에 관한 이야기다. 이 ‘가마소’에는 하늘이 맺어준 배필을 외면하고 세속적인 연을 따르다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된 처녀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아주 오래된 옛날의 일이다.

이 마을엔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초로에 접어든 부부는 큰 벼슬을 하진 못했어도 선대부터 워낙 근면 성실한지라 꽤 많은 전답과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하인들도 여럿 두고 있었다. 부부가 다 후덕한지라 인심이 늘 훈훈했다.

“보름달이 저리 환하게 떠오르는걸 보니 올해도 풍년이 겠지요?”

“그러게 말이오. 금년에는 박 서방 네 거처를 따로 한 채 지어야겠소.”

남편은 책력을 넘기며 새로 방 한 칸을 들일 적당한 시기를 알아보느라 아내의 말에 느리게 대꾸했다.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사는 데는 박 서방 부처의 힘이 크지요. 박 서방네나 우리나라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오죽이나 좋아. 제 덕이 부족해서 그만…….”

아내는 금세 얼굴이 저녁처럼 어두워졌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여겼다.

“그게 어디 부인 탓이오. 다 우리들이 타고난 팔자지.”

지아비의 위로는 언제나 더 큰 못이 되어 가슴에 와 박혔다. 금슬이 너무 좋으면 자손이 생기지 않는다는 옛말이 이들을 두고 하는 말 같았다.

부영이가 화를 치고 날아가는지 밝은 달빛을 뚫고 엄숙하기 짝이 없는 그림자가 마당으로 지나갔다.

부인은 정갈하게 빗은 머리를 다시 한 번 메 만지고 하얀 버선발로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갔다. 뒤뜰에 칠성단을 모셔놓고 벌써 백 일 째 치성을 드리는 중인데 내일이 정월 대보름인데다 기도 백 일 째 되는 날이라 특별히 마음이 더 숙연해지는 것이었다. 쪽머리가 땅에 닿도록 수차례 다소 곳이 치성을 드리는 부인의 가르마가 달빛에 가느다랗게 빛났다. 지아비의 마음은 애잔히 녹아드는 듯 했다. 그도 가만히 아내의 곁에 무릎을 꿇었다.

이 순수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슬픔으로 몰아넣을 권리를 가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듯했다.

달이 점점 크게 떠올라 하늘을 가득 채웠다. 부인은 그 기운이 온몸으로 차올라 숨을 몰아쉬는 수밖에 없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어딘가로 자꾸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는데 흰 수염을 휘날리는 노인이 손을 잡아주는 바람에 간신히 중심을 잡고 섰다. “이 마을에

서 가장 깊은 곳에 다리를 놓고, 새벽에 그 다리 위에서 치성을 드리거라. 그리하면 손을 볼 수가 있을 것인즉, 장성하게 되면 신분을 생각 하지 말고 혼사를 치르거라. 만일 내 말을 거역하면 큰 화가 미칠 것이니라.”

노인은 학을 타고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부인은 온몸이 형용할 수없는 바람의 기운으로 터질 것 같았고 웬지 끝도 없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남편이 흔들여 깨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슬픔과 기쁨은 같은 것이라고 했던가? 꿈에서 깬 후에도 흐느낌은 계속되었다.

“참 신기한 꿈이 예요. 신령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정말일까요?”

“당신의 지성이 하느님을 감동시켰나 보오. 너무도 기쁘오.”

“그런데 하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남편은 좋아하면서도 염려하는 아내의 모습이 애처로웠으나 우선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그게 무슨 뜻이든 자식만 점지해 주신다면야 못 따를 것이 무엇이 있겠소. 암! 무슨 일이라도 마땅히 따라야지.”

부부는 그날부터 물줄기 중 가장 깊은 곳을 골라 다리를 놓기 시작했다. 다리에 쓰이는 자재를 최고로 좋은 것으로 고르고 정성을 다해 작업에 착수했다.

새벽 공기는 유난히 맑아서 마음을 상쾌하게 했다. 부부

는 매일을 하루같이 촛불을 밝히고 정화수를 올려 치성을 드렸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올 즈음이면 하늘이 온통 여명으로 붉게 물들었다. 부부는 그런 아침이 좋아 마냥 행복하게 걸었다. 풀잎도, 이슬도 천지가 맑게 깨어나는 듯했다.

치성을 드린 지 석 달 열흘, 베틀에 앉아 베를 짜던 부인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다. 지축이 흔들리더니 하늘에서 찬란한 빛이 누리 가득 퍼졌다. 너무도 눈이 부셔 쳐다볼 수 없었는데 그 빛 속에서 구슬 하나가 내려와 창문을 통해 부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부인은 너무 놀라 흠칫 잠에서 깨어났다. 하도 기이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혹시 태몽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떨렸다. 어딘가에 등실 떠올라 천하를 내려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조심스러워 지아비 외에는 누구에게도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 후로 곧 태기가 느껴졌다.

부인이 산기가 돌아 하인들이 분주히 소리 없이 오고갔다. 마침 박 서방 아내도 산기가 있어 배를 앓았지만 주인마님과 함께 아이를 낳는 다는 게 민망해 입을 틀어막고 쥐죽은 듯이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 오랜 산고 끝에 부인은 드디어 건강한 딸을 낳았다. 바라던 아들이 아니었지만 위낙 자손이 없었던 터라 딸이어도 그저 감지덕지였다. 박 서방 아내도 아들을 낳았다. 뿔 듯이 기뻐으나 주인댁은 딸인

데 자신만 아들을 얻은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에 박 서방만 공연히 연신 머리를 조아려 민망함을 표했다.

봄과 여름이, 또 가을과 겨울이 격류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저 애기썬 참 영리하기도 해”

“그러게 말여. 인물이 흰하지?”

“암, 치성을 드려 얻었으니 안 그렇겠어? 이담에 누가 데려갈지 참 복 받은 거.”

부모의 손을 잡고 외출을 할라치면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령님으로부터 구슬을 얻어 낳았다 하여 ‘구슬’이라 이름 지었다. 금지옥엽은 나날이 어여쁘게 자랐다.

우수수 지는 꽃잎처럼 계절이 밀려갔다 또 밀려오곤 했다. 세월은 구슬이의 꽃피는 영혼에 환하게 걸려서 그의 눈매에는 푸른 바다가 그득히 깃들었다.

돌쇠는 새벽마다 이상한 꿈에서 깨어나곤 했다. 나무뿌리가 몸을 뚫고 들어와 핏줄을 따라 쭉쭉 뻗는 바람에 전신이 뼈근하게 아픈가 하면, 자꾸 구슬아가씨의 방을 훑쳐보다 들키는 바람에 도망가느라 몸이 흥건해서야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생기기 시작한 이 잠속의 몽환은 그를 야릇한 슬픔에 싸이게 했다. 돌쇠는 험험장부로 크고 있었다.

“돌쇠는 참 잘도 생겼지. 양반님 네서 태어났으면 한자리 했을 텐데.”

“그러게 말여. 인물이 아까워. 쫓-쫓…….”

“아 그래서 요즘 우리 용순이 년이 부쩍 열을 올리잖어. 구슬애기씨 혼사 치르면 날 잡아 땃어 줘야겠어.”

용순 어멈은 마치 약조라도 되어 있다는 듯 의기양양했다.

“으이그, 돌쇠 짝이 되려면 우리 점이정도는 돼야지. 용순이는 좀 그렇지 않아?”

“뭐라고? 우리 용순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러는 점이 네는 말이 되냐? 아직 열 살도 안 된 점이 년을 어따 짝어다 부쳐. 우리가 뭘 한다고만 하면 공연히 나서고 지랄이여.”

종당엔 서로 악다구니까지 하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돌쇠로서는 잘생긴 용모나 튼실한 체격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어릴 때부터 몸소 체험한 신분 차이는 구슬아가씨를 감히 올려다 볼 수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고, 그걸 깨닫는다는 건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왜 아무런 잘못도 없이 타고날 때부터 상하를 나누는 건지 일견 울분이 쌓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산란한 날이면 냇가로 나가 물고기 대신 어둠을 미끼로 자신의 마음을 투망질하다 돌아오곤 했다.

그날도 달이 환했다. 꽃이란 꽃은 죄다 피어 눈부시게 하

늘거리고 있었다. 잠이 오질 않는지 구슬아가씨가 뜰로 나와 마치 꽃잎 속으로 잔잔히 흘러들어가듯 조용히 걷고 있었다. 요즘 들어 부쩍 잠이 오지 않던 돌쇠도 종종 봄밤을 서성이곤 했었는데,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 구슬아가씨에게로 향해졌다. 돌쇠는 한 발짝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돌쇠인 줄 아는 구슬이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저…….”

“…….”

제 목구멍으로 침 넘어가는 소리가 천둥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렸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슴만 두방망이질을 칠뿐 전신이 굳어버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구슬아가씨는 조용히 웃으며 바라보고만 있었다. 돌쇠는 이대로 영영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날이 자신도 모르게 구슬아가씨를 향해 생기는 마음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이 혼란스러웠고, 마치 광활한 우주에 혼자 똑 떨어진 최초의 인간이자, 마지막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섭도록 적적했다. 한 발짝 앞에 있는 구슬 아가씨가 마치 먼 하늘나라에 있는 것처럼 아득히 느껴지기도 하고, 당장이라도 와락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서 호흡은 멈추어질 듯 거칠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

돌쇠 나이 어느새 열여섯이었다.

함께 놀던 어린 시절로부터 구슬이를 먼 꽃다운 청춘으로 데려다 놓은 건 세월이었다. 어른들이 돌쇠로부터 떼어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엔 아득한 슬픔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 채게 되었다. 구슬이에겐 언제나 초저녁의 고요함과 아침 햇살 같은 명랑함이 함께 있었다. 이미 백발이 성성해진 부부는 그런 구슬이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희망이었다. 구슬이도 나이 들면서 돌쇠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런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님께 죄가 된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도 반듯한 처녀였다. 더러 가슴 한편에 싸한 슬픔이 느껴질 때면 혼자 한숨을 살포시 내 쉬어보는 것이었다.

산 너머 김초시택으로부터 사주단자가 도착되었다. 가세는 그리 왕성치 못했으나 워낙 용모가 뛰어나고 똑똑한지라 인근에 수재라고 소문이 파다했다. 부부는 그만하면 만족한 사윗감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애지중지하는 딸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섭섭해서 그 후 어찌 살아야 할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아직 꽃이 피기엔 먼 2월 중순이었는데, 2월이 좋다하여 혼사 날을 2월로 잡았고, 어느새 혼사는 하루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구슬이는 잠을 못 이루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에 들었다. 잠 속에서 지축을 흔들 듯 바람이 불더니 그 회오리바람 속에서 커다란 음성이 들려왔다.

“구슬아! 듣거라. 너는 나 옥황상제의 딸이니라. 너는 내 일곱째 딸인데 네 부모가 하도 자식을 기다려서 너를 잠시 지상에 내려 보냈느니라. 네 배필로 하늘의 귀한 인재를 한 집에 내려 보냈으니 지금이라도 그 배필과 혼인을 하거라.”

빛 속에서 그 목소리는 그간의 사연을 모두 들려주었다. 그리고 명을 어기면 돌쇠와 자신을 거둬가겠다는 말도 남겼다. 목소리가 사라지자 발밑이 푹 꺼지며 천 길 낭떠러지로 푹 떨어져 내리는 바람에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놀라 달려 나온 부모님께 꿈 이야기를 했더니 부모는 아연 실색을 했다. 오래 전 꿈속에서 하늘의 명을 어기지 말라했던 말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이제라도 혼사를 파기하고 돌쇠와 혼인 시킵시다.”

영감은 한동안 말없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아마 아이가 긴장을 해서 개꿈을 꾸었나보오. 제집 머슴의 아들과 혼인시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오. 신령님도 노망이시지…….”

특별히 돌쇠를 아끼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구슬이와 짝을 맺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예기였다. 이것저것 걸리긴 했지만 아이의 꿈이 개꿈일 수도 있다 생각하여 혼사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옛날의 약속 따윈 까마득히 잊고 그저 세속적인 기쁨에만 취해 있었다.

초레칭이 만들어 지고 꽃단장을 한, 그야말로 꽃 같은 구

슬이가 초례청으로 나왔다.

모든 사람이 감탄할 만큼 실로 아름다웠다. 돌쇠는 뚫어져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식 전부를 보아 두었다. 제 사랑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뭉클 올라왔다. 초례청을 뒤엎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죄 받아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잔치는 인근마을이 술렁일 정도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초야를 치른 다음날 신행길에 오른 일행은 넘어야 할 산이 꽤 높은 고로 서둘러 길을 떠나기로 했다. 부부는 이루 말 할 수없이 섭섭했으나 눈물을 보이면 행여 딸자식 시집살이에 해라도 될까하여 애써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가마꾼과 혼수를 등에 멘 사람들이 한 줄로 늘어섰다. 돌쇠도 멀찌감치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런데 평소에 잘 알던 길은 오간데 없고 자꾸 낯선 길들이 나타났다. 이유를 알 수 없어 우왕좌왕하다 겨우 길을 찾아 한참을 가면 여전히 아까 가던 길로 되돌아와 있곤 했다. 앞잡이가 시원찮다느니, 어찌 된 일이냐 느니 일행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돌쇠도 어이된 일인지 영문을 몰라 그냥 안타깝게 뒤를 따를 따름이었다.

익숙한 개울 앞에 다다랐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구슬이를 얻기 위해 치성을 드리던 그 다리였다. 아직 꽃피는 봄은 아니었지만 어느새 계곡의 얼음이 녹아 개울물은 한껏 부풀어 있었고, 맑고 푸른 물은 얇은 안개로 막

을 친 채 흐르고 있었다. 늦었지만 이제 옳다구나 싶어 다리를 건너는데 달이 다리 위를 흰하게 비쳤다.

일행이 다리를 중간 쯤 지날 무렵이었다. 돌연 먹구름이 달을 삼키더니 갑자기 눈보라가 치기 시작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뭐 일여? 이거 원 앞을 분간 할 수가 있어야지. 미끄러워서 가마를 쥐고 있을 수가 없네. 그랴.”

“어디 잘 좀 해봐, 큰일이구먼. 그러게 꽃필 때 잔치를 했으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녀.”

일행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눈보라는 점점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일행은 극도로 긴장을 하고 조심스레 발을 옮기다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돌쇠도 먼발치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까웠으나 이 참에 가마가 아예 저 다리를 건너지 못했으면 하는 방정맞은 생각까지 드는 것이었다.

“여보게 가마 좀 단단히 쥐게. 큰일 나겠어. 나 참”

“아 날보고 어찌라는 거여? 지금 최선을 다 하잖어”

아차하면 가마도 사람도 개울 아래로 떨어질 판이었다. 좌지우지 하는 동안 눈은 더욱 세차게 내렸고 상황은 매우 급박해졌다. 진퇴양난의 시간을 건디다 가마꾼들은 지쳤고 급기야 신부를 태운 가마는 손을 미끄러져 나가 다리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참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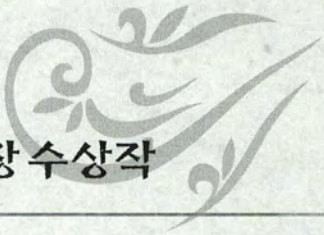
가마는 깊고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아버렸다. 물소리는 하늘로 진동하며 깊은 여운을 남긴 채 멀어져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구름은 서서히 걷히고 눈도 멈추었다. 천지는 고요하고 바람은 푸르렀다. 간간 부엉이 울음소리만 마른 풀잎으로 내려와 딱딱 부딪쳤다. 달은 하늘 높이 떠올라 시린 빛들을 쏟아 불고 있었다.

그 후로 돌쇠는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다. 이 사연의 내력을 아는 건 오직 부부 뿐이었다. 마을사람들은 슬픈 이야기를 떠올리며 눈물지었고, 그 후 구슬이가 달밤에 가마 타고 가다 빠졌다 하여 이 장소를 '설월리 가마소'라 불렀다.

하늘나라로 간 구슬이는 슬픔에 잠기셨을 부모님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사무치게 그리기도 해서 밤마다 옥황상제 몰래 달을 타고 나와 이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부모님과 함께 걷던 길이며, 돌쇠와 뛰어놀던 골목길. 용순이, 점이와 함께 놀던 언덕들이 뼈에 사무치도록 그리워 날마다 이 일대를 내려다보게 되었고, 그런 구슬이의 눈물 때문에 달이 얼룩졌다고도 한다.

초월, 지월, 설월은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달이 밝은데 그것은 옥황상제께서 슬퍼하는 구슬이를 위해 이 일대를 지나칠 때는 더욱 환히 밝히게 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전해진다. 지금도 달이 빠진 '가마소'의 밤 풍경은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여 백



남한산성 백일장 수상작

- 초등부 대상
김세은 | 남한산성은 박물관이야
- 중등부 대상
강효신 | 가장 찬란했던 봄, 그리고 남한산성
- 고등부 대상
이해리 | 웅고집이 남한산성을 지킨다

여 백

남한산성은 박물관이야

김 세 은

탄벌초등학교 2학년

대구루루 냇가의 바윗돌

울통불통 들판의 돌덩이

우리나라 지키려고

영차영차 영차영차

남한산에 올라왔어

나라 사랑하는 마음

차곡차곡 쌓여서

튼튼한 남한산성

우리나라의 울타리가 되었어

자랑스러운 역사의 향기 품은

남한산성은 튼튼한 박물관이야

다람쥐도 조르르 달려와
도토리 한 알 먹고
조심조심 산성 위를 달리고
까치도 열매 한 입 먹고
가만가만 흔적 없이 가듯이

우리도 남한산성 보러 가면
조심조심 가만가만 그대로 지켜주자
소중한 우리의 박물관이니까

가장 찬란했던 봄, 그리고 남한산성

강 효 신

경화여자중학교 3학년

어린 시절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한 가지 있다. 한 장의 사진에 의존한 추억이지만 부모님과 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 올랐던 남한산성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내 기억속의 남한산성은 언제나 나에게도 특별하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특별하다. 고난과 굴욕의 시간들을 함께 했던 남한산성, 자유와 해방의 시간이 아니었기에 고마움이 더욱 크다. 그러나 역사 속 무지가 더욱 깊어져 감에 따라 남한산성의 존재를 지나치게 당연히 여기는 사람들을 보며 요즈음, 나는 정말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

나에게 있어 가장 기억되는 것은 초등학교 때 견학 가서 느끼고 보았던 남한산성이다. 성곽을 따라 걷는 일이 힘들기보다는 재미있기만 했었다.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이 나에겐 남한산성으로 통하는 매개체였었다. 나도 어느새

어른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 시절의 추억을 갉아먹는 것과도 같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처음 보았던 수어장대의 웅장함이다. 걸 모습만을 보며 감탄하다 왜 그렇게 홀로 웅장할 수 있었는지 알게 된 후부터 느낌이 더욱 새로웠다. 성내에 현존하는 건물들 중 가장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무망루라는 이름이 주는 슬픔은 편견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역사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백제의 시조 온조왕과 산성 축성 당시 책임자였던 이서의 영혼을 모시는 숭열전의 그 소박하면서도 단아한 모습이 잊혀 지지 않는다. 숭열전은 남한산성 외유내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단조롭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숭열전의 분위기를 본받고 싶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한산성은 역사와 문화의 교점이자 우리의 배움터이고 지친 몸을 쉬게 하는 쉼터이다. 또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남한산성을 떠올리면 항상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막연한 고마움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의 등 뒤를 지켜주는 남한산성의 진정한 가치를 알겠다. 아마 누군가 나에게 남한산성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나는 우리네 역사의 가장 찬란했던 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혹독하고 시린 겨울을 지나 만인의 사랑을 받고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의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남한산성의 모습과 닮아있기 때문이다. 굴욕의 역사를 견디고 이제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소로 누구에게나 자리를 내어주고 지켜주는 남한산성의 모습을 보며 봄의 따뜻함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었다. 아마 남한산성이 저렇게 굳건히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한 내가 느끼는, 그리고 앞으로도 느낄 이 찬란한 봄은 영원히 이 대지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찬란한 봄, 우리의 남한산성을 나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웅고집이 남한산성을 지킨다

이 해 리

경화여자고등학교 2학년

시끄럽게 울어대던 매미들이 모습을 감추고 높은 하늘만
 큼이나 마음이 공허해지는 계절이 오면 가장 생각나는 것
 은 아무래도 우리의 고유명절 '추석'이다. 흔히들 '각박해진
 사회', '인간미를 잃은 사회', 라고 하면서 뉴스를 보는 내내
 혀끝을 차게 되는데 이맘때 쯤 고속도로에서 고향에 내려
 가겠다고 마치 연예인을 기다리는 10대 소녀들처럼 몇 시
 간씩이나 인내심 있게 줄 서 있는 차들을 볼 때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나 바쁜 현대
 인들을 매년마다 고향에 찾아가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
 무래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현대인들의 최소한의 노력인 것 같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은 '변하지 않는 존
 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이라고 정의한다. 그렇다면 적어
 도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우리들은 정체성을 찾는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에는 국가사적 57호인 ‘남한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극단적인 것에만 흥미를 느끼는 현대인들에게 남한산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모르겠다. 근처의 유명 놀이공원보다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 곳 ‘남한산성’은 본디 지니고 있는 가치와는 무관하게 연인들의 좋은 ‘ 드라이브 코스’, ‘여름철 피서지’, ‘저녁 먹기 좋은 곳’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정말 시시한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다.

물론, 훌륭한 문화유적지를 일상생활에서 친근하게 접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 유적지에 관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애정이 있다고 전제되었을 때에 해당된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가치로서의 공간으로보다는 레저 공간으로써 남한산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 크다.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을 망각한 것이다.

우리민족은 대대로 정체성을 굉장히 중시해왔다. 이는 ‘단일민족’이라는 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혈통만이 아니라 선조들이 혈통과 함께 물려준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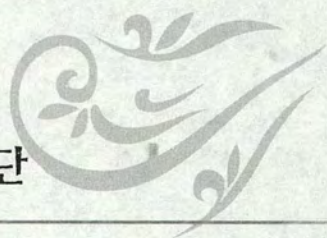
즉, ‘남한산성’은 그저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남한산성'의 가치를 깨닫고, 자부심을 느껴야한다. 남한산성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가? 남한산성은 옛 백제 온조왕 때부터 그 역사적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남한산성은 당시 수도였던 한양을 지키던 산성이었고, 단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극단적인 것만을 좋아하는 우리에게 남한산성 하면 인조의 '삼전도 굴욕'같은 기억들만 떠올리며 부끄럽게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 역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머리를 조아리면서까지 백성들의 생활고를 해결하려했던 인조의 자기희생적인 군주의 면모를 더욱 높이 기려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가 굴욕이라 생각할 때 다른 이에게 자랑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 그토록 프랑스와 다른 유럽의 나라들이 관광지로써 이름을 날리며 전 세계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 그들의 지나칠 정도의 자부심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그중 프랑스사람들은 유럽 내에서도 "예의 없고 불쾌한 사람들"이라 불린다고 한다. 이것은 외국인도 영어가 아닌 불어로 도움을 청할 때만 친절을 베푸는 파리 시민들의 태도 때문이다. 과한 자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파리 사람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결국에는 그들의 문화를 더욱 돋보이게 하였음을 주목해야한다. 우리에게 아직 변하지 않은 존재인 남한산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자존심을 걸고 이것의 본질을

때달아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성곽
곳곳엔 낙서들이 가득하다. 우리가 이 낙서들을 ‘웅고집’ 정
신으로 하나씩 지워나갈 때 세계의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
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여 백

향토 문단



〈시〉

- 한기수 | 그시절
- 오정수 | 임이 정해준 자리
- 최영옥 | 청산도
- 임규택 | 솔숲에 가면

〈수필〉

- 오경영 | 특별한 날의 사소함

여 백



그 시절

한기수

구들장이나 엮어주던 긴긴 농한기 겨울
따끈한 사랑방을 내어주고
밤참까지 챙겨주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야

김 서방 늦둥이 영식이 잔칫날 잡힌 후
어떤 집은 콩나물시루를 안치고
숙주나물을 안치는 이웃이 있는가 하면
국수 관을 부조하고 막걸리 통을 부조하는 집도 있고
옷가지를 사다주고 스텐 요강도 사다줬지

장작을 나눠 국수 삶는 화목으로 쓰게 하고
서로를 어우르는 시골 잔치
돼지를 잡고 순대국을 끓여
하루 전날부터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들뜨는 거야

동리 어귀에 가마가 들어오면
벌써 꼬마들이 파발을 전한다
초례청 두엄자리가 질퍽해지고
첫날밤 신방 차린 방문은 침구멍에 뚫리고
마을 처녀총각들 달뜨는 밤이 깊는데

이듬해 가을썸엔
고추잠자리 얹은 바지랑대
빨래 줄엔
무명 기저귀 펄럭였지

한기수

시조 생활사 신인상, 한겨레문학 시 부문 신인상
너른고을문학회 회장, 초우문학회 회장

임이 정해준 자리

오정수

강가에 부는 바람
누군가 사립문 두드리는 소리
다리께 움막에서 나온 노파
끝물고추 몇 개 삼태기에 담다가
갈대 숲 물오리 뒤척이는 소리 듣는다

깊어가는 초겨울 밤하늘
자즈러지는 별 바라보며
먼저 간 영감 얼굴 그린다
이곳 지키다 내 곁에 오라는
당부를 되새기며

얼마 전 철거독촉장 들고 온 면서기 다녀간 후
다리를 들썩이며 지나가는 포크레인 차량들

마구 덮칠 듯하고
머지않아 사라질 움막 바라보며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새벽 꿈자리
시집을 때 가져온 옥색치마 저고리 꺼내 입고
영감 따라 구름다리 오른다
물오리 떼 따라 새벽강 건너간다

오정수

뿌리지 시 신인상 등단
한국문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국제펜클럽회, 한국뿌리문화회 회원
한국농민문학회, 한국불교문인협회 이사
서울아버지합창단 1st테너, 대한음악치료학회 음악심리지도사
시집 『둘레단에 달빛 내리고』



청산도

최영옥

하늘이 열어준
4월의 문틈 사이로
노오란 꽃물이 번지는 섬마을
애달픈 사랑노래 파도에 싣고

검은 관으로 누운 저 주검

젊은 날 꿈 키우던
고향 산에 묻히고파
여객선 타고 고향 찾으니

갈매기 울음 따라
물살 가르느 뱃고동

서편제 어우러진 유채꽃 길
자전거 행렬이 요란하고
재잘거리는 소녀들
서편제 초가에 들러
북채 잡고 얼쑤 읊어댄다

순박한 할머니
굽은 등 펴고
쫘득히 말린 고구마
물에서 온 사람들 덕에
불티나게 팔아
주머니가 두둑한데
할머니 얼굴로
바닷물결 위로

유채꽃물이 넘실넘실

노오란 향내가 섬을 휘감아 돌며

울려 퍼지는

서편제 한가락

한가로운 섬마을

마음속 풍경으로 맴돈다

최영옥

열린문학동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너른고을문학회 감사
경기도주부백일장 우수상 수상

출숨에 가면

임규택

적막을
부들켜 안은
아버지의 어깻죽지가 보인다

그림자로 서 있어
홀로 무더진 서슬
부르튼 손바닥으로
내몰린 고독을 비비고

온몸으로 막아선 바람
흔들릴수록
깊어지는 뿌리

귀 울음 속엔

옹두리 삭히는
홍얼거림이 들린다

임규택

한국작가 시 부문 등단, 문인협회 광주지부 감사, 이천 문인협회 회원
시집 『빨간우체통』

특별한 날의 사소함

오경영
너른고을문학 회원

어제처럼 별일 없는 하루가 간다.

산 그림자가 사무실 창가에 무심히 내려앉을 무렵 종일
토록 내게 달라붙어 친근한 척했던 서류를 옆으로 살짝 밀
어놓고 내 혼을 앗아갔던 컴퓨터에게도 슬며시 작별을 고
한다. 무시무시하지만 6시 칼(?)퇴근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업무' 라는 녀석이 가련한 모습으로 아무리 나에게 처분을
바라는 눈길을 보내와도 나는 냉정히 뿌리치고 나온다.

비장한 각오를 다지며 나오는 내가 좀 우스워 잠시 생각
해본다. 과연 나는 왜 이렇게 매일 이 시간만 되면 살벌한
무기를 들이대고 애뜻한 일불이에게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
되어가며 상사가 보면 질책할지도 모를 이 일을 감행하는
가? 사랑하는 가족을 보려는 마음이 넘쳐나서? 아니면, 일
하느라 힘들었던 심신의 휴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취하려는
몸부림?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 늘 보는 가족

이 그토록 그림기야 하겠나. 또, 가정이라는 것이 무릇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 장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살림’과 결별하지 않는 한 당장 저녁밥을 지어야 하고 청소와 빨래, 남편과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을 챙기는 일이 나의 온전한 휴식일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차에 올라타 시동을 켜다. 요란한 엔진소리와 함께 “빠-밤~” 하며 글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인 음악이 나오고 “배철수의 음악캠프니다.” 라는 툼툼한 목소리가 튀어나온다.

“아~ 맞다! 매일 이 시간 나를 반겨주는 사람.”

그제야 내가 왜 여섯시만 되면 홀린 사람처럼 사무실을 뛰쳐나와야만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졌다.

내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외려 나를 반긴다고 착각하며 남몰래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만은 아니다. 팝송의 세계를 여행하는 기쁨과 함께 오프닝 멘트와 ‘철수는 오늘’이라는 코너를 통해 고단했던 하루를 차분히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덤으로 오기 때문이다. 생활의 급급함에 밀려 점점 희미해지는 ‘나’ 자신을 오롯이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루 일과를 마친 뒤 모든 의무감에서 해방되는 시간, 누구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 아늑한 나만의 공간, 그 안에서 누리는 숭고한 자유로움이 라고나 할까.

거창하다면 다시 말해, 내가 좋아하는 음악에 열정을 흠

백 쏟아 부었던 한 때의 내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다. 영어라는 과목을 처음 배우게 된 중학생 때부터 팝송에 매료되어 되는데로 따라 붙었고 골동품이 된 LP음반을 지금껏 가보처럼 모시고 다닌다. 가수 및 팝의 계보를 역사 공부보다 열심히 하고 해석 불능인 가사를 캐내려 영어사전이 닳았던,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깡그리 잊어버린 그 시절. 때문에 퇴근 후 이삼십 분 정도 아주 작은 곳에서 매우 짧은 시간 철수형(나는 왜 이 호칭이 낫설지 않을까?)이 치러주는 내 하루의 휴식은 참으로 성대하다.

헌데 요즘 라디오가 아주 시끌벅적하다.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3월 19일로 방송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이다. 한 달이 다 지난 오늘도 20주년 기념 100대 명반을 선정한 책을 공공연히 광고하며 애청자들에게 주는 선물에도 앞에 꼭 '20주년'을 끼워 넣고야 만다.

20년. 아~ 아득한 이십년.

나는 맨 처음 TV에서 보았던 철수형의 20년 그 이전을 새삼 떠올려본다. 그룹 활주로 멤버로 1978년 해변가요제와 대학가요제에서 '나는 세상모르고 살았노라', '탈춤'을 부르던 때. 피골이 상접하여 광대뼈가 반을 차지한 얼굴에 정리 안 된 긴 머리를 날리며 드럼을 치던 모습. 이후 송골매로 80년대의 최고인기를 누리던 그를 나는 처음부터 좋아해버렸다. 당시 내 친구들은 그 지저분하고 못생긴 사람이 뭐가 좋으냐고 했지만 그러해서 아마 좋았나보다.

1990년 가수의 길을 접고 음악 프로그램 진행자로 변신하자 어이없게도 나는 그를 불안하게 지켜보며 염려했더랬다. 다듬어지지 않은 어눌한 말투, 툭툭 끊어질 듯한 투박한 진행, 우회할 줄 모르고 꾸밈도 숨김도 없이 솔직하게 들이대는 질문과 답변. 그야말로 매끄러운 진행이 불가능한 타고난 둔탁함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묘하게도 그 어색함은 그만의 독특한 캐릭터가 되어 20년이라는 세월에 녹아들었다. 많은 PD와 작가, 스텝이 바뀌며 수없이 덜컥거렸을 20년의 터널을 지나 결국 배철수는 우리 시대 모처럼 건진 음악전문 디스크자키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프로그램의 질을 따지기 이전에 청취율로 존폐가 결정되고 진행자 역시 인기에 따라 거취가 바뀌는 것이 방송의 특성 아닌가. 그러니 10년을 두 번 엮은 방송 20주년은 그동안 그를 아슬아슬하게 바라본 내가 존경에 앞서 경악할 일이다.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20주년이라는 특별한 날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그저 정직하게 임했던 하루치의 사소한 날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유명세를 멀리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아 여유 있게 방송을 준비하는 그. 하루도 방송을 핑크 낸 적이 없는 성실함. 6시에서 8시까지의 방송을 위해 저녁 만남은 아예 하지 않으며 점심 약속으로도 인간관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한다. 아는 것의 절반 정도만 아는 척을 하여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역

설적으로 그래서 그는 자유롭다. 여전히 나는 그 자유로움에 꽃히고 만다.

나이가 들수록 멋지게 늙어가는 라디오 속 한 남자를 만나는 평범한 일상에서 오늘, 나의 결혼 20주년을 맞는다. 우리의 이십년도 철수형처럼 그렇게 충분히 성.실.했던가에 대해 곰곰 생각해볼 요량이다. 기념일이란 그저 사소한 날들이 빚어놓은 하루에 불과하므로 애써 태연한 척.

광주문화원 조직도

역대 원장

직 책	성 명	재 임 기 간
초대	(고)이훈중	1987. 1 ~ 1989. 12
2, 3대	(고)박경득	1990. 1 ~ 1998. 6
4대	박용재	1998. 7 ~ 2002. 6
5, 6대	이상복	2002. 7 ~ 2010. 6
7대	남재호	2010. 7 ~ 현재

임 원

후면 참조 (p 304)

자문위원·운영위원

향토문화연구소

후면 참조 (p 305)

문 화 학 교

직 책	성 명	경 력
교 장	박 기 준	광주시민장학회이사장

문화발전특별위원회

후면 참조 (p 306)

사 무 국

직 책	성 명	담 당 업 무
사무국장	김 진 영	총괄
문화실장	이 종 남	문화교실, 기획
총무과장	오 경 영	총무, 회계

광주문화원 임원

직	책	성명	경력
원장		남재호	시인, 수필가
부원장		허창식	광주민주평통회장
부원장(상임)		정성희	충정공기념사업회장
부원장		이창희	전) 경기도의원(3선)
부원장		박용희	광주시농민단체연합회장
부원장		심상구	계명장학회 이사장
감사		유규오	광주신탁 이사장
감사		박치석	전)광주시청 공무원
이사		구교운	전)농협 광주시지부장
이사		구영해	사업
이사		김건일	전)광주L.C 회장
이사		김귀년	사업
이사		김춘섭	전)광주청년회의소회장
이사		김택수	E&치과 행정원장
이사		김학문	광주축산협동조합장
이사		김환희	광주새마을지회장
이사		박수헌	광주농협조합장
이사		박종선	예실본 광주시지부장
이사		박평일	사업
이사		손종규	중부농협조합장
이사		신금철	전)곤지암L.C 회장
이사		안형규	광주범죄예방회장
이사		양승균	광주산림조합장
이사		이봉춘	광주시체육회상임부회장
이사		이상택	전)광주시의회의장
이사		이태희	광지원농악보존회장
이사		임광필	퇴촌농협조합장
이사		임정환	사업
이사		정선화	광주여성기업인회장
이사		정춘근	전)광주라이온스 회장, 오폭읍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이사		조재연	광주시국악봉사단장
이사		허현무	서예가

※ 이사는 가나다순

향토문화연구소·연구위원

직	책	성명	경력 및 연구분야
연구소장		박광운	국사편찬위자료조사위원
부소장		안병훈	전)분원초등학교장, 전)문화원감사
연구위원		강세구	문학박사, 역사학자
연구위원		구중서	수원대명예교수, 문학박사
연구위원		김환희	광주시새마을지회장, 현)문화원이사
연구위원		남기심	연세대명예교수, 문학박사
연구위원		남풍현	단국대명예교수, 문학박사
연구위원		박광민	한국어문학연구회연구위원
연구위원		박기준	광주시민장학회이사장, 전)광주중·고등학교장
연구위원		박수현	광주농협장, 중앙고충동문화장, 현)문화원이사
연구위원		박종선	예실본광주지부장, 현)문화원이사, 전)과천부시장
연구위원		석경징	서울대명예교수, 영문학박사
연구위원		이재경	광주의정동우회장
연구위원		이재희	전)광주문화원사무국장
연구위원		이한일	전)광주문화원부원장
연구위원		전보삼	신구대교수, 철학박사,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연구위원		최종민	동국대문화예술대학원교수
연구위원		한낙교	현절사도유사, 한학자, 성균관전인
연구위원(대효)		구교운	능성구씨총렬공파22대종손, 전)광주농협지부장, 현)문화원이사
연구위원(대효)		박광정	전)밀양박씨첨정공파종중회장, 전)문화원이사
연구위원(대효)		안병욱	전)광주안씨광양군파종중회장, 전)광주군의원, 전)문화원이사
연구위원(대효)		이창희	광주이씨석탄공파21대종손, 경기도의원, 현)광주문화원부원장
연구위원(대효)		정성희	온양정씨충정공파재단이사장, 현)광주문화원부원장
간사		이단우	유교신명예기자, 현절사유사
간사		홍민자	문화관광해설사

※ 연구위원은 가나다순

광주문화발전특별위원회

직 책	성 명	경력 및 연구분야
위 원 장	윤금영	대한적십자경기협의회회장
부위원장	안형규	범죄예방회장, 광주라이온스 역대회장
사무국장	김건일	문화원 이사, 광주테니스협회 역대회장
위 원	강창성	법무사
위 원	김성일	미타정사추모원장
위 원	김준근	대한산업 대표
위 원	박광서	광주농협 이사
위 원	박동재	광주신협이사
위 원	박수성	동원대학교 교수
위 원	신인영	동백가든 대표, 광주시요식업조합장
위 원	안병서	사 업
위 원	안재완	형제주유소 대표
위 원	이봉춘	문화원 이사,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
위 원	이원용	생활체육회 회장
위 원	조희수	유치원연합 회장, 경안초교운영위원장
위 원	허경행	광주라이온스클럽 회장

※ 위원은 가나다순

편집후기

문화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광주문화’가 올해로 21호를 맞는다. 그동안 광주 사람의 삶을 조명하고 광주문화가 가진 가치와 향기를 발굴하여, 그것을 보다 승화시키기 위해 여러 면으로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광주 고유의 문화를 발굴 육성하고, 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광주문화원은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문화광주’를 지향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제7대 남재호 문화원장이 취임한 후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조직이 전면 확대 개편되었다. 사회지도층의 문화적 에너지가 최대한 집중된 만큼 발전의 보폭도 더 커지리라 생각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것들을 다루다 보면 중복되기 마련이어서 보다 새로운 것들을 조명하는데 있어 늘 아쉬움을 느낀다. 앞으로는 시민투고를 활성화 시켜 학문적인 깊이보다는 시사성, 대중성, 교양성 등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광주

전역에서 뜨겁게 지퍼지는 문화적 열정과 욕구를 제대로 조명하고, 그것을 기록함은 물론, 잘 알려져 빠른 속도로 변하고 발전하는 광주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다소 산뜻하지 않은 오명이, 오히려 가능성 많은 지역이 되기를, 그래서 시대에 맞는 수준 높은 문화가 생성되기를 소망한다.

그 중심에 광주문화원이 있을 것이다. <이>

편집위원 허정분, 이종남, 오경영

원고모집 안내

광주문화원에서는

여러분의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 수필, 소설, 콩트, 칼럼,

논단, 기타 시사에 관한 내용 등

광주지역에서 살아가는 동안 느꼈던 생각들을

글에 담아 보내주신다면

광주문화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편집부에서 채택되는 대로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문화지(계간소식지, 연간지)에 게재하며,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하게 됩니다.

광주문화 발전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관심 기대합니다.

廣州文化

인 쇄 : 2010년 12월 25일

발 행 : 2010년 12월 31일

발행인 : 원 장 남 재 호

발행처 : 광 주 문 화 원

광주시 경안동 157-26

Tel. 031) 764-0686

www.gjcc.or.kr

〈비매품〉

이 책은 국비 및 지방비의보조와 문화원의 기금으로 발행하였음.



전통과 미래를 아우르는

광주문화원